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깊은 산 골짜은 이 골이어서
큰 돌은 크게 울고, 작은 돌은 작게 울고
거짓 모습 세간다고 힘만 허비합니니
푸른 바람을 꿈고 부수어 빙산을 깨치보내.
-혜문스님-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철종대왕

대표전화 02 737 849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8월 2일 수요일 (주간) 제 281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선원은 '클릭' 순간부터 불자 네티즌을 즐겁게 하는 곳이다. 다양한 메뉴를 따라잡기 위해 마우스를 활발하게 이동하고, 그 속에 담긴 알찬 정보를 하나 하나 읽을 때 적잖은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동영상·쌍방향 통신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이 있는 게 아니다. 텍스트와 사진 등과 같은 2차원 정보만 있는 단순한 홈페이지일 뿐이다. 비결은 간단하다. 그것은 선원의 새로운 소식을 소상히 알려주고, 샌프란시스코 선원 특유의 향기를 내뿜는 데 있다.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그러나 국내 사찰·선원 등의 홈페이지는 샌프란시스코 선원과는 아주 다르다. 이들 홈페이지는 지나치게 '첨단 기술'만을 선호하고 '형식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홈페이지를 사찰이나 선원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대부분 특정 단체에 의뢰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한 곳에서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당연히 '형식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 달의 법문' '가상 사찰' '사찰 문화재' 등의 메뉴로 구성된 홈페이지 예제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해당 정보만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찰 홈페이지 특색없이 비슷

그렇다면 특색 있는 한국 사찰·선원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위해, 교계는 우선 정보화를 '어렵고 거대한' 일로 여기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사실 정보화는 대중적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 말은 정보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작은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색 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화의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사찰·선원 스스로 자신의 홈페이지를 제작·운영하는데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메뉴를 어떻게 다양화할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떤 메뉴를 특성화 해 제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수한 사이트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보다 '특화성' '창신성' 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종교가진 청소년 84%
"초등학교때 종교선택"

조계종, 청소년 3123명 '종교의식' 조사

개신교 26.6%-불교 26.1%-천주교 10.7% 順
무종교 청소년 천주교-불교-기독교 順 선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83.7%가 초등학교 때 종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포교가 청소년 불자 양성의 지름길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어린이포교에 집중하는 종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청소년포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128개 교를 무작위로 선정, 3,123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난 해 6~7월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에서 드러났다.

7월 27일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행기간은 10년 이상(45.2%), 9~6년(20.2%), 3~5년(18.3%) 등의 순으로, 평균연령이 16.6세임을 감안하면 어릴 때부터 사찰이나 교회에 나간 것이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교를 믿는 이유로는 불교와 천주교의 청소년들이 '가족이 종교를 믿어서'(53.4%, 33.1%)와 정신적 안정(21.4%, 28.2%)이라고 응답했으며, 개신교 청소년들은 정신적 안정(20.9%)과 영생(19.0%)이라고 답했다. 종교선택에 영향을 미친 권유자로는 천주교는 부모(66.8%), 기독교는 친구(18.9%), 불교는 스스로 선택(25.3%)한 비중이 많았다.

종교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무종교인 34.9%, 개신교 26.6%, 불교 26.1%, 천주교 10.7%의 순으로 드러났으나, 불자청소년 가운데 사찰에 가지 않는다는 응답도 49%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심정적인 불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불교청소년들의 종교활동이 저조한 이유로는 각 사찰에서 청소년법회를 운영하는 곳이 타 종교에 비해 많지 않고, 참여 프로그램운영도 미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회 업보 해탈 등 불교 교리 및 가치관 수용도(5점 만점)도 불자청소년(4.01)이 오히려 천주교 청소년들(4.14)에 비해 낮게 나타나 청소년 불자에 대한 불교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종교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로는 천주교 26.5%, 불교 24.4%, 기독교 14% 순으로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종교의 사회적 기여 분야로 △청소년 교화와 선도(47.7%) △사회복지(34.5%) △범죄예방 및 교화(34%) 등을 꼽았다.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확보된 청소년들의 종교행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포교종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7월 27일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보고서를 1천부 발행하여 각 사찰 및 청소년 포교단체에 배포했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참선삼매에 든 문수동자들

본사가 주최하고 선재이벤트가 진행한 '제3회 부디피아 어린이캠프'가 7월 20~22일 용주사, 목아박물관, 에버랜드 등에서 열렸다. 163명의 새싹불자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참선·사경·찬불가 배우기 등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여름 대낮에 졸음을 참아가며 무더위에도 아랑곳없이 참선삼매에 든 어린이들의 모습이 영락없는 문수동자다. <관련 기사·화보 14면>

용주사=김주일 기자

이 총리 "지리산댐 백지화 검토"

지리산권 7개 자치단체장 '댐 반대' 표명

수자원정책 결정의 최고책임자인 이한동 국무총리가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혀, 지리산 살리기 운동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 총리는 7월27일 '지리산 살리기·댐백지화 범불교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과 공동대표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 상임대표 법장스님 등이 광화문 국무총리 집무실을 방문,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한 청원서'를 전달하고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수경스님은 "지리산의 역사성, 상징성,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지리산댐 건설은 재고돼야 한다"며 "개발·정치논리를 떠나 수질 개선 위주의 통합적인 수자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지역주민과 종교계,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겠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의 위원장 자격으로 친환경적인 수자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권의 7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남원시의회 의원들도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남 구례·곡성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산청·함양군 등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난 7월 19일 남원시에서 모임을 갖고 "댐건설은 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하고 특히 인근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 결정해야 한다"며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남원시의회 의원 22명도 7월22일 '지리산댐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는 억지 논리를 철회하고 1500만명의 생활터전이요, 젖줄인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日刊 인터넷신문 현대불교
Buddhanews.com

국립공원 구역조정 조계종 현황 파악

조계종총무원은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립공원 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과 관련, 현황 파악에 나섰다. 총무원은 7월 25일 국립공원 내 사찰에 공문을 보내 사찰토지의 국립공원 구역 편입 및 해제 검토 여부와 이에 따른 사찰의 의견을 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말 국립공원 정비계획안을 발표하고, 8~9월중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12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 내에는 100여 사찰이 소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8·15 남북불교 동시법회 '연다'

종단협 제안, 조불련 화답…오후 3시 일제 타종

남과 북의 모든 사찰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와 타종식을 15일 오후3시 일제히 봉행한다.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은 "조국광복 55돌이 되는 올해 8·15에 특정한 사찰이 아니라 북과 남의 모든 사찰에서 북남불교도 동시법회를 가지자"고 7월 24일 종단협의회에 알리고 박태화 위원장의 인사말과 공동발원문 초안을 보내왔다.

종단협의회는 조불련이 8·15 동시법회에 화답해옴에 따라 △우리측은 종단협의회 주최로 15일 오후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각 종단대표와 신도 등 1천여명이 참석 법회를 봉행하며 △모든 사찰에서 15일 일제히 법회를 봉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광화통일기원 타종식으로 대치하되 △전날이 백중이므로 백중법회 때 공동발원문을 낭독하는 방안을 마련, 모든 사찰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발원문 요지 2면>

종단협의회는 지난 11일 8·15 동시법회를 봉행하자고 조불련에 제안했다. 조불련이 이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8·15 남북동시법회를 봉행한다.

한편 조불련은 남북불교 통일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제3국에서 개최하자는 귀측의 제의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연구하여 보고 연계를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단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풀이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다음주 신문 쉽니다

SOFA개정 촉구 종교인 5백명 가두행진

2일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을 앞두고 불경동한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여론이 거센 가운데 스님·신부·목사 등 성직자들도 'SOFA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소속 성직자 500여명은 7월 31일 저녁 서울 명동일대에서 'SOFA개정 국민행동' 회원들과 함께 연등을 들고 거리행진을 펼치면서, 상호성·호혜성·평등성·주권회복에 바탕을 둔 SOFA 개정을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대한불교예술원
■단집·탁자 법당내부 시공·수리 전문
■목탱화·영단·대웅전·단청·명화 불사
☎ 02)930-1681 / 011)336-5200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모주름등 (핑크)





팔모주름등(빨강) 팔모주름등(연두) 팔모주름등(노랑) 원통등 조립팔모등
팔모조립등 팔모주름등 보관형태 육각등 차걸이등 엥가등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비단연잎 → 등 통 → 완성연등

찬덕 연등제작사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2-6288
대표 김계환 함장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디지털 통합대장경 나온다

고려대장경硏 12월 '구사론' 등 시연…"팔만대장경 가치 높이는 계기"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인도 등 10여 개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장경 관련 전산화 작업의 성과들을 하나로 엮는 21세기 전자대장경 결집시대가 열렸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소장 종림) 지난 4월 '통합대장경 연구팀'을 구성하고, 다언어 경전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통합대장경 제작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연구소는 세계 불교학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구사론〉 〈섭대승론〉 〈성유식론〉 〈무량수경〉 〈금강경〉 〈대승기신론〉 〈천태사교의〉 등 8종의 한글·한문·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 경전을 우선 선정·제작하고, 12월 6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 팔만대장경 CD 봉정식에서, 이들 경전에 대한 시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들 경전은 '의미' '키워드' 등에 따라 최소 정보단위로 나누는 '마크-업' 과정과, 하나의 경전을 중심으로 다른 언어로 쓰여진 동일한 경전들을 서로 연결하는 '링킹' 과정을 거쳐, 하나의 틀에서 자유롭게 호환하고, 검색·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통합대장경'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연구소는 〈구사론〉의 산스크리트어본(本), 티베트어본, 한문본, 한글본 등에 대한 '마크-업' 과정과 '링킹'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장경 전산화는 10여 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12월 팔만대장경 CD 발간을 필두로 순차적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들 전산본은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언어의 텍스트로 진행된 탓에, '언어' '운영 프로그램' 등이 서로 달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세계 불교학계가 97년부터 이들 전산본을 하나의 틀에서 상호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 고심해 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통합대장경'은 불교학자들의 바람을 실현한 '꿈의 대장경'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 변모해 온 아시아의 불교를 한 눈에 꿰뚫어 볼 수 있게 하고, 인도학·중국학·동남아시아학 등 유관 학문의 기초 자료로도 이용될 전망이다.

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장) 스님은 "세계 최초의 통합대장경을 국내에서 만드는 것은, 세계 불교학계에서 소외되어 온 고려대장경의 학술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더했다. 고려대장경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통합대장경은 불교학계에서의 고려대장경 활용 회수를 늘이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디지털 통합대장경' 제작과 관련해, 12월경 대만, 태국, 일본, 미국 등이 참여하는 세계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대장경 전산화 국제기구인 전자불전협의체(EBTI)와도 협조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스리랑카 불치사 박물관에 비로자나불 봉안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7월21일 스리랑카 캔디시에 있는 불치사 박물관에 성초 통리원장, 법현 종단협 사무국장, 우르레와때 아뜨다시 시얌종 총무부원장, 송영오 주스리랑카대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로자나불상(높이 1.2m)을 기증했다.

불치사는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사찰로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불상을 봉안하고 있다. 스리랑카=고영배 기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발원문(요지)

우리 불교도들은 조국광복 55돌이 되는 뜻깊은 오늘 남과 북의 모든 사찰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려는 한결같은 의지를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민족의 자주는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통일문제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면서 그 실천행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토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세기 이상 분열로 하여 우리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습니다. 6월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육화(六和)의 정신에 따라 실질적인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과 북의 모든 불자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제입니다. 우리들은 아집과 사견으로부터 오는 온갖 번뇌망상과 집착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성업에 복종시키며 그 길에서 서로의 협력과 연대, 연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북과 남의 모든 불교도들은 역사적인 6·15 남북(북남)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굴함없이 용맹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조국과 후세 앞에 부끄럼없는 참다운 불제자, 통일보살이 되겠다는 것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전에서 굳게 서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참가대중

불기 2544년(주체 89, 서기 2000) 8월 15일

中 외교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말라"

이 외무장관에 요청

중국이 7월26일 한·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티베트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한 허용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탕자쉬안 중국 외교부장이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신중히 다뤄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가 양국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사형폐지 특별법안 의원 76명 국회제출

불교인권위도 입법화 촉구

불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 의원 76명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형법 등 각종 법률에 규정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7월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고,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범죄의 종류와 정상에 따라 복역 후 1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특별 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부칙에서 형법·형사소송법·군형법 등 32개 법에 규정돼 있는 사형규정을 폐지토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말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89개국, 폐지한 나라는 106개국으로 파악되며 해마다 2~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제안이유서에서 밝혔다.

한편 '사형제 폐지를 위한 불교운동본부'(공동대표 진관스님등 5명)는 7월27일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존중·인간존중의 참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며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와 사형제 폐지를 위한 공동연대기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형제 폐지 불교 지역본부를 결성하고 1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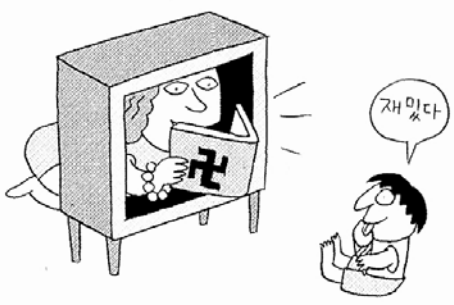
'통일정책추진위 설치' 승인

태고종 78회 임시종회

태고종은 7월 26일 선암사에서 제78회 임시중앙종회(종회의장 남파)를 열고 '태고종 통일불교정책추진위원회' 설치안과 지난해 결산 총액 18억2천여만원을 승인하는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통일불교정책추진위원회를 종단 중앙전문위원회로 설치할 것을 승인함에 따라 태고종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대북 관련업무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화해 추진할 수 있게됐다. 한편 이날 종회에서는 진안군이 마이산탑 관리자를 교체한 것과 관련, 행정처분 취소와 관련당사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경숙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신앙도 조기교육

포교사단 전국 팀장 연수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8월 19일 부터 20일까지 부산 함지골수련원에서 전국팀장 지도자연수회를 개최한다.

'포교사단의 비전과 지도자 사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현재 팀장 및 앞으로 팀장의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포교사단장 추천 포교사 그리고 임원 12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는 '리더쉽과 조직운영'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포교사단의 운영과 비전' '화합과 만남의 장' '포교와 포교사' 등의 강의 및 토론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아셈포럼 종교분과 28일 사전준비 워크숍

2000 아셈 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는 8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 9층 회의실에서 '종교간 대화와 관용의 실현을 위한 한국 종교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사전준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사전준비 워크숍은 10월 13~18일 개최 예정인 아셈 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의 국제심포지움(10월15일)을 위한 국내 참가 단체들의 한국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 및 본 행사 주제 정리, 한국의 종교간 대화와 관용의 실태 및 문제점 파악,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경 기자

"동국대 교수임용 비리 조사"

종립학교 관리위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임용 사전내정 의혹과 관련,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조사 방침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종립학교관리위 산하 종립학교발전연구 소위원장 영담스님은 7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립학교관리법에 따라 동국대에 인사비리가 있으면 종단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채용 과정을 지켜보고 비리가 있을 경우 호법부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석구 동국대총장은 25일 종립학교관리위에 출석해 "심사에 참여한 한 교수가 점수 합산을 다른 교수에게 위임해 심사를 다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일산병원 6개월내 손익맞춰"

동국대 송석구총장 송석구 동국대총장은 7월 25일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출석, "현재 건립중인 일산병원을 예정대로 2002년 7월 개원, 6개월 내에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불교대학 발전 방안과 관련, 송 총장은 "우수교수 유치를 위해 외국대학 학위취득자에게도 임용을 개방하면 동국대의 종주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또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재단 소관 사항이므로 권한이 없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송 총장의 출석, 보고에 대해 종립학교관리위 산하 종립학교발전연구 소위원장 영담스님은 "총장이 출석해 보고한 것은 긍정적이었으나, 보고 자료가 충실치 않아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하고, 일산병원 건립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공 고

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일붕존자께서 한국불교의 세계화 세계불교의 통일 그리고 한국불교 제종파의 원융화합통일과 남북평화통일 및 위국애민하는 호국불교의 바탕을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며 조계종 근본 도량까지 박차고 나와 종단을 창종하고 세계불교법왕청 설립의 동량을 삼은 종지종풍이 뚜렷한 종단이다.

또한 종도의 모임인 종단과 종도의 재산을 함께 보호육성 발전시키고 나아가 영구 보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등록 취득하고 그간 十여년간 종지종풍을 선양해 왔다.

그런데 붕해 현기홍 전종정과 그 주변 권욕승들은 일붕존자 열반후 전제적 종권 쟁탈전으로 종도들을 분열시키다가 一九九九年 十二月 二十三日 종정의 특권을 악용 종단 모든 기구를 해산하고 자기들 추종자 몇명을 중심으로 종단을 재구성하더니 지난 二千年 五月 二日 우리 일붕종도의 구심체인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 선교종을 불법적으로 해산시켜 버리고 오직 자기들 몇몇의 독선적 이기적 임의단체인 소위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으로 종명을 바꿈으로서 더욱 종단을 갈등과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말았으니 실로 부처님과 일붕조사와 일붕 종도들이 다함께 통곡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결 의 문

오늘 우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전 종도들은 불기 2544년 7월 18일 14시를 기해 본종 총무원 원사인 서울 종로구 신영동 일붕선원 큰법당에서 승가법에 의해 전국종도대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창종주 일붕 경보 존자의 유지와 심법을 계승하고 법통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을 수호하고 독선과 권욕승들에 의해 해체, 소멸된 재단법인 종단을 재건하기로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재단법인 종단을 파탄시킨 현기홍 전 종정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구성된 장연종 총무원장체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一九九九年 十二月 二十三日 이전의 재단법인 일붕선교종 본래의 전통체제인 청송스님 총무원장 체제로 환원시키기로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차기 정상적인 종단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총무원장 중심제로 개정 공포한 一九九六年 八月 三十一자 종헌 종법을 체택 종단을 재구성하고 종단 활성화 추진위원회(종단법통수호대책위원회)가 청송스님 총무원장 체제를 보좌해 나갈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二千年 七月 四日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이사회 회의에서 종단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현기홍(붕해)스님을 불신임 결의한데 대하여 적극 환영하며 절대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종정으로서 권욕과 독선으로 재단법인 종단을 해체하고 임의 사유종단으로 변종시키고, 혼란과 갈등 분파와 제적으로 종단을 파산지경으로 몰고 간 현기홍 전 종정을 불신임 결의하고 출종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종정의 독선과 종령을 앞세워 영구 종권 장악을 위해 재단법인 종단을 임의단체 종헌, 종법으로 개정작업한 실무자요. 화두청산 테이프사건, 선사상 연구 책자 발행 사건, 백두산 미륵불 조성 사건 등을 야기시켜 종단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도탄에 빠지게 한 도화 주수웅을 치탈 도첩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재단법인 종단을 해체하고 임의단체 종헌, 종법으로 개정하는데 적극 동조하고 또한 종정의 유시와 종회의장의 명의로 실시한 종단 감사 결과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시킴으로서 종단을 갈등과 혼란 속으로 몰고 간 동명 정동섭, 현각 오인석, 진소 김성한, 무정 김만석, 혜탄 등을 치탈 도첩하고 봉암 장연종 스님을 2년간 공권 정지 할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2000년 7월 18일 이후 임의단체인 현기홍 집단관계자들의 본 종단 출입과 본종 사무실 및 건물 사용을 일체 금지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현기홍 전 종정 집행부에서 본인도 모르게 아무런 사유없이 임의로 제적시켜 놓은 전 원로회의 부의장, 교육 원장, 종정 사서실장, 고시원장 등을 역임한 서무공 스님의 승적을 우리 전 종도들이 본래대로 환원을 시켜 놓을 것을 결의한다.

— 우리 전 종도들은 부처님의 혜명을 받은 불제자로서 불교와 종단과 종도를 위해 승가 본연의 자세에서 화합 단결하여 원칙과 규정이 통하는 정법행정 구현으로 참 수행 교화 종단을 만들 것을 결의한다.

※ 종도대회 동참 종도수 三二三명(경찰 추산 접수 二七十 여명 + 주최측)으로 전 종도의 약 三분의二이상 동참(연락 및 관망자 다수 불참) 결의하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二千年 七月 十八日

재 단 법 인 대 한 불 교 일 붕 선 교 종

법통수호 · 종단재건 · 정법구현 전 국 종 도 대 회 종단법통수호대책위원회

대회장 위원장 서 무 공

종정권한 대행 총 무 원 장 유 청 송

목어

바로 봐야 바른생각

아전인수란 말이 있다. 어떤 현상을 지각할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받아들이는 속성을 두고 이른 말이다. '제 눈의 안경'이듯 자기가 낀 안경을 바탕으로 현실을 본다면 그것은 실재의 사실이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사물을 지각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본다면 자존감에 손상을 입거나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필경 있어서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한달 이래 세상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 생사를 모르던 이산가족이 남북에서 생사여부가 확인되고, 지금까지 편향적으로 인식되었던 북쪽 지도자들의 인상도 뒤바뀌어지는 혼돈속에서 한달을 넘기다 보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실제상황이 과연 무엇인가 하고 가다듬어 보게 된다.

남북이 대치하여 싸운지 50년의 세월 동안 이념과 거리가 멀었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있었고 이념적인 다툼으로 생사를 달리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들을 묻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자던 그만큼 우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흔히 우리들은 언어가 같고 습관이 같고 한민족이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이 또한 아전인수식의 지각이 아닐까 싶다. 너무 정서적으로 함입할 것이 아니라 좀더 이성적인 자세로 현실을 담담하게 지각할 필요가 있다. 한 핏줄 한 습관을 지닌 우리들이라고 하더라도 50년 넘게 이질적인 환경과 이념 속에서 적개심을 갖고 살아온 서로의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순히 핏줄이 같고 하는 식의 감정에만 호소할 일이 아니다. 남북교류가 모처럼 물꼬를 텄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엇인지 모르게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위정자들의 서두르는 행동양태가 혹시 비이성적 기준을 갖고 진행하는 증구난방은 아닐런지 하는 기우 때문일 것이다. 감격스런 변화라는데 이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적 사실을 아전인수식의 속성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상황을 바로 보는 정견(正見)이 있어야 바로 인식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근후(이화의대 교수 · 분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타켓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어린이 포교 없이 불교미래 없다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로 본 포교 필요성

불교를 신행하는 청소년이 왜 타종교에 비해 숫적으로 열세일까?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왔다. 바로 열쇠는 어린이포교의 취약함.

조계종 포교원의 7월 27일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종교를 갖고 있는 청소년의 83.7%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종교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지극히 자명한 이치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어린이 포교를 등한시한 채 청소년포

수도권 불교청소년 인구 개신교 비해 10% 열세

교에만 치중해온 교계에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개신교에 비해 10% 이상 불교 청소년 인구가 낮은 것은 결국 이 지역 사찰의 어린이 · 청소년법회가 감소하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올해 초 조계종 포교원이 서울지역 320개 종단사찰을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법회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6년 30곳에서 25곳으로 5개 사찰이 법회를 중단했으며, 58개에 이르던 어린이, 청소년단체도 3년간 15개가 해체돼 모두 43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법회참가 평균인원도 96년 53.33(어린이)명과 31.5(청소년)명에서 45.33명과 25.2명으로 각각 15%, 19%가 감소했으며, 이미 어린이법회가 없어지고 청소년법회만 남아 7~8명의 회원으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사찰 4곳도 2~3년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다.

어린이, 청소년법회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찰의 인식부족과 지도교사 확보의 어려움, 사찰지원 중단, 불자부모의 개인적 신행행태 등을 꼽고 있다. 최근 어린이 포교가 활성화돼 있는 서울의 도심포교당과 수도권의 모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새로 바뀌며 어린이법회가 해체될 위기에 직면하는 등 주지스님의 성향에 따라 법회 존폐의 기로까지 서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교리공부와 포교 등 내용과 실천을 담보해주는 프로그램이 미진하여 불교 청소년의 경우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결국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불교를 올바로 이해시킬 수 있는 어린이 · 청소년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할 전문적인 어린이 · 청소년 지도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현재 각 사찰에서 준비중인 여름불교학교와 어린이캠프에 참여할 지도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청소년 지도인력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다. 보시금의 최소 10%를 어린이 · 청소년 포교비로 책정하여 어린이포교에 대한 정책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단에서는 △도심사찰의 어린이 · 청소년법회 개설 의무화 △어린이불교연합회 결성 △자녀와 함께 절에가기 캠페인 전개 △파라미타 지원 확대 △포교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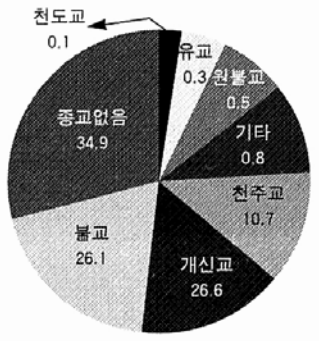
청소년 포교프로 개발 지도 인력 양성도 시급

지도교사 양성 △어린이 청소년법회 지원 △종단차원의 어린이, 청소년 포교자료 및 도서발간 △어린이, 청소년 단체간 교류강화 △유치원→어린이회→청소년회→대불련→청년회→신도회로 이어지는 시스템 개발 등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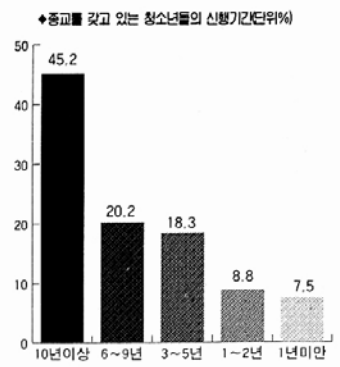
선재이벤트 이성훈실장은 "미래의 종교분포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 · 청소년에 대한 포교와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다양한 포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어린이 · 청소년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공식적인 종단 교육기관부터 개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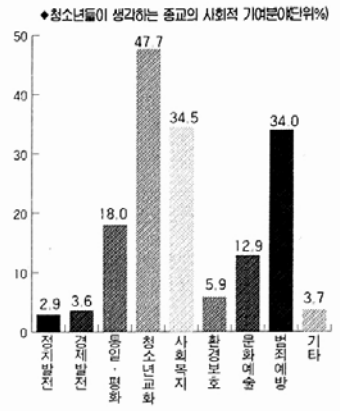
한편 종교단체의 운영 투명성과 합리성 평가에서 개신교(82.9%), 천주교(80.8%)학생들은 대체적으로 높이 평가하는데 비해 불교청소년들은 64.7%만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자기 종교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불교 청소년들의 응답이 67%로 개신교(84%), 천주교(74%)에 비해 훨씬 낮았다. 성직자관도 불교청소년의 경우 이상적인 성직자가 없다(29.9%), 성직자를 존경하지 않는다(10.6%)고 응답한 비중이 타종교인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앞으로 종교지형을 좌우한다고 볼 때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청소년 종교유형별 인구 분포(단위%)





어떻게 조사했나

조계종 포교원이 청소년 포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청소년 종교의식 조사는 지난 해 6월 7일~7월 24일 전국 128개 중 · 고교 재학생 3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대상 선정은 광역지자체별 청소년 인구비례에 의해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했으며, 설문지 직접배포 및 수거의 방법으로 실시했다. 포교원은 이 조사에 불교를 신앙하는 학생이나 종립학교가 특별한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며 조사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설문은 모두 61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종교의 유무와 종교 생활 실태, 종교에 대한 생각과 응답자의 성향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95%의 신뢰구간에서 오차 범위는 ±1.40이다.

직관의 세계 시어 응축…불교문학의 절정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㉒선시 읽기(1)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
문학박사

선시(禪詩)는 시(詩)와 선(禪)의 만남이다. 선시는 범불교적 종교시가 아닌 불교 선종(禪宗)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정신적 경지를 표현한 운문문학이다. 시가의 역사는 선종사상이 흥기하기 이전의 중국에 이미 장구하게 흘러왔으나, 그때는 시와 선의 연계가 필요치 않았었다. 그러나 선종사상이 중국에서 유행된 이후부터는 많은 문예가들이 시와 참선의 긴밀한 연계를 맺게 되었다.

선종은 당대(唐代)에 크게 흥성하였으며, 초 · 중당 시기에 많은 시인들이 선종의 영향을 받았고, 시를 창작함에 있어 선의 묘오(妙悟) 경지를 수용하여 원선입시(援禪入詩)로 선미(禪味) 농후한 시를 읊게 되었다.

명나라 사공도(司空圖)의 운외지치(韻外之致), 미외지미(味外之味) 시론은 사람들에게 명확한 시선일치(詩禪一致)이론을 인식시켰고, 후세 중국 문예 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송대(宋代)에 이르러 선종은 고도로 발전하면서 더욱 광범하게 유행했고, 사대부에까지 선의 풍류가 일어 시와 선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대표적 시인으로 당의 왕유(王維), 두보(杜甫), 백낙천(白樂天), 한산(寒山), 그리고 송의 소동파(蘇東坡), 황정견(黃庭堅), 엄우(嚴羽), 청의 왕사정(王士禎) 등 대가들이 선사상에 심취하여 고격(高格)의 선시를 많이 창작하게 되었고, 이들이 한국이나 일본 시단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언어의 절제와 응축, 그리고 상징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시와 선에는 있다. 선은 직관을 중시하고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 초월 언어가 상징으로 나타나면 곧 문학이 되는 것이며, 이런 경우 선승(禪僧)의 게(偈)는 시문학으로 나타나게 된다.

오도(悟道)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문학의 절정은 선시이다. 불교적 철학이나 사상을 산문으로 묘사 ·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 직관적인 면에 있어서의 힘은 선시문학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선을 통하여 얻어지는 정심(靜心)은 물심일여(物心一如)의 경지에서 사물의 속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시화(詩化)하는 데 촉매작용을 한다. 또 선의 돈오적(頓悟的) 사유방식은 시 창작에 있어 번득이는 영감을 제공해 준다. 선 체험으로 얻어진 무한한 정신세계와 정제된 심리상태는 묘오(妙悟)와 여유, 함축 그리고 의경(意境)을 표현한다.

선어(禪語)의 상징성과 함축, 그리고 논리 구조를 초월한 선구언어(禪句言語)는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관념을 넘어 무의식 세계, 깨달음의 세계까지 정신세계를 확장하는 창조 · 혁명적인 언어 구조로 재조직되었다. 선이 시로써 문학이 되었고, 시가 선으로써 사상과 깊이를 더해 갖춘 지고한 격조의 시 세계를 창출하였다. 청대 원호문(元好問)의 말처럼 선은 시인에게 좋은 칼을 다듬어 주었고, 시는 선에게 비단 꽃을 덮어 주었다.

그러나 게송(偈頌)을 시라고 하지는 않는다. 게송은 범어 gatha((伽陀)의 음역인 게(偈)와 풍송(諷誦)을 합성하여 만든 말로 간명하고 짧게 쓴 운문으로, 경전에서 불설이 설해지는 양식과 성질을 열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12분교의 하나이다.

인간의 모든 문화현상은 언어문자로 기록되고 사유마저도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언어문자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선 또한 마찬가지로 소위 불리문자(不離文字)요, 인언현리(因言顯理), 의언진여(依言眞如)이다. 그러나 선가의 언어는 지극히 압축되고 고도로 상징화한 비약 · 역설적인 반상(反常)의 언어이다. 일언지하(一言之下) 돈망생사(頓忘生死)하고 일초직입(一超直入) 여래지(如來地)하는 촌철살인적(寸鐵殺人的) 언어이다.

이러한 전형적 선시의 대부분은 사언, 오언, 칠언의 시 형식만 취했을 뿐 성률(聲律), 압운(押韻), 평측(平仄) 등을 무시하기 때문에 한시에서 요구하는 시문학적 우수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시적 성취를 얻은 선시로는 사대부와의 교류를 읊은 교류시(交流詩), 차운시(次韻詩)가 있다. 자신의 오도 경계를 운수자연(雲水自然)의 풍물에 의탁하여 읊은 우음시(偶吟詩), 산거시(山居詩), 운수시(雲水詩) 등에서는 사대부가 도회에서 얻을 수 없는 묘경(妙境)과 운외지미(韻外之味)를 느낄 수 있다.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 · 15 동시법회〉
남북 공동발원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광복된 지도 어언 반세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의사도 아닌 외세의 간섭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은 둘로 갈라져 54년이라는 긴 세월 분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기가 교체되는 역사적 시기, 세계가 화해와 번영으로 내닫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겨레가 서로 갈라져 산다는 것은 불행이며 수치입니다.
하여 온 겨레와 함께 우리 불자들의 절절한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 모든 불교도들은 조국광복 55돌이 되는 뜻깊은 오늘 남과 북의 모든 사찰들에서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 · 15 동시법회〉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오려는 저희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다음과 같이 부처님전에 발원합니다.

첫 째, 민족의 자주는 우리 민족이 살아나갈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그 누구도 자기를 대신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나라의 통일문제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면서 그 실천행을 적극 벌려나가겠습니다.

둘째, 조국통일은 반드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을 토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반세기이상 분열로 하여 우리 나라의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6월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6화(六和)의 정신에 따라 실질적인 조국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남과 북의 모든 불자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제입니다.
우리들은 아집과 사견으로부터 오는 온갖 번뇌망상과 집착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성업에 복종시키며 그 길에서 서로의 협력과 연대, 연합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 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아서 이제 더는 갈라져 살 수 없습니다.
20세기 중엽에 시작된 민족분열의 고통을 하루속히 끝내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자는 것이 우리 불자들과 온 겨레의 의지이고 서원입니다. 이 길에서 남과 북의 모든 불교도들은 역사적인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굴함없이 용맹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조국과 후세앞에 부끄럼없는 참다운 불제자, 통일보살이 되겠다는 것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전에서 굳게 서원합니다.

우리들의 이 서원에 언제나 부처님의 원력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 · 15 동시법회〉 참가대중
불기 2544년(서기 2000) 8월 15일

■ 남북불교도 동시법회안내 ■

◈ 법회명칭 : 민족의 자주와 단합,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 · 15 동시법회

(1) 일시
- 조계사 법회 : 2000년 8월 15일 15시~17시(범종단 연합법회)
- 전국사찰 동시법회 : 8월 14일 11시 (남북공동발원문 발표)
- 전국사찰 평화 통일기원 타종 : 8월 15일 15시 (5회)

(2) 법회동참 안내
- 조계사 법회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전국사찰에서는 백중법회시에 남북공동발원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사찰에서는 평화통일기원 타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5회)

(3) 장 소 : 남측 - 조계사 등 전사찰 〈북측 - 보현사 등 전사찰〉

(4) 주 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02-732-4885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서 정 대

"출가정신 회복…승풍진작 기대"

조계종 승가고시위 초대위원장 무비 스님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승려의 자질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위원회의 발족은 종단의 3대 지표 중 하나인 도제양성의 시발점입니다."

7월 18일 발족된 조계종 승가고시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무비(은해사 승가대학원장)스님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승가고시가 승가위상을 높이고 승풍을 진작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이번 고시위원회 부활로 출가정신이 새롭게 진작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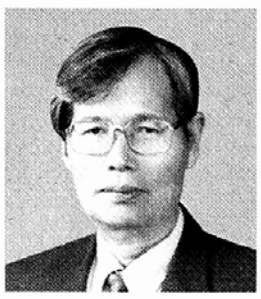
스님은 "승가고시가 종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종단 승가교육의 혼란을 가져왔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4·5급 승가고시를 내실있게 치루고, 여건이 마련되면 본말사주지 및 중앙종무기관 스님들의 법계품수를 할 수 있는 3급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앞으로 승가고시위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험출제와 감독등의 실무를 도맡아할 고시전문위원을 각 분야별로 위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학문과 불교 접목 통해 포교"

법륜불자교수회 새회장 배동호 교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지순례, 수련회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월 17일 월정사에서 열린 법륜불자교수회 하계수련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된 배동호 교수(영남대 생물자원학과)는 불교발전에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법륜불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그동안 회보와 단행본 〈불교와 학문의 만남〉을 발간하는 등 지역불교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교수들의 모임인 만큼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개최해 학문과 불교의 만남을 통해 불교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자회가 생긴지 20년이 넘었고 회원도 200여명이나 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불자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한국불교를 이끌어 가는 신행단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천태종 정안사 무안스님 문학공간 시부문 신인상



천태종 정안사 주지 무안스님이 7월 22일 서울 타워호텔 델코바홀에서 열린 제11회 문학공간상 시상식에서 시부문 추천 신인상을 수상했다. 문학공간사, 한국공간시인협회, 한국공간 수필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무안스님은 수상소감을 통해 "수행자로서 본분사를 망각하지 않는 한에서 시 세계를 추구해 나가겠다"며 "모든 사람들의 메마른 정신세계를 부드럽게 다독여줄 함축된 시를 쓰겠다"고 말했다. 시 외에도 서예와 수묵화, 향피리 등에 능한 무안스님은 지난해 첫 시집 〈보면 볼수록(답게 刊)〉을 내놓은 바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진관스님이 비전향장기수인 김석형(86)옹을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있다.

"양심수 없는 세상 빨리 왔으면…"

진관스님 석방 환영법회

진관스님 석방 환영 및 비전향장기수 환송법회가 7월 21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청화스님, 총무부장 원택스님, 수덕사 주지 법장스님, 장기표 민주국민당 최고위원, 이재정(민주당)·김원웅(한나라당) 의원,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대표와 비전향 장기수 50여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탄압한 고대사회에서도 고령인 노인들에게는 법의 원칙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면서 "감옥에 있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일주문

제1회 여름수련대회



성오 범어사 주지는 7월 27일~29일 범어사 보제루와 휴휴정사에서 제1회 여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미주시찰 순회법회

현각 동국대 불교대학장은 7월 20일 미국을 방문해 하와이 무량사, 샌프란시스코 여래사, L.A 관음사, 필라델피아 화엄사, 뉴욕 마하선원에서 순회법회를 봉행하고 14일 귀국한다.

동국대 동림동문회장 취임



정진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장 스님은 7월 28일 서울 타워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회장 취임식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스님은 지난 6월 제4차 정기총회에서 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부산구치소 재소자 위문



금종 부산 해광사 주지는 7월 26일 김혜현 국악원 단원과 함께 부산구치소를 방문 재소자 생일잔치 및 위안 공연을 가졌다.

초·중·고생 역사탐방 캠프



청암 금하선원 주지는 2일 홍성과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초·중·고등학생 무료 역사탐방캠프를 개최한다. (02)823-9135

설법 연구원 사무실 이전

동출 설법연구원장은 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종로구 낙원회관(수운회관 지하)에서 설법연구원 이전법회를 봉행한다. 설법연구원은 최근 종로구 인사동에서 경운동 수운회관 405호로 이전했다. (02)720-0824

민통선 일대 통일기행



법륜 좋은벗들 이사장 스님은 12~13일 도피안사, 철의 삼각지대 등 민통선 지역으로 통일기행을 떠난다. (02)587-8996

언론사 사장단 방북 동행



김규칠 불교방송사장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청한 언론사 사장 방북단에 동행,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을 방문한다.

고인쇄 박물관 문화학교 열어

김종벽 청주고인쇄박물관장은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널리 알리고 고인쇄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문화학교를 개설한다. 제1기는 3일까지, 제2기는 24일부터 9월 21일까지 교육한다. (043)220-6580

제주경찰서 행발위 총회



강창식 제주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장(한라불교 대표)은 7월 21일 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서울정신병원 법우회 법문

이학주 명성여고 교법사는 7일 정오 국립서울정신병원 법우회의 정기법회에서 법문한다.



진공당 탄성스님 49재 봉행

조계종 전 원로회의 의장 진공당 탄성대종사 49재가 7월 26일 법주사에서 봉행됐다. 법전·성수·도천 스님 등 원로의원을 비롯 교육원장 일면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등 2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앞에서 열린 49재에서 교구본사주지연합회 회장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평생 수행과 종단화합을 위해 힘써 왔던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수행과 종단 중흥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사암련 회장 이·취임식

경기 의정부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7월 26일 의정부시 삼천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스님, 봉선사 주지 밀운스님, 전 회장 혜승스님(의정부포교원장), 신임회장 지섭스님(관음종총무원 부원장·흥법사 주지)과 지역 유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일병원 반야회 창립 1돌 기념법회

한일병원 반야회(회장 이영숙)는 7월 25일 창립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학림사 문화원장 법조스님, 리선행 법사를 비롯해 황영희 국립의료원 불자회장, 김정숙 국립경찰병원 불자회장과 환자 등 사부대중 80여명이 참석했다. 반야회 이영숙 회장은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불자모임이 되도록 회원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 무료진료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불교회(회장 강석)는 7월 15일 경주시 양북면에서 무료진료 활동을 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산내면과 외동읍에 이어 세 번째 실시한 이날 행사는 내과·소아과·정형외과 등 총 9개의 진료과 의료진 32명이 600여명의 주민들을 진료했다. 또 300만원 상당의 구급약품과 돋보기안경, 염주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도·와·주·세·요

병든 아버지·젖먹이 두 동생 돌볼 길 막막

병든 아버지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생후 15개월된 갓난아기 두 동생을 3년째 돌보아온 중학생 가장이 최근 주변의 도움이 끊겨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형편에 처했다.

중학교 3년생인 박길우군(15)은 IMF가 터지기 직전인 3년전 아버지가 사업실패로 뇌졸증을 얻어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이런 충격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마저 1년전 가출하자 하루아침에 소년가장이 됐다. 돈을 벌 처지가 못되는 박군은 지난해 2월 한시생계보호가정으로 지정되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보조금 25만원과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약간의 돈으로 아버지 간병과 젖먹이와 초등학생 두 동생을 돌보아왔다.

그러나 최근 정기후원이 끊기면서 정부 보조와 청담복지관 후원만으로는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돼 아버지 치료는 둘째치고 젖먹이 동생의 분유와 기저귀를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곤궁하며 길우는 학업마저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 그래서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던 길우의 얼굴엔 먹구름 같은 근심이 가득하다.

도움주실 분은 (02)806-1376~7(청담사회복지관)로 연락하면 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

"한국의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과 참사람 결사의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고불총림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는 지난 98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불교계의 대표적인 諸法에 대한 만민토론 법회라 할 수 있습니다.
무차대법회란 말 그대로 불교계에 諸法에 대한 쟁점이 있을 때 누구나 신분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공개 토론하는 장으로 선논쟁의 불식과 禪風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행의 연장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인류에게 깨우침을 전해 줄 고불총림 무차대법회에 많은 불자님들이 참석하시어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古佛叢林
참사람 無遮大法會

2544년 8월 19일(음 7.20) 토요일

■법어 : 서 옹(고불총림 방장), 월 하(영축총림 방장), 숭 산(화계사 조실), 진 제(동화사 조실)
■강설 : 종 성(임제선원 조실), 성 본(동국대 교수)
■일정
• 오전 9시30분 큰스님 법어
• 오후 2시 큰스님 법어 및 강설
• 오후 6시 : 연등 점등
※ 오전 8시30분~수시 : 방생법회(일광정 호수)

■주최 : 고불총림 백양사
■주관 : 참사람 무차대법회 조직위원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문화관광부,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주간불교신문

고불총림 백양사
전화 (061) 392-7502
팩스 (061) 392-2081

전국 병원불자연합회 발족

회장 김주효씨…매월 운영회의 정례화
"의료봉사단 구성…오지 무료진료 추진"

전국 병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됐다.

국립서울정신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의료원, 경희의료원 한일병원 등 병원불자회 회장단 및 임원 10명은 지난달 25일 서울 쌍문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전국병원불자연합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참석자들은 초대 연합회 회장으로 김주효(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 회장)씨, 부회장으로 김정숙(국립경찰병원불자회 수석부회장)씨, 총무로 권혁운(경희의료원 불자회 총무)씨를 각각 선임하고, 매달 셋째주 금요일 각 병원불자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병원불자연합회 운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10월초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으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의료봉사에 나서는 한편 부산 동아대병원 불자회를 주축으로 한 부산지부 결성 등 지방조직을 완성하고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를 통해 체계적인 신행활동과 환자포교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의료봉사는 격오지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해 불우이웃에게 인술을 베푼다는 점에서 부처님 자비사상의 실천이라는 포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별 병원 법회를 통해 10월 22일 열릴 예정인 직장직능 연합대법회를 회원들에게 알려 동참을 유도하고 1년에 2~3차례 전국의 병원 불자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대법회도 가질 예정이다.

권혁운 연합회 신임 총무는 "올해 초 연합회준비위를 결성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했으나 3부제 근무를 하는 병원 특성상 모임을 갖기 힘들어 그동안 미뤄져 왔다"며 "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성지순례, 수계법회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병원불자회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법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병원불자회 창립은 그동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인 공무원연합불자회 창립을 가속화시키고 아직까지 연합회가 창립되지 안은 직장직능 신행단체들의 연합회 창립 논의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한일병원 반야회는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지난달 10일 5개 병원불자회 회장단 및 임원들이 한 음식점에 모여 '전국병원불자연합회'를 발족시키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자비인술로 환자포교"
김주효 초대 회장



"막중한 책임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병원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립의료원 등 개별 병원불자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병원불자연합회 준비위원회로부터 초대 병원불자연합회장으로 선임된 김주효(국립서울정신병원불자회 회장)씨는 "어렵게 연합불자회를 만든 만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를 통해 체계적인 신행활동을 하고 환자포교에도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회장은 또 "병원불자연합대법회, 성지순례, 수계법회를 통해 회원들의 신심을 키우고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격오지 순회 무료진료를 실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회원들에게 자신이 불자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회장은 병원불자회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 병원불자회와 교류를 통해 지부를 결성하는 등 연합회 조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조 농 연
〈구미 무을중학교 교장〉

10여 년 전 김천에서 제일벽지 학교인 ㅈ중학교 근무 할 때이다. 지금도 가정 결손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도 장기결석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자신은 더욱 망가져 가는 학생이 의외로 많았다. 이 학생들을 위하여 담임선생님들은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씨름하다 시간을 내어 가정 방문을 하곤 했다.

ㅈ중학교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다니는 학생이 전교생의 40%가 넘었다. 그러나 나는 이 학생들이 비록 공부는 못해도 아름다운 마음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접하게 되었다. 이유인즉 청암사(경북 김천 소재)에서 매주 토요일 하교 시 차를 교문 앞에 세워놓고 비구니 스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 함께 점심공양을 한 후 법회를 봉행하고 귀가시킨다는 것이었다. 즉 스님들이 사회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시간을 내어 토요일 오후 학생들과 같이 청암사에 가보기로 했다. 평소 학교에서는 책도 못 읽는 학생이 합장을 하고 반야심경을 줄줄 외지 않는가. 난 딴 세상에 온 듯 넋 나간 멍한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그 학생들의 모습이 대단해 보이는 때가 이전이나 이후나 한 번도 없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성은 늘 뒷전이고 성적으로써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공부위주였다. 그러나 공부는 꼭 하고싶고 필요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법회가 끝난 후 그 학생을 불러 얘기를 하다가 절실히 느꼈다. 칭찬을 한 후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니 중기계 운전사가 되어 혼자 계신 할머니께 돈을 많이 벌어서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나는 간절히 빌었다.



불자의 길로 들어선 지 어언 10여년. 우연한 기회에 미당화랑을 경영하는 최홍주 라는 분을 알게 되었다. 이 분은 언제나 화랑 문을 개방해 관람객들이 항상 붐빈다. 동네 사랑방이라고나 할까.

참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 해 왔는데, 어느 날 이야기를 나누다가 달마대사 그림 한 점을 구하고 싶다고 했다. 이야기 도중에 일어서더니 가게 뒷방에서 그림 한 점을 찾아와 가져가라고 흔쾌히 내어준다. 그리고 자기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단주, 염주, 부처님 그림을 내어놓고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했다. 그는 평소 화랑에 불교용품을 사 두었다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점씩 나누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화랑에 들릴 때마다 최홍주씨의 실천 행을 보고 이것이 생활불교의 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불교 생활화 하는 참불자 되자"

부처가 따로 있던가. 그 학생이, 그 화랑주가 부처인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던가. 그 후 다른 학교로 전근이 되어 학생들과 더불어 다니던 법회도 못하게 되었다.

얼마 뒤 김천 직지사에서 열린 교사불자수련법회에 참석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지금의 직지사 교사 불자회를 조직했다. 회원 수는 갈수록 늘어 초 중 고 교사 100여 명이 넘는데, 그야말로 법이 없어도 살 정도로 고운 마음씨를 갖고 있는 교사들이다. 중생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구나 하는 신념을 얻고, 매달 법회와 청소년 포교활동에 전념해오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이면 자비학교, 청소년 수련회 지도 교사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나날이 정착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고 있어 가슴 뿌듯하다.

부처님의 세계에서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고, 불자의 길로 들어서게 한 청암사 지형 스님과 여러 스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부처님께 두 손 모아 기도 드린다.

우리 모임에선

대한중석석불회 삼천배 정진

대한중석초경 석불회(회장 임갑수)는 7월23일 청도 죽림사에서 삼천배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정진법회에는 2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신심을 다졌다.

대한중석초경은 지난 98년 이스라엘의 다국적기업 ISCAR에 합병되면서 많은 회원들이 직장을 떠나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 들어 해인사 성지순례, 회보발간, 수계법회를 가지는 등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성동구청 불자회 정기법회

성동구청불자회(회장 박현수)는 7월25일 관내 미타사 정수암에서 정기법회를 가졌다. 불자회 지도법사 상덕(옥수복지관 관장) 스님이 법문한 이번 법회에는 2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신심을 키웠다.

부처님마을 하계수련

나우누리 부처님마을(대표시샵 최용원)은 오는 8월 5, 6일 서울 도선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2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수련회는 조석예불, 1080배, 참선, 불교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6·25 희생장병 6만명 위령제
BBS 통신원불자회 화천서…8백명 수계도

택시·버스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로 구성된 BBS 교통통신원 불자회가 직장직능 신행단체로는 드물게 군포교에 나서 화제다.

BBS 교통통신원 불자회(회장 이상희)는 지난달 23일 서울 정혜사, 부산불교보현회와 공동으로 강원도 화천 승리부대 신병교육대에서 호국위령제 및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도 심원사 주지, 도현 정혜사 주지, 도성 태종사 주지스님과 승리부대 부대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6·25전쟁 당시 금성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6만여명의 순국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호국위령제는 불교법음예술대학 학인 스님들의 바라·범패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이어 열린 수계법회에서는 태종사 도성스님을 계사로 800여명의 군장병들이 수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68년 재향군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철원군 금남면 마현2리의 대성사에서 남북통일 기원법회를 가지고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이상희 회장은 "정기적으로 군부대를 방문하는 등 군포교에 앞장서겠다"며 "전몰 장병들을 천도하고 군 불자들을 위문하는 작은 일이 통일의 밑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BS 교통통신원 불자들과 육군 승리부대 장병들은 지난달 23일 신병교육대 강단에서 호국위령제를 봉행하고 순국장병들의 명복을 빌었다.

클릭! 새 홈 페이지

■목탁소리(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moktaksori)-7월6일 개설. 안으로는 불교학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정의를 확실히 하고, 밖으로는 불교 포교에 힘쓰고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학생들이 모여 만든 목탁소리의 홈페이지.

■청년불교우리사랑 부산, 경상 지역모임(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okcity)-7월8일 개설. 세이클럽내 '청년불교우리사랑'(이하 청불방으로 통칭) 동호회 회원 중 부산, 경상지역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모임.

■반야동문회(http://www.freechal.com/goComm.asp?url=prayana)-7월19일 개설. 경북의대불교학생회 반야회 졸업생으로 구성된 청년 의사, 간호사의 모임.

■바라밀 동아리(http://cafe.daum.net/baramilfrom1999)-6월17일 개설. 원주 북원여자고등학교 바라밀동아리 동문들의 모임.

■성불회&해연회(http://cafe.daum.net/younghwasa1)-6월18일 개설. 성동기공 불교학생회 성불과 해연(해성)불교학생회 연합 홈페이지.

■밝은보석(http://cafe.daum.net/bomyung)-6월19일 개설. 신림동 보명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홈페이지.

■화엄 포돌이 포순이(http://cafe.daum.net/podorposun)-7월3일 개설. 중앙경찰학교 법우회가 화엄사 단기출가 후 개설된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天蓮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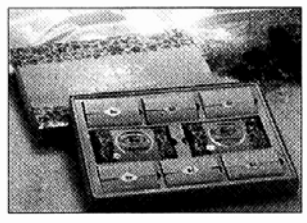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댐건설이 능사 아니다

지리산 댐 건설 반대운동이 점차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지리산 권의 7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남원시 의회의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리산 댐 백지화 국민행동 등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운동이 정부의 무분별한 댐 건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힘들에 의해 100만인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또 지리산 댐 백지화를 위한 지리산 문화제 등이 기획되고 있어, 이제 정부가 지리산 댐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전 국민적인 저항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사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저항에는 그 뚜렷한 논리가 있다. 물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절감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댐 건설이 그 대안은 아니다. 본란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걸핏하면 댐 건설을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에게 가시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안이한 발상에 다름 아닌 것이다. 가능하면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을 파괴하지 않고 물부족을 해소하려는 장기적이고도 사려깊은 정책 스탭이 있어야 한다. 환경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물 부족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조림 면적을 더 넓히는 길 밖에 없다고 충고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미 오염된 물은 그냥 포기해 버리고, 새로운 물을 찾아 새로운 오염과 파괴를 일으키는 악순환을 그치고,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고 장기적인 조림정책을 통해 물을 오래 잡아두고 쓰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물이 오염된 채로 방치되고, 또 오염을 가속화시키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가? 그런 물을 살리는 정책, 노후된 상수도관 등으로 인해 새는 물을 거두는 정책, 이런 정책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리산 댐 건설을 결행한다면 결국 환경과 문화를 파괴한 졸속하고도 안이한 행정의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오점을 남길 것이다.

한 번 결정한 일을 좀체로 철회하려 하지 않는 정치 권력의 속성으로 보아 이러한 무분별한 파괴를 막을 책임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셈이다. 그리고 일찍부터 환경지킴이, 산지킴이 역할에 나서왔던 불교계가 이러한 일에 중심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지리산댐 백지화 추신 범불교연대'에 교계의 힘을 모으고, 전국 사찰조직 등을 통해 불자들의 뜻을 모아, 불교의 울타리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를 온 국민에 회향하는 큰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직지' 사랑

청주시민회와 직지찾기 시민운동본부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쌍령산 일대에서 절터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발견했으며, 이 터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을 편찬한 고려 말의 고승 백운선사가 창건한 상운암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간기만으로는 정확한 목판 제작연대를 알 수 없는만큼 향후 정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섣부른 판단도 금물이겠지만 애써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예단하는 것도 우리는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 학계와 운동본부 모두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진실을 밝혀 나가는데 주력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백운선사의 주석처인 쌍운암이 밝혀지고 나아가 선사의 행적이 밝혀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특히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가 우리 곁에서 훤히 빛을 발하며 나타나기를 발원할 뿐이다.

아무튼 이번 절터발견은 그 진실 여부에 앞서 운동본부와 청주시민들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노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청주시민들은 1997년부터 직지찾기 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상금까지 내걸며 대대적으로 직지를 찾아왔다. 청주시도 이에 호응해 전담반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고려 우왕3년 1377년에 세상에 나왔다. 어언 623년이 지난 것이다. 그러나 독일 구텐베르크의 '세계의 심판'보다 63년이나 앞선 이 책을 우리나라가 단 한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직지 하권을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한편 현재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직지 영인본을 제작배포해 전국민의 인식을 확대해 나가고 강좌를 개설하는 등 계속 직지찾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인류사상 인쇄술을 최초로 창안한 우리 민족의 긍지에 부합되게끔 직지의 출현이 운동본부와 우리의 성의를 보아서라도 빨리 이뤄지기를 바라며, 우리 문화재보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거듭 기대한다.

'군불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의 주요 내용

군승단에서 군불교위원회로의 조직 전환

군승단은 군에 파견된 군종장교라는 신분으로 인해 종책을 국방부를 비롯한 대외적으로 시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군불교위원회로 조직을 전환, 군 포교의 원력과 경험이 있는 비구가 종단을 대표하는 포교원장의 임명을 받아 대내외적으로 군포교 사업을 관장한다.

지휘체계 확립 및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구축

군불교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국방부 및 육·해·공군 군종실 선임법사를 주축으로 3군에 대한 군승 및 사업에 대한 통솔과 협조체계를 명확히 한다. 특히 군승 인사와 관련, 위원장 직속의 인사위원회를 통한 인사고과제 등 상벌권도 명확히 수립한다.

군법당과 군 신도의 종단 정체성 강화

현재 군승은 조계종 승려신분으로 군에 파견되어 군법당의 주지를 맡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거쳐 군법당을 종단에 명의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군법당 신도에 대한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군포교 지원 및 후원단체 관리 지원

현재 포교사단 군포교팀, 군불교진흥회 등 군포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 또는 후원하는 단체가 많으나 군승단(종단)과의 정확한 연계와 관리가 없어 군포교사업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우므로 군포교 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및 협의, 지원을 해 나간다.

'군불교위원회' 놓고 이견

조계종 포교원 / 군승단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과 군승단(단장 김말환 법사)이 군불교 발전을 위해 늦어도 내년 초까지 결성하기로 한 군불교위원회가 양측의 견해차로 표류하고 있다.

포교원은 7월 11~13일 강원도 동해시 해군 1함대 법당 동해사에서 열린 군승단 선임법사회의에서 '군불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군법사들은 이번 안이 군승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군승단 운영위원회 기획국 산하 제도개선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군승단 제도개선위원회로 재구성, 전창응법사를 총간사장으로 임명했다.

전창응 법사는 "8월 중순 제도개선위원들이 모여 군승단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자체안을 마련하고 포교원과 의견조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이번 법안이 군승단 제도개선위원과 함께 1년에 걸쳐 마련한 것이라 군승단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포교원 박정규 계장은 "포교원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초안이니 만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재구성된 제도개선위원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겠다고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견차가 너무 커 군불교위원회 결성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군불교위원회 결성은 포교의 황금어장이라는 군불교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97년 11월6일 호국 원광사에서 열린 군승회의 모습.

"조계종 관리 당연"

포교원 입장

군승단이 조계종에서 국방부로 파견한 스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조계종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군포교 제반 업무를 수행할 군불교위원회는 포교원 산하 군포교 전담 기구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원장은 군포교의 원력과 경험이 있는 비구승 중에서 군불교위원회의 추천으로 포교원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군승회의를 거쳐 현역 군승 중에서 포교원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교원은 군승 인사조정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불교위원장(당연직 의장), 포교원 포교국장 및 중령급 이상으로 증징계를 받지 아니한 현역군승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역군승에 대한 보직, 장기복무, 진급, 상벌 및 기타 신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심의, 포교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불교위원장의 상신에 따라 포교원장이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게 하고 군법당 신도들에게 종단 신도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군포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포교 후원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및 협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범종단 기구로"

군승단 입장

군승단은 비록 조계종 승려이지만 그동안 한국불교를 대표해서 활동해 왔고 군포교가 범종단적 차원에서 필요한 만큼 포교원 산하 기구로 묶어두려는 조계종의 입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군불교위원회 결성의 취지가 군승 및 군포교 활성화라면 조계종만의 지원으로는 부족하기에 범종단적인 틀을 만들어 타종단의 후원을 유도, 문제가 되고 있는 군승 인력 문제도 해소해 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군인사와 관련해서는 군승이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인사문제에 있어 당연히 국방부의 명령을 받는 것이지 종단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종단이 군승의 인사문제를 개입할 경우 군승단의 독자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승단이 이번 초안에 대해 가장 거부감을 표시하는 부분은 지원문제다. 이번 안은 군승에 대한 포상 및 징계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후원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군승단은 제도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목탁소리

부산BBS 시끄럽다

천 미 희 〈부산주재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산불교방송에 또 한번의 돌풍이 예상된다. 7월 27일 열린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회에서 총괄국장에 전 불교방송 상무였던 송병욱씨를 추천했기 때문이다. 송병욱씨는 불교계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명인(?)이다.

몇 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불교방송 공금횡령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장본인이다. 물론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를 받았지만 경영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불자들의 정성으로 이뤄진 삼보정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부산불교방송 운영위는 송병욱씨를 총괄국장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부산불교방송 노조는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공금횡령의 의혹을 샀던 송병욱씨를 총괄국장에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굳이 노조측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이번 운영위의 송병욱씨 추천은 납득하기 어렵다. 송병욱씨의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리됐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채를 통해 접수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송병욱씨로 결정했다는 운영위의 주장은 더더욱 이해가 가질 않는다. 물론 추천 절차상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신뢰 받는 불교방송으로 거듭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주요 요직인 총괄국장 자리에 공금횡령의 의혹을 샀던 신선하지 못한 인물을 추천한 운영위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운영위원 추천과정에서 여러 번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산불교방송이 오명을 씻고 안정화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송병욱씨 추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운영위는 교계의 여론에 귀 기울여 지금이라도 도덕적으로 맑고 참신하며 소신있게 일할 새로운 인사 물색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본사 사장도 이번 추천으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mhcheon@buddhapia.com)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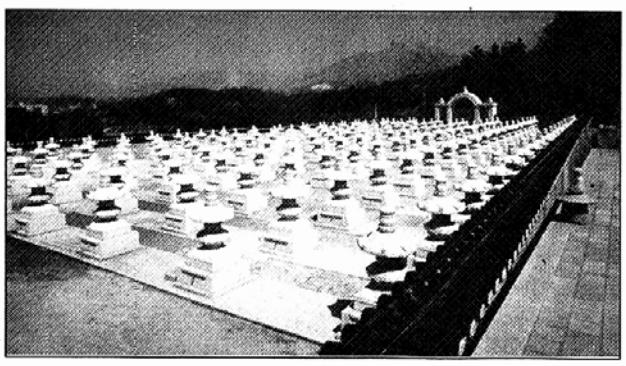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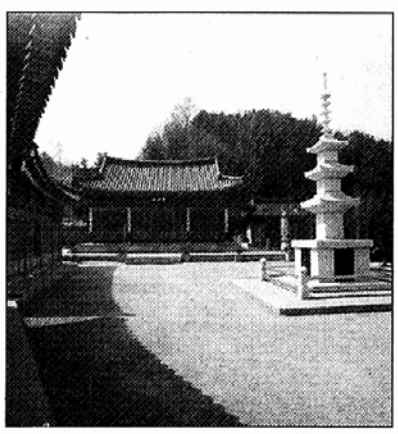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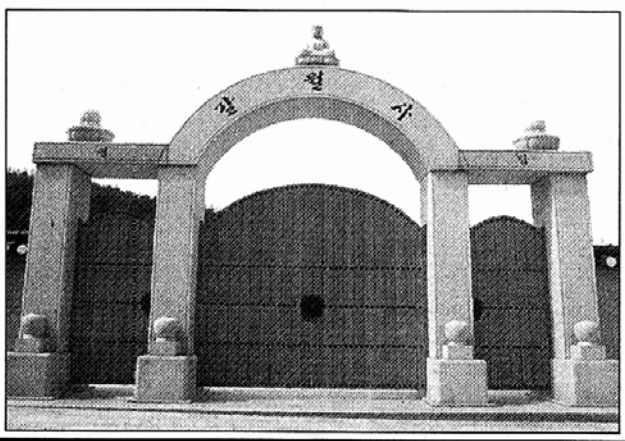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장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단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기다려지는 문화이벤트 2題

백남준 비디오 아트 '팔만대장경'

10월 해인사 성보박물관



◇백남준씨

'독창적인 시도로 새로운 예술 세계에 도전한다.'

비디오 아트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백남준씨와 베니스비엔날레 수상작가로 그 예술적 독창성을 인정받고 있는 설치미술가 전수천씨가 '팔만대장경'과 '월인천강지곡'을 테마로 새로운 예술세계를 펼칠 예정이어서 화제다.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주제로 한 백남준씨의 비디오아트작품은 오는 10월 해인사 성보박물관 개관과 더불어 선보일 계획이다.

이미 폐쇄카메라에 포착된 자신의 모습을 TV를 통해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는 부처의 모습을 표현한 걸작 'TV 부처님'(1978년 작) 등 서양의 과학기술과 동양의 정신세계를 접목시킨 다수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는 백씨는 이번 작품에서도 팔만대장경을 모티브로 세계의 보편정신에 다가가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아트로 또한번의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백씨는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이자 세계의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작품을 꼭 한번 만들고 싶었는데, 해인사 측에서 작품을 의뢰해 와 작업에 임하고 있다"면서 "10월에 문을 여는 해인사 성보박물관 2층에서 첫 선을 보이게 돼 더욱 뜻깊다"라고 밝혔다.

성보박물관내에 설치될 이번 팔만대장경 비디오아트는 40인치 모니터 12개로 만들어지며, 각각의 모니터는 팔만대장경의 제작과정과 문화사적 의미를 상징하는 화면을 보여주게 된다. 현재 백씨는 뉴욕에서 팔만대장경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작품 작업에 몰두해 있으며, 서울 호암갤러리와 로댕갤러리에서는 10월 29일까지 2000년 새 세기를 맞아 삼성미술관과 구겐하임미술관이 공동기획한 '백남준의 세계'전이 열리고 있다.

전수천씨의 이색 설치미술 작품은 내년 5월경 미국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전씨는 "내년 5월 1일~12일 차량 11대가 연결된 암트랙 대륙횡단 열차(미국 철도공사)를 백의민족의 상징인 흰천으로 씌워 뉴욕에서 로스엔젤레스까지 6000킬로미터를 달리며 산, 강, 사막 등이 펼쳐져 있는 대자연에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차에는 관광객과 세계 석학들도 동승해 문화예술과 환경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 예정이며, 한국문화자료관도 마련된다.

특히 전씨는 내년 5월 9일 횡단의 중간기착점인 애리조나 사막에서 설치작품 '월인천강지곡(月印天江之曲)'을 선보일 계획이다. 애리조나 사막에 보름달이 뜰 때 사막 한가운데 은하수처럼 길게 365대의 모니터를 파묻고 화면에는 강물에 비친 1000개의 달의 모습을 영상화한다. 사막의 비디오 모니터에서 뿜어내는 아름다운 빛을 배경으로 대금 연주자 30여명이 국악연주도 할 예정이다. 이 열차횡단의 전 과정은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중계된다.

전수천 이색 설치전 '월인천강지곡'

내년 5월 애리조나 사막



◇전수천씨

원래 이 설치미술 프로젝트는 전씨가 93년부터 준비했으나, 그동안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하다가 올해서야 가시화된 것이다. 그러나 총 30억원에 달하는 제작비 마련이 아직도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다. 전씨는 "이번 대륙횡단 프로젝트가 예술의 새로운 조형적 실험인 동시에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독창적 시도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면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문화를 알릴 이번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무더위에도 아랑곳없이 맹연습중인 LMB싱어즈는 16일 신입단원도 선발할 예정이다.

불자중창단 'L.M.B 싱어즈' 여름나기

가을공연 준비 맹연습 구슬땀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액센트를 살리면서 힘을 더 불어넣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른 7월 27일 저녁 8시 서울 효자동 청운빌딩 2층에서는 10여명의 젊은 불자 성악가들이 맹연습중이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효자동 연습실에 모이는 이들은 바로 불자중창단 LMB 싱어즈의 단원들. 에어콘도 없는 8평짜리 연습실에서 지휘봉을 든 단장 박성규씨도 단원들도 연신 구슬땀을 흘린다. 날씨는 30도를 오르내리지만 이 여름 꾸준한 연습을 통해 10월 말로 예정된 가을 정기연주에서 멋진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LMB싱어즈는 정기연주회에 이어 후반기 사찰순회 연주와 군부대 위문공연,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연주회도 가질 예정이다. 보다 많은 불자와 군장병,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로 전하고 싶어서다.

LMB싱어즈는 가을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4년제 음악대학 졸업생으로 만 35세 이하의 신심 깊은 불자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1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9일 오디션을 갖는다.

"정단원뿐 아니라 준단원과 명예단원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단장 박성규씨는 "참신하고 역량있는 후배, 동료들과 함께 음악을 통한 포교와 찬불가 보급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02)722-3677

이은자 기자

고국땅에 돌아온 日유출 문화재 57점

재일교포 김용두씨 수집 기증

일본으로 건너갔던 국보급 조선전기 불화가 다시 고국땅을 밟았다.

재일교포 사업가 두암 김용두(79)씨는 7월 25일 자신이 일본에서 구입한 조선전기 불화를 비롯해 도자기·목공예·금속공예 등 한국문화재 50건 57점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지건길)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문화재 중에는 '석가삼존도'를 비롯해 '마리기천도', '하리제모도', '한성습득도' 등 16세기에 그려진 조선전기 불화(탱화)가 4점이나 들어 있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전기 불화는 고려불화보다 남아있는 수가 적고, 그나마 국내에는 거의 전하지 않아 불교회화사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문수와 보현보살을 좌우에 배치한 '석가삼존도'는 섬세하게 표현된 인물과 배경묘사가 뛰어나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고 있다.

또 고려중기 불교의식에 사용됐던 '청동은입사수월관음대반'도 청동대반 내부에 은으로 수월관음상을 새겨넣은 솜씨가 뛰어난 작품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고려상감청자나 분청사기, 19세기 대표적 포도화가인 최석환의 '묵포도도병' 등 지정문화재급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김 씨는 8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가로 성공했으며,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고국의 문화재를 수집하기 시작해 현재 1천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김 씨는 97년에도 문화재 114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



◇인물과 배경묘사가 뛰어나 국보급문화재로 평가받은 '석가삼존도'(조선전기).

박물관측은 "이번에 기증한 문화재들은 김씨의 뜻에 따라 고향 근처인 국립진주박물관에 두암실을 마련해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만남 그리고 상생' 허수아비 축제

국립민속박물관
3일~9월4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의 상봉과 민족통일을 염원하고 환경보전을 기원하는 '만남, 그리고 상생' 허수아비 축제가 3일~9월 4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야외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허수아비 축제는 참여자 모두가 하나되는 잔치마당으로 꾸며진다. 3일 오후 1시 가족과 이웃, 외국관광객과 함께 만드는 '우리들의 꿈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가 열리고, 이어 직접 만든 허수아비앞에서 '허수아비와 함께 기념 사진 찍기'도 진행된다. 또 '새 시대 허수아비의 꿈 특별공연'에서 품바타령, 전통춤, 사물놀이도 선보인다. 이날 행사에서 만들어진 허수아비와 함께 다양한 소재의 허수아비를 연출하는 이색 허수아비 전시 '지킴이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 허수아비 특별전'은 9월 4일까지 31일간 이어진다.

21세기 온 국민의 소망을 담아 겨레가 하나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될 허수아비 축제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02)734-1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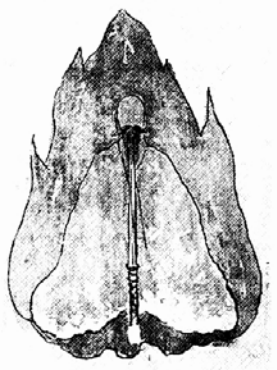
문·화·단·신

심우방 도예전

도예가 심우방씨의 다섯번째 도예전이 8일까지 서울 관훈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선 도예의 질감과 회화의 색감 구도가 어울린 작품들이 돋보인다. 서예의 굵고 분방한 붓자국 같고 부유하는 원형동물들의 춤 같기도 한 추상적인 선들을 오래돼 보이는 접시의 질감과 함께 표출한 작품에선 음양오행 사상의 도가적인 분위기가 배어 나오기도 한다. (02)733-4448

곽훈 '땅과 물'전

서양화가 곽훈씨의 '땅과 물(Earth and Water)'전이 12일까지 서울 금호미술관 제1,2 전시실에서 열린다. 한국인의 한을 다루면서 땅을 흙으로 보고 작품의 소재로 삼은 '고분연작'과 다도와 선의 세계를 연계시킨 '찻잔시리즈' 등 영겁의 세월을 뜻하는 동양적인 우주관을 담은 작품이 전시된다. (02)720-5115



◇주성준 作 '경허'

주성준 두번째 개인전

전통의 사상을 현대적 필치로 그려내는 젊은 화가 주성준씨가 제2회 개인전을 인천 진 갤러리에서 연다. 11일~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는 '만행' '경허' '신오' 등 20여 작품이 전시된다. (032)437-3383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동남아 불교예술의 보고를 찾아 떠나는
미얀마 성지순례 7일 ₩1,550,000
· 일 정 : 서울-방콕-양곤-파간-만달레이-민군-헤호-양곤-방콕-서울
· 출 발 일 : 9/20일
■ 미얀마 천년 고도인 파간 : 쉐지곤파고다, 아난다사원, 마누하사원 부파야파고다, 남파야, 쉐산도등
■ 공파웅 왕조의 역사 유적지 : 720개의 석장경이 모셔진 쿠도도파고다 차욱톳지파고다, 만달레이힐파고다
■ 민군 종, 민군 대탑
■ 소수민족의 풍속 여행지 헤호 : 형태와 모양이 다른 수천 불상을 모신 뻰다야 동굴사원, 인레호수
■ 미얀마의 수도 양곤 : 와불이 모셔진 차욱탓지파고다, 보타타웅파고다, 까바에파고다(진신사리친견대법회) 미얀마의 상징 쉐다곤파고다, 위빠사나 명상센타 마하시 수도원, 아웅산묘지등.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실크로드 불교 문화탐방 여행 8日 ₩1,349,000
· 일 정 : 서울 - 서안- 양관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 출 발 일 : 8/4, 11, 18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 길을 따라
동,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승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인 쿤자랍까지...
전문 안내인과 함께 다녀오십시오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 현지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상한도 1억원 여행자 보험
· 출 발 일 : 8/7 (10명이상 출발)

Tibet 인기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時空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쩨-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Zeep (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이책 저책

티베트 문화체험 구도소설



서양인의 티베트 문화 체험기를 담은 구도소설 〈달라이 라마의 돌〉(전2권, 서광)은 티베트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양인들을 꼬집고 있다.

켄 미첼이 쓴 이 소설은 중국에 교환교수로 있던 밥이 티베트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와 동행했던 일행들은 한 사원의 언덕에서 티베트인들이 죽인이들의 환생을 기원하는 마니돌을 기념품으로 들고 온다. 이 마니돌은 밥의 가족에게 불행을 불러오기 시작한다.

결국 밥은 마니돌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다시 티베트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라이 라마를 만난다. 이 만남을 통해 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단순히 마니돌을 되돌려 놓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상된 카르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값 각권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만화로 보는 불교동화 2권





아이들에게 불자됨을 강조하는 것은 무모한 일인지도 모른다. 〈반야심경〉을 잘 외운다고 불교를 안다고 할 수 없고, 절을 잘한다고 신행이 돈독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불교적 심성을 갖게하는 불교만화 두권이 나왔다.

〈석가모니 지혜동화〉, 〈석가모니 슬기동화〉(은하수)는 〈본생경〉에서 가려 뽑은 70여 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린이들이 진솔한 삶을 성찰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번 여름방학동안 아이들에게 불교만화를 읽게 하는 것도 건강하고 유익한 여름방학을 보내는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각권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민족사 작은경전 2차분 4권

민족사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기획한 '작은 경전 시리즈' 2차분 4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지장경·부모은중경〉, 〈묘법연화경 상·하〉, 〈대반열반경〉이 바로 그것. 이 시리즈는 민족사의 '불교경전총서'를 1/4로 축소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켓용으로 제작됐다. 이 시리즈는 선물이나 법보시용으로도 활용할 만하다. 김중근 기자

정민 교수 '돌 위에 새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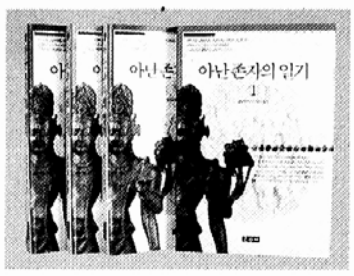


'학산당인보(學山堂印譜)'. 중국 명사라 말엽 장호가 유명한 전각자들이 옛 경전에서 좋은 글귀만을 골라 새긴 인장을 모아 엮은 책이다. 〈돌 위에 새긴 생각〉(열림원)은 한문학자 정민 교수(한양대 국문과)가 학산당인보를 구해 인장 가운데 고전 명구를 각한 것 173과를 가려 뽑아 엮은 것이다. 전각 작품은 불교경전을 물론 격언과 잠언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내용과 관계된 것들만 모았다.

돌 하나 하나의 구성과 배치도 뛰어나지만 그 행간에 담겨 있는 옛사람들의 숨결은 더욱 뜨겁다. 돌 위에 새긴 옛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읽다보면 어느새 지금의 내 삶을 돌아보게 한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아난존자 무엇을 보고 듣고 느꼈나

범라 스님 번역 '아난존자의 일기'



부처님 시봉이야기부터 수행과 깨달음까지

아난 존자.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모셨던 수제자. 우리가 아난 존자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그것이 전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의 십대제자-아난〉(우리), 〈아난〉(홍법원) 등 일대기를 적은 책은 있었으나, 신간 〈아난 존자의 일기〉(전4권, 운주사)처럼 아난 존자가 설한 '경전의 기록'을 집대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책은 깨달은 자가 아닌 불자(아난)의 관점에서 불법을 전하고 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저자는 경전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는 미얀마 원나 시리 스님.

글쓴이는 이 책을 펴내기 위해 빠알리 원전 등 초기에 결집된 수많은 경전들을 탐독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난 존자가 평생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한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낸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시봉한 이야기부터 목갈라나·밧디야·브라흐마나 존자를 비롯 수행자들의 수행과 깨달음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재가자들을 위한 법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연대·종류별로 정리하여 내놓은 것이 〈아난 존자의 일기〉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승가 대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의 내용들은 수행과 계율로 귀결된다.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 요지는 올바른 수행과 계행을 일러주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부처님의 전기를 비롯 팔정도, 연기법, 사성제 등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총망라돼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일화 중심으로 엮고 있어 읽는이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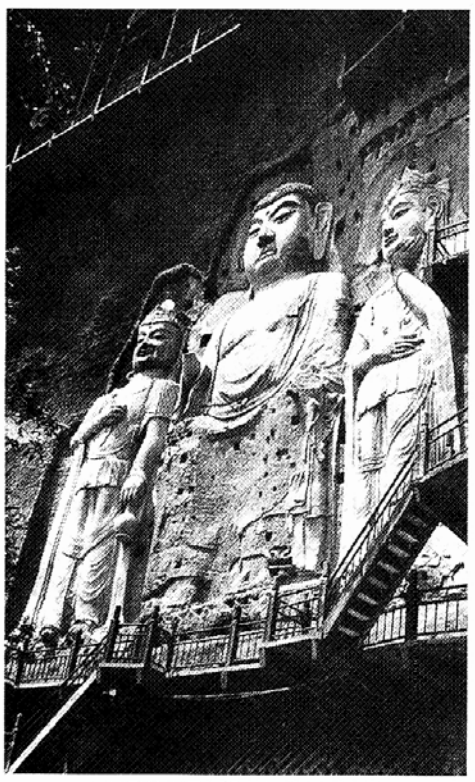
이 책은 또 부처님과 제자들이 각각 말씀한 가르침의 요점을 쉽게 포착할 수 있게 한다. 가르침을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왜 설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 창작이 아닌 실제 상황을 일정한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어서 편안한 독서를 도와준다.



2500여 년 전 부처님과 제자, 그리고 재가자들과 나누었던 법담과 수행의 모습을 그대로 싣고 있는 이 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에 되비추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난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듣고 다시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승가 생활과 대중들의 이야기도 적절히 수록돼 있어 부처님 재세 당시의 승가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한편 우리 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처님과 그 주변의 수행자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깊이 있는 수행 체험의 이야기들도 실려 있다. 우리 나라 최초로 〈위숟디 막가(청정도론)〉을 우리말로 옮긴 범라 스님이 이 책을 번역했다. 값 각권 8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맥적산 석굴 13호 굴 마애삼존불상.

실크로드 유적으로 초대

엄경자씨 '무자트 강물에 연꽃을 피워라'

중국 비단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건너간 긴 교역로, 불법을 찾아 오가던 구도승들이 맨발로 걸었던 길 '실크로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이 길은 교통로이자 문화교류의 장이었다. 실크로드를 통하여 그리스의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 페르시아 미술, 그리고 인도의 간다라 조각이 소리 없이 중국의 타림분지로 밀려왔다. 불교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기독교 등의 종교도 서역을 거쳐 서안까지 전파됐다. 이 동서간의 문화교류는 당나라 때 전성기를 맞았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유입된 미술과 공예품은 호사로운 당나라의 문화를 꽃피웠다. 이러한 동서간의 활발한 문화교류는 실크로드 주변에 여러 문화유적을 남겼다.

〈무자트 강물에 연꽃을 피워라〉(서문당)는 중국 북경에서부터 낙양과 서안을 거쳐 주천까지 중국 영토의 실크로드 미술유적을 돌아보고 쓴 답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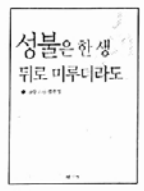


동양미술사를 독학으로 연구하고 있는 엄경자 씨(70)가 쓴 이 책은, 실크로드 미술유적으로 안내한다. 현장법사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안의 대안탑을 시작으로 회화의 보고 키길석굴, 황화문명의 유적, 그리고 용문석굴까지 이어진다. 글쓴이는 미술유적의 역사와 현황은 물론 서방예술을 어떻게 수용되어 토착예술로 탄생됐는지, 동방의 미는 어떠한 것인지 등을 곰곰하게 살핀다. 특히 일방적인 자료모음이 아닌 험난한 곳에 위치한 유적지를 두발로 밟고 눈으로 확인하고 쓴 책이란 점에서 무게를 더한다.

이 책의 1·2부는 서안으로부터 하서회랑을 따라 천산남로의 쿠챠를 거쳐 신강성의 서단인 카시가르까지, 3부는 북경에서 시작하여 산서성 일대의 대동과 태원, 그리고 낙양, 정주 등 태행산맥과 복우산맥 사이의 고대 황하문명의 터전인 중원, 서안 우루무찌 미술유적을 담고 있다. 값 1만2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성불은 한 생 뒤로 미루더라도(금명 스님 지음, 연기사)=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불자들의 신행에 지침이 될만한 내용만을 가려 뽑아 엮은 법문집.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제 신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안점으로 펴낸 이 책은, 불교의 4대 명절에 설한 법문을 시작으로 인연과 업, 연기와 중도 등 부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이 법문 속에 녹아 있는 메시지는 신행의 길잡이로 삼을 만하다. 값 1만원.



▲낙동강을 따라가 보자(박창희 지음, 글샘미디어, 전2권)= 글쓴이가 3년간 가족과 함께 낙동강을 답사하고 쓴 체험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쓴 이 책은, 낙동강이 처음 시작된 황지연못을 비롯 삼국유사가 쓰여진 군위 인각사, 새와 곤충과 물풀들의 천국 우포늪,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 등 낙동강 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생태와 자연을 꼼꼼하게 답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가 볼만한 체험학습장소 등 여러 답사코스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이 책만의 특징이다. 값 각권 7천5백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제임스 밴 프라흐 지음, 김정우 옮김, 선재)= 이 책의 알맹이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의 완성을 실현할 때까지 살아남을 거듭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은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므로 우리는 언젠가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정신세계의 모습은 어떤지, 영혼이 다음 생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윤회 과정은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값 7천원.



▲운부(이덕일 지음, 중앙 M&B, 전3권)= 역사를 바꾸려 했던 조선 숙종조 승려들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소설. 불교와 유교간의 갈등, 그리고 혁명…. 시대를 뒤흔든 조선조 최대의 이 사건은 왜 그토록 철저히 은폐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소설은 역사의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그 전모를 하나씩 벗겨낸다. 값 각권 7천원



▲전생 가기 참 쉽다(설기문 지음, 도솔)= 전생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기법들만 담은 매뉴얼. 전생 유도테잎에 의한 최면요법, 펜들럼과 점막대를 이용한 방법, 명상몽 꾸는 방법 등 모든 전생 유도 방법이 망라돼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심신 이완법은 전생여행과 상관없이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데에 활용해도 좋다. 값 8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전통사찰음식	적 문	우 리
2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3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4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강원	법 공 양
5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 족 사
6	5박6일 명상체험기	김 남 선	불 광
7	산승일기	지 묵	우 리
8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9	선가귀감	박 현	바 나 리
10	깨어 있는 삶으로의 여행	죠 셉	문화사랑

도서 안내:(02)737-0695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국내·외 10여 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전적 전산화 성과물을 하나로 결집하는 '디지털 통합대장경'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다언어 경전들을 검색·비교·분석하고자 했던, 5년전 세계 불교학자들의 서원이 현실화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국내·의 경전 전산화 현황과 디지털 통합대장경이 가져올 학계의 변화를 알아본다.

〈편집자〉



◇고려대장경연구소는 12월 6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총 15장의 CD본(本) 팔만대장경의 봉정식을 연다. 팔만대장경판 모습.

고려대장경硏, 디지털 통합대장경 12월 시연

다언어 경전 비교-분석 쉬워진다

전산화 현황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교전적 전산화 사업은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의 팔만대장경 전산화 및 디지털 통합대장경 개발, 동국대 불전연구소의(소장 보광) 〈한국불교전서〉 전산화, 진각종 종학연구소(소장 혜정)의 밀교경전 전산화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성과는 단연 돋보인다. 연구소는 올 12월 6일 팔만대장경의 경·율·논 모든 내용을 담은 CD 15장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97년부터 세계 불교학계에서 '꿈의 대장경'으로 간주해온 '디지털 통합대장경'의 모델을 제시한다.

팔만대장경 CD는 9년간 경전의 입력과 교정을 반복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작업에 매달려온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최종 전산본이다. 또 '디지털 통합대장경은' 그 동안 다언어 불교용례 전자사전을 만들어온 정신문화연구원 이종철 교수와 고려대장경연구소가 함께 만드는 것으로, 한문·티베트어·빨리어 대장경과 그 외 불교전적을 하나의 틀에 묶는 세계 최초의 다언어 하이퍼텍스트 디지털 대장경이다.

지난해부터 불교전적 전산화에 뛰어든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도 최근 총 12권의 〈한국불교전서〉 가운데 1·4권에 대한 전산본을 공개하고, 2005년까지 나머지 총서를 전산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자불전연구소는 이 과정에서 동국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사기류 등의 불교전적과 동국대 역경원의 〈한글대장경〉 그리고 국제원효학회에서 영역하고 있는 원효 스님 저술본 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본지 280호 9면 참조〉

〈대일경〉 등 밀교경전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진각종 종학연구소의 성과는 현재까지 미미하지만, 국내 불교전적 전산화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밀교경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외에도 불교전적 전산화는 미국의 아시아 고전입력 프로젝트(ACIP)에서 진행하는 티베트 대장경 전산화, 인도의 부드스리(Budhsir)와 영국의 빨리 성전협회(PTS)에서 추진하는 빨리대장경 전산화, 대만의 씨베타(CBETA)에서 만들고 있는 대정신수대장경의 전산화, 미국의 버클리대학과 일본의 하나조노대학의 불교 고문헌 전산화, 일본 도요카구엔대의 불교용어색인 전산화 등 10여 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합대장경의 효과

디지털 통합대장경이 완성되면, 대장경의 학술적 위상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통합대장경이 국내에서 개발되는 만큼 당연히 팔만대장경이 주 텍스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통합대장경 제작 과정에서 팔만대장경에 대한 번역·색인 등의 연구들이 깊이 있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이다. 경전의 전산화는 경전 내용을 '의미', '키워드' 등에 따라 최소 정보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밟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색인본(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빨리어 대장경 모습.

그동안 팔만대장경은 국내·외 학계로부터 최고의 대장경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교학 연구 과정에서 일본의 대정신수대장경보다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신수대장경에는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는 색인본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또한 디지털 통합대장경은 불교학 연구 방법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의 불교학 연구는 우선 2~3개 언어로 기록된 경전들을 해석·비교하는 등의 문헌 연구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했다. 영인본 대장경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구를 찾고, 또 그 문구의 전·후 내용을 분석해, 그 속에 담긴 사상을 추론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통합대장경이 제공하는 색인·검색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불교학자들이 십분 활용한다면, 문헌조사에 쏟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불설의 핵심을 밝히는 데 매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외에도 팔만대장경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불교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대장경이란

삼장·고승저술 등 일체의 불경 총칭

대장경이란 일체경, 삼장경 또는 장경이라 부르는데 경·율·논 삼장뿐 아니라 고승들의 저술 등 불교연구에 관한 기록을 모아 만든 일종의 총서를 말한다.

부처님 입멸 후 결집된 최초의 경전은 고대 인도 언어인 범어(산스크리트어)로 편찬되었다. 그러나 4차에 걸쳐 결집된 범어 경전은 존장의 주석만 남았을 뿐 원전을 알 수 없다. 현존하는 대장경은 크게 팔리어 경전, 티베트 대장경, 한역대장경으로 나눈다.

현존하는 대장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대장경은 팔리어 경전이다. 대승불교가 성립하기 이전인 기원전 1세기경 스리랑카에서 기록돼 동남아로 확산됐다. 초기불교에 가장 가까운 장경으로 대승경전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7세기경부터 시작해 9세기에 번역이 대부분 완성된 티베트 대장경은 한역대장경에는 없는 후기 대승불교 경전이 많아 그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401년 중국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명에 따라 처음 판본으로 제작되었고, 이후 북경판, 덱게판, 신(新)나르탕판, 초네판 등 20여종의 대장경이 만들어졌다. 특히 원문에 충실해 범어 원전 복원에 귀중한 자료다. 1967년 제13대 달라이 라마가 기증한 라사판 대장경을 비롯해 북경판과 덱게판 등 4가지 판본이 동국대 도서관에 보관돼 있다.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대장경이라고 알려진 것은 한역대장경이다. 대승과 소승의 삼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분량이 가장 많다. 한역대장경의 시초는 972년 송나라 태조 때 제작된 북송칙판대장경이다. 당나라 때 제작된 불교경전 목록인 개원석교록을 바탕으로 12년에 걸쳐 완성된 이 대장경은 최초의 목판대장경이기도 하다. 금나라 침입 이후 대부분 스실되었다. 그러나 칙판대장경은 이후의 대장경 조판사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고려초조대장경, 거란대장경, 고려속장경, 고려대장경 등 30여종의 디장경이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한역대장경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팔만대장경으로 알려진 고려대장경이다. 고종 23년(1236)부터 16년에 걸쳐 조성된 팔만대장경은 현재 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일본의 활자판 대정신수대장경(1924~1934)의 저본이 되었던 대장경이다. 현존하는 대장경판 중 최고(最古)의 것으로, 오자와 탈자가 거의 없는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한글창제 이후 경전 번역이 시작돼 언해본이 제작됐다. 그러나 부분적인 경전 번역이 아닌 본격적인 한글대장경 사업은 1964년 동국역경원이 고려대장경 한글 번역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다. 올해 말이면 사전·목록류를 포함 총 320권의 한글대장경이 완간된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통합대장경을 만들며

이종철



불교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이면서, 흘린 땀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가 적어 일찍 포기해 버리고 마는 과정이 아마도 문헌학적 훈련일 것이다. 불교문헌의 한 글자 또는 한 음절까지 세밀하게 점검하여, 빠진 것은 메워넣고 틀린 것은 고치고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왜 다를까 설명해야 하는, 그 지긋지긋한 고행길을 자기학대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좋아할까? 하지만 일상인이 보기에 수행자도 자기학대증에 걸린 정신병자로 보이듯이, 불교학자라면 당연히 이 길을 거쳐가기 마련이다. 불교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수행자 가운데 한 소식 깨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무언가 차이가 나듯이, 그 길을 지나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경계선이 있다. '문헌학' 하면

한국불교 주체성 찾기

문헌학적 연구 심화

어딘가 좀 모자란 하근기의 학자나 하는 작업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현재의 한국 불교학계의 지배적인 풍토이지만, 이는 진정한 사상적인 천착은 문헌학적인 엄밀성과 정직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학문적 나태의 소치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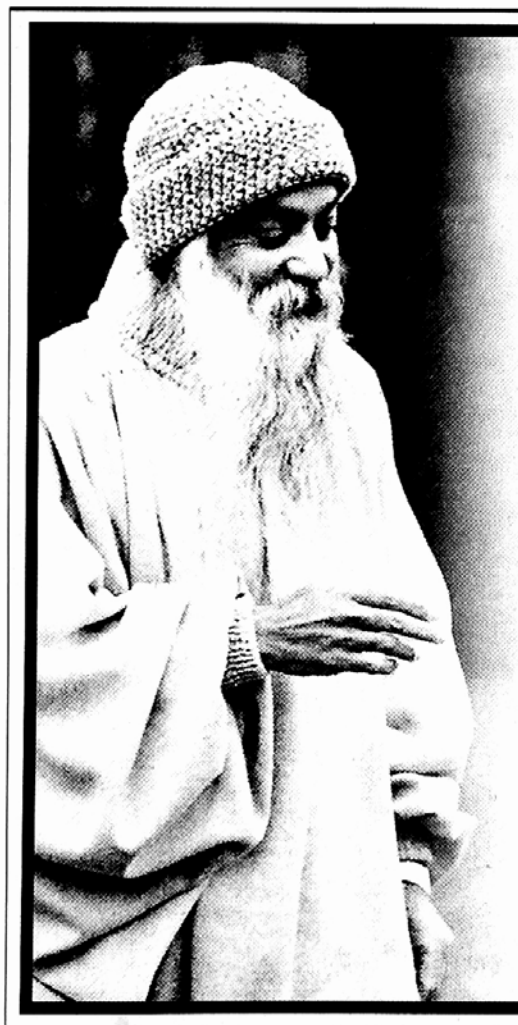
이제 예전과는 달리 불교학에 매진하는 연구자의 연구 여건은 많이 좋아졌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엄청난 양의 문헌 데이터를 CD ROM 한 장에 담아낼 수 있게 되었고 덩달아 불교 연구자가 겪어야 하는 고생길도 반은 줄어든 것 같다. 태국에서 빨리대장경이 CD ROM으로 출간되었고, 미국에서는 티베트대장경을, 대만에서는 대정신수대장경을 부분 출간하였고, 우리 나라의 고려대장경 연구소에서는 고려대장경 전체를 조만간 CD ROM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 정도 문헌이라면 이제는, 대학에서 기본적인 어학을 배우고 문헌학적인 훈련을 2~3년만 잘 닦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불교 사상의 대해에서 마음껏 노닐 수 있다. 고려대장경 연구소 측에서는 좀더 욕심을 부려 이 모든 대장경을 하나로 엮어내는 디지털 통합대장경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천학비재인 내가 그 막노동판의 십장 노릇을 맡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왜 통합대장경이 불교학 연구의 새 지평을 열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국내 일부 불교 연구자들의 연구는 편식증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무리 지금의 한국불교가 선불교의 적손이라 하더라도, 선불교만이 최고요 다른 불교 전통은 무시해도 좋다는 식으로 막나가면 "이게 정말 불교인가?"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심지어는 전문 학자들이 모이는 학회에서조차도 남방불교는 소승, 〈구사론〉도 소승이라 폄하하고 '티베트 불교' 하면 라마교라 멸시하고 '일본 불교' 하면 대처라 해서 가소롭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느니 오직 중국불교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객관성을 중히 여기는 학자의 태도일까? 내가 겪은 바로는 티베트 사원에서 게쉐(박사) 학위가 있는 승려 한 사람만 와도 우리 나라 학계의 판도가 달라질 정도로 티베트불교의 수준은 높다. 역사, 역사 따지지만 지금의 선불교의 전통이 남방불교의 역사만큼 깊을까?

통합대장경의 핵심은 '다언어 하이퍼텍스트'(multilingual hypertext)를 구성하는 데 있다. 현재의 학계 상황에 대비시켜 볼 때, 이러한 작업은 불교학 연구의 방법론이나 편식증적인 연구풍토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는 한국불교의 존재양상도 크게 바뀔 것 같다. 첫째, 문헌학적 연구에 뿌리를 둔 불교사상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뚜렷한 문헌적 근거도 없이 상상력으로 지어내는 말에 다들 식상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사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제문제에 대해서 불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다양한 불교문화권의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한국불교는 새로운 '불교문화종합'에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백화제방(百花齊放)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는 방식인데, 현단계에서 한국불교 나름의 '문화주체성'을 확고히 하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값 8,5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값 11,000원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말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진정으로 보기 드문 꽃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0. 십우도
11. 신심명
12. 하얀 연꽃(달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계 지키면 사회 절로 맑아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8〉 · 끝

윤리-2

남편은 아내 존경하고 경멸 말며
친구간 괴로움 즐거움 함께 하라

〈교계싱갈라경〉에 의하면 여섯 방위 가운데 부모를 상징하는 동쪽에 이어, 남쪽은 스승인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와 덕목을 말씀하신다.

제자는 스승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올리고 가까이에서 모시며, 열심히 말씀을 듣고 노력하며, 시중을 들고 공손한 태도로 학업을 배우라 하였다. 이에 대해 스승은 제자를 잘 가르치고 지도하며, 이해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시켜 주고, 모든 학업의 지식을 설명해 주고, 친구나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제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라도 존경과 이익을 받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 서쪽은 아내와 자식인데,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고, 경멸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하며, 가정의 주권을 위임하고, 장식품을 선물해야 한다. 또 아내는 일을 잘 처리해야 하며, 권속을 잘 거느리고, 길을 잘못 들지 말 것이며, 재산을 지키고, 모든 일을 진지하고 능숙하게 대하여야 한다.

또 북쪽의 친구와 동료들에게는 잘 베풀어 보시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말을 쓰며, 남을 위해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고, 힘을 모아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며, 정직하게 말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또한 친구와 동료는 친구가 술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 지켜 주며, 방만한 친구의 재산을 지키고, 두려울 때는 친구의 의지처가 되어 주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를 저버리지 않으며, 그의 자손들도 존중한다.

또 아래쪽의 고용인에게 주인은 힘에 맞게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주고, 음식과 급료를 주며, 병에 걸렸을 때는 간호해 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적절한 때 쉬게 해 준다. 또한 고용인은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 일생 동안 힘써 일할 것이며, 주인의 명예와 칭찬을 널리 퍼뜨린다.

마지막으로 위쪽 수행자에게는 친절한 행동과, 친절한 말씨와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며, 문을 닫지 않고 재물을 공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수행자는 악을 막아 주고, 선으로 인도하며, 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들려 주고, 이미 들은 내용을 손질해 주며, 하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교계싱갈라경〉에는 남녀 사이의 윤리와 가정에 있어서의 윤리,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윤리, 경제에 관한 윤리 등 재가자의 윤리에 대해 자세히 잘 일러주고 있다.

지면 관계상 〈교계싱갈라경〉에서 설하고 있는 개별적인 덕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재가자의 생활윤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경전인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재가자의 계율에 대해 수계를 하고 일생 동안 지켜야 하는 오계와, 한시적으로 지키는 팔관재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팔관재계는 본래 초기불교의 인도에서 행해진 계의 민중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계라고 하는 것은 계정혜 삼학의 하나로서 출가 수행자의 기본이 되는 선계(善戒)를 말하는 것이었다. 세속을 떠난 자가 성스러운 길로 들어가는 입문이므로, 세속생활을 하는 재가자와는 인연이 먼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재가자에게 여덟 가지 계를 수지하게 하시고, 하루 동안이라도 마음을 청정히 하고 이 계를 지키면서 자신을 정화시켜 가면 마침내 불퇴전의 위치에서 아라한이 된다고 하셨다.

종교적으로 정화된 사람은 무익한 살생을 떠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거짓말이나 음주에 걸림이 없고, 꽃으로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집착하지 않으며, 분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지 않으므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때 아닌 때 식탐을 하지 않아 절도가 있고, 금은 보석에도 마음을 끌리지 않아 자유롭게 될 것이다.

"계가 구족한 이는 항상 정신이 맑아서 많은 재물을 얻고, 명성을 드날리며, 어떤 집회에서 어느 누구의 가까이에서도 두려움없이 떳떳하고 밝고 맑은 얼굴이 되고, 그의 행이 떳떳하므로 죽을 때 헛소리를 하거나 정신을 잃지 않으며, 몸이 무너져서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는 다섯 가지 이익을 얻게 된다."고 붓다고사 삼장은 〈청정도론〉에서 말하고 있다.

결국 계율은 승속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생활의 좌표이며, 수행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계를 잘 배우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재가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할 계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살펴보았다. 이를 계기로 계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지계청정한 생활이 된다면 윤리 도덕에 대한 가치관의 타락으로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가 좀더 맑고 청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해인총림 율원장〉

보편 · 다양성 지닌 연구 테마

세계의 불교학 〈28〉 미 국 ③

남 · 북방 불교 의례 · 교리 등 총망라
대학-학회-출판계 연계교류 활발

미국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다루고 있는 불교학의 범주는 인도 · 티베트 · 일본 · 중국 · 스리랑카와 같은 지역적인 면뿐만 아니라 만달라 상징주의 · 시간 · 수행 · 해석문제 · 실재론 · 인생관 · 의례 등의 연구 주제에서도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밖에 철학 · 심리학 · 인류학 · 동양학 등의 인접 학문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보편성'까지도 띠고 있다.

다시 말해 불교학을 특정한 테두리로 한정하기보다는 '열린 학문의 장'으로 삼고 다각적인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하버드대의 '세계종교연구소'나 UCLA대의 '한국학연구소'와 같이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다루는 곳에서 불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종명(서강대 종교학) 연구교수의 지난해 발표한 '국내불교학 연구의 방향-북미주의 연구 동향과 비교하여'에서 인용하고 있는 1994년 125명의 미국 불교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찰스 프리비시(Charls S. Prebish) 교수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미국 불교학계의 이러한 경향 즉 '다양성'과 '보편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학위를 받은 대학은 하버드대와 위스콘신대가 각 20명, 시카고대가 18명, 버지니아대가 17명, 예일대가 16명, 콜롬비아대와 템플대가 각 15명, 버클리대가 14명, 프린스턴대와 노스웨스턴대가 각 13명 등으로 조사돼, 불교 관련 연구가 특정대학에 편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의 전공 분야 역시, 37%가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불교, 30%가 일본 중심의 남아시아 불교, 23%가 티베트 중심의 중앙아시아 불교, 10%가 중국 · 한국 중심의 동아시아 불교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범어, 일어, 중국어, 빨리어, 티베트어 등의 순으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들은 불교 관련 학회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발표하고, 다른 성과물들과 비교함으로써, 연구의 깊이를 더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미국종교학회(76% ·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아시아학회(58% ·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국제불교학회(48%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불교 · 기독교학회(20% · Society for Buddhist-Christian Studies), 이시아와 비교철학회(17% · Society for Asian and Comparative Philosophy), 미국 동양학회(16% · American Oriental Society), 일본종교학회(10% · Society for the Study of Japanese Religions), 중국종교학회(8% ·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s), 서장학회(8% · Tibet Society), 빨리어문헌학회(7% · Pali Text Society), 국제진(眞)불교학회(7%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hin Buddhist Studies) 등 다양한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선 센터가 지난 2월 봉행한 수계식 모습.

또한 응답자들은 〈동서 철학〉, 〈국제불교학회지〉, 〈종교〉, 〈동방불교〉, 〈불교 기독교 학회지〉, 〈중국철학회지〉, 〈미국동양학회지〉 〈미국종교학회지〉 등의 학회지에 연구 과정에서 집필한 소고(小考)를 게재 · 평가받고 있으며, 각 대학 출판부와 스노우라이온, 위즈덤, 아시아인문학, 삼바라 등의 일반 출판사는 소고를 통해 검증되고 구체화된 응답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발간하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5년간 7~8편의 단편 논문과 1~2권의 책을 저술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불교학은 다양한 곳(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되고 있어 '보편성'을 보일 수밖에 없으며, 대학 및 연구소와 학회 그리고 출판계가 '성과→비평→수용→성과'이라는 순환 구조 속에서 연구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고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세상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

법회중계

정기법회
〈2000년 7월 15일〉



법현스님
〈자현사 주지〉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몸과 마음 다해 뛰는 보살행이 참불자의 길

오늘날처럼 격동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는 큰 방황 속에 동요하고, 실상을 등지며 현상에 따라 움직이는 행복과 명예를 무조건 소유하려고 하는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결과는 자기 스스로가 심어놓은 종자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복에만 정신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내적인 수행으로 바른 마음을 갖는 데 있다고 할 때, 오직 이기적 요구만을 내세워 기도하는 것은, 이 타행을 가르치신 부처님의 본 뜻과는 멀리 떨어진 어리석은 수행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불교를 자신들의 안일한 삶의 행복과 기쁨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원하고 소원하는 기복 신앙에만 옭아매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이 오로지 개인적인 부귀와 영화만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종교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올바른 일(선업)도 많이 하지만, 나쁜 행위(악업)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하고 바르게 바꾸어 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작은 것에 집착하여 그것만이 최고라고 고집하던 것을 자라서 어른이 되어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탐욕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욕심과 어리석은 마음을 없애는 노력이 수행입니다. 꾸준히 수행을 계속하면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의 번뇌가 사라져 반야의 지혜가 솟아납니다. 그래서 불교를 흔히 지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비록 원수 사이라도 입장을 바꾸어 보면, 원수로 여기던 사람과 함께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잘 관찰해보면, 그 원인이 다른 사람에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되었을 때 돌아보면 당시의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자기 욕심에 탐착하여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막는 무명과 무지 때문입니다. 자신의 무지가 모든 불행과 비극의 시초임을 인식했으면 남을 나처럼 생각해 주는 것이 불자의 진정한 도리입니다.

따라서 형식과 형상에만 도취되어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외면한 채 자기애적인 기복신앙으로 나간다면 그건 신앙이기 이전에 미신에 불과하며, 맹목적인 추종으로 인한 맹종과 기복은 올바른 신행이 아닙니다.

불교는 현재를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살리는 길은 현재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뛰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차원이 등장하는데, 현재를 살리는 행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보살행이라고 부릅니다. 보살행이 바로 현재를 살리는 겁니다. 현재를 살리는 행동, 나와 더불어 사는 내 이웃들을 지금 이 순간에 살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밀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진실된 참회로 녹이고 자리이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은 사라지고 심리적 육체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탓으로 업장을 소멸하지 못하면 한없이 윤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서 자비심을 일으키고 행동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타적'인 수행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업을 쌓지 않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갓바위 · 소원성취

원광 달마도

◐ 전화주시면 먼저 달마도를 부쳐드립니다.



경영주사 그린달마도 성공 · 합격 · 승진

부부화합, 결혼, 건강

사업성취 · 재수대통 · 수맥차단

지장전 중창불사 기금조성 일원으로 달마도를 보급합니다. 선근인연공덕을 지어 성불하십시오.

지장선원 포교원 (053)982-4976

달마도 문의 011)813-3679

※ 일단 달마도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반품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15-21-0517-898 이 민택

정성과 얼이 담긴

특허상품

국내 최초특허청에 등록 (제0246178호)

승복 · 법복 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의 의장법에 의하여 의장등록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안한 제품이며 연꽃 · 옴 · 만자무늬를 원단에 직접제작해서 입체적으로 만든 자가드 원단이며 원가를 절감하여 기존제품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매우 활동적이며 개량 한복처럼 세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교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저희 수레바퀴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불교발전에 귀의할

▶다의장 등록증



특별보급가격

저고리 바지	남:85,000 여:80,000
긴 조끼	남:45,000 여: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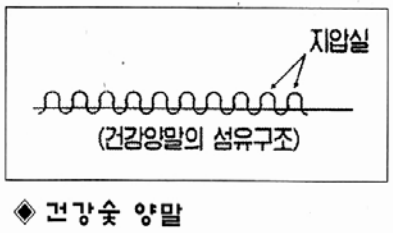
전국 대리점 모집
(가격,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기원섬유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1층)
■상담전화 (053)764-4114
■휴 대 폰 (011)9850-4400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에 법적인 제재를 받음

건강 숯 양말 특허상품



반사요법으로
발에서 氣가 쏟아진다.

◈ 건강숯 양말
· 피로회복, 혈약순환, 향균발생
· 원작외선 차단, 음이온 발생
· 무좀방지, 피로회복

※ 건피부(발이 갈라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숙취해소
· 원적외선 차단



숯 양말 신으면!!
양쪽에는 상이 안오름

◈ 특별할인 전시 판매가격
男 10컬레 35,000
女 10컬레 30,000
(타지방 부쳐드림)

올추석 선물은 건강 숯 양말로!!

대구 문화의 거리에서 2000년 신바람 150인 부채 그림전에 특별 아트 기획 상품으로 선정
◈ 전시판매장소 : 대구 중구 봉산동 문화의 거리 대림당화랑 (053) 424-0115 2000년 7월 21일부터 한달간

전국 취급점 모집 상담문의 053)983-4976 / 011)813-3679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1)905-6368 / 011)9934-3512

스리랑카 불교와 불자들



◇아누다라푸라 유적지 중심부에 세워진 높이 55m의 거대한 다고바(탑)인 루완웰리. 스리랑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고바로 알려져 있다. 주위의 보리수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의 가지를 옮겨심은 것이라고 한다. 오른쪽에는 부처님의 쇄골을 모신 투파라마다고바가 있다.



◇높이 17.5m, 길이 52m, 넓이 18m의 랑카틸라카. 사막처럼 건조한 땅에 거목처럼 우뚝 솟아 있다. 탑 안에 들어서면 머리없는 거대한 입상이 있다.



◇본당에 조각된 불보살들은 아주 정교하다.

계 안지키는 스님 가사 못입는다

에메랄드 빛 인도양의 푸른 물결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섬. 그 모습이 마치 인도 대륙이 떨어뜨린 한 방울 눈물 같다는 섬. 스리랑카. 그 아름다움 속에는 아직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히 살아있다.

기원전 3세기 신할라 왕국에서부터 불교국가로 발전해온 이 나라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이 불교도(75% 정도)이며, 지금까지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오고 있는 거대한 불교 유적들은 유네스코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을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다.

1800만의 인구에 총면적 65,609㎢ 남한의 3분의 2정도인 이 섬나라의 역사도 우리나라만큼이나 기구하다. 16세기 후반부터 포루투칼, 네델란드, 영국 순으로 암흑의 식민 통치를 받아 오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비로소 독립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400년에 가까운 식민 통치 기간에도 1만 5천여 개의 사찰과 3만 여명의 스님들을 통해서 불교 문화를 가꾸어 왔다. 이 나라에 있어서 불교는 종교이면서 국가 이념이었고,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준 자주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이 나라에서 스님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다. 그러나 그 권위는 결코 맹목적이거나 수직적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스님은 스스로가 철저한 지계 정신으로 재가자들로부터 신망을 얻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이 확고히 뿌리내린 데는 재가자의 의식도 크게 작용했다. 계율을 지키지 않거나 수행을 게을리하는 스님은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데, 계를 지키지 않는 스님은 가사를 입지 못하게 할 정도이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철저한 부처님의 제자인 이들에게는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는 구별도 큰 의미가 없다. 소승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승이라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반문한다. 남방불교라고 해서 왜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없겠느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번째로 방문해 설법하신 곳인 케나리아 라자마하비하라 사원.

이 나라의 불자들의 신행은 곧 생활이다. 절에 찾아가 부처님께 꽃과 향을 공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곳에서나 기도와 독경을 한다. 또한 이들은 종교적 격식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명상을 할 때조차도 편한 대로 다리를 펴거나 벽에 등을 기대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도 불경스러워보이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성과 속이라는 구분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대로 부처님에 대한 경배이고 기도인 것이다.

신할라 력(스리랑카 역법)으로 매월 보름(포야데이)은 모든 사람들이 사원을 참배하는 날이다. 법정 공휴일인 이날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경배의 날이다. 이밖에도 스리랑카에는 연중 다양한 형태의 불교의식을 행한다. 그 중 5월의 위삭(vesak utsavaya, 부처님 오신 날), 6월의 포손(poson utsavaya, 불교가 전래된 날), 그리고 7월의 에살라(asala utsavaya)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머하 반야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날인데, 가장 중요한 날일 뿐 아니라 축제의 날이기도 하다. 에살라 축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스리랑카의 불교도들은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이다. YMBA(청년불자연합회) 같은 단체는 불교부흥운동과 함께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따르는 스리랑카의 사람들. 그들의 평온하면서도 힘찬 생활은 보살의 모습이었다.

스리랑카=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유일한 신앙 대상인 석가모니불에 공양을 올리는 스리랑카인들.



◇폴론나루와의 불치사에 있는 석불입상.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질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정이 잘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 240,000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제합사회)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병운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저혈압으로 수심년 고생하다 좋아짐(주부 장양심씨)
· 뇌막염아기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 350,000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봉
(칩21™ 순금도금)
₩ 80,000



수정피라미드 ₩55,000 / 수정생취란아목걸이 ₩39,000 / 은취란아(칼) ₩45,000 / 은취란아목걸이 ₩88,000 / 자수정 목각목걸이 ₩75,000
벨트 ₩55,000 / 목대 ₩39,000 / 루프타이 ₩55,000 / 백걸이 취란이 ₩45,000 / 밸 취란아목걸 ₩45,000
취란아타이핀 ₩39,000 / 수정목각볼 목걸이 ₩77,000 / 취란이마스코 ₩12,000 / 수정팔찌 ₩35,000 / 지갑밸트 ₩18,000
원적외선 복피스 (2박스) ₩10,000
수정목걸이 · 백수정 ₩72,000 · 핑수정 ₩58,000 · 자수정 ₩138,000
밴드 · 무풀밴드₩18,000 · 리리밴드₩9,900 · 은목밴드₩8,800 · 팔목밴드₩12,000

※ 萬事亨通 氣 달마도
앞면 / 뒷면
정가 ₩ 20,000
萬事亨通 달마카드 무료증정
제품을 주문하시는 모든분에게 氣발생 달마도 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금박)
지갑속에 간직하시면 氣 · 運 건강이 좋아집니다.

· 전화를 주시면 氣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다로그 氣측정기 무료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책자우송

韓國氣研究院 ☎ 02)455-6944 , 02)453-5851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6-011003(예금주 : 김 진 수)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⑨

燒香者亦非世間有相之香
소향자역비세간유상지향
乃至無爲正法之香
내지무위정법지향
薰諸臭穢 斷無明惡業
훈제취예 단무명악업
悉令滅滅 其正法香有五種
실령소멸 기정법향유오종
一者戒香 所謂能斷諸惡 能修諸善
일자계향 소위능단제악 능수제선
二者定香 所謂深信大乘 心無退轉
이자정향 소위심신대승 심무퇴전
三者慧香 所謂常於身心 內外觀察
삼자혜향 소위상어신심 내외관찰
四者解脫香 所謂能斷一切無明結縛
사자해탈자 소위능단일체무명결박
五者解脫知見香 所謂覺察常明
오자해탈지견향 소위각찰상명
通達無碍 如是五香
통달무애 여시오향
名最上香 世間無比
명최상향 세간무비

향(香)이란 세속의 형상이 있는 향이 아니라 무위정법(無爲正法)의 향이다. 더러운 냄새를 없애고 무명의 악업을 끊어 다 소멸시키는 것이다. 정

의역여시 소위연 설정법제공덕화
饒益有情 散治一切眞如之性
요악유정 산치일체진여지성
普施莊嚴 此功德花佛所稱歎
보시장엄 차공덕화불소칭탄
究竟常住 無周落期
구경상주 무조락기

부처님이 생존했을 때, 제자들에게 지혜의 불로써 이러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의 향을 사루어 시방세계의 부처님에게 공양하라 하셨는데, 요즘 중생은 어리석고 근기가 둔하여 여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침단·훈육 등 제조된 향을 불로써 태우며 복을 바라니 어찌 복을 얻겠는가. 또 꽃을 뿌리는 것도 역시 같은 이치이다. 말하자면 정법(正法)의 공덕꽃을 설명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진여의 성품을 다스리고 뿌려서 널리 장엄(莊嚴)을 베푼다면 이런 공덕의 꽃이야말로 부처님이 칭찬하는 것으로 영원히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若復有人 散如是花 獲福無量
약부유인 산여시화 획복무량
若言如來 令諸弟子及衆生等

정법의 향과 꽃 공양하라 하였는데
근기 둔하여 향 태우고 꽃 뿌리니…

법의 향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향(戒香)이니, 모든 악을 끊고 선행을 닦는 것이다. 둘째는 정향(定香)이니, 대승(大乘)을 깊이 믿어서 물러남이 없는 마음이다. 셋째는 혜향(慧香)이니, 항상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넷째는 해탈향(解脫香)이니, 모든 무명의 결박을 끊는 것이다. 다섯째는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니, 항상 관찰하는 것이 밝아서 걸림없이 통달하는 것이다. 이 다섯 향은 최상의 향으로서 세상에서는 견줄 것이 없다.

약언여래 영제제자급중생등
剪截毘綵 傷損草木 以爲散花
전절염채 상연초목 이위산화
無有是處 所以者何
무유시처 소이자하
持淨戒者 於諸天地森羅萬像
지정계자 어제천지삼라만상
不令羯犯 誤損者由獲大罪
불령촉범 오손자유획대죄
況復今者加毁淨戒 傷損萬物
황부금자가훼정계 상연만물
求於福報 欲益反損 豈有是乎
구어복보 욕익반연 기유시호

佛在世日 令諸弟子 以知慧火
불재세일 영제제자 이지혜화
燒如是無價寶香 供養十方一切諸佛
소여시무가보향 공양시방일체제불
今時衆生 愚癡鈍根 不解如來
금시중생 우치둔근 불해여래
眞實之義 唯將外火
진실지의 유장외화
燒於世間沈檀薰陸質得之香
소어세간침단훈육질애지향
希望福報 云何可得 又散花者
희망복보 운하가득 우산화자
義亦如是 所謂演 說正法諸功德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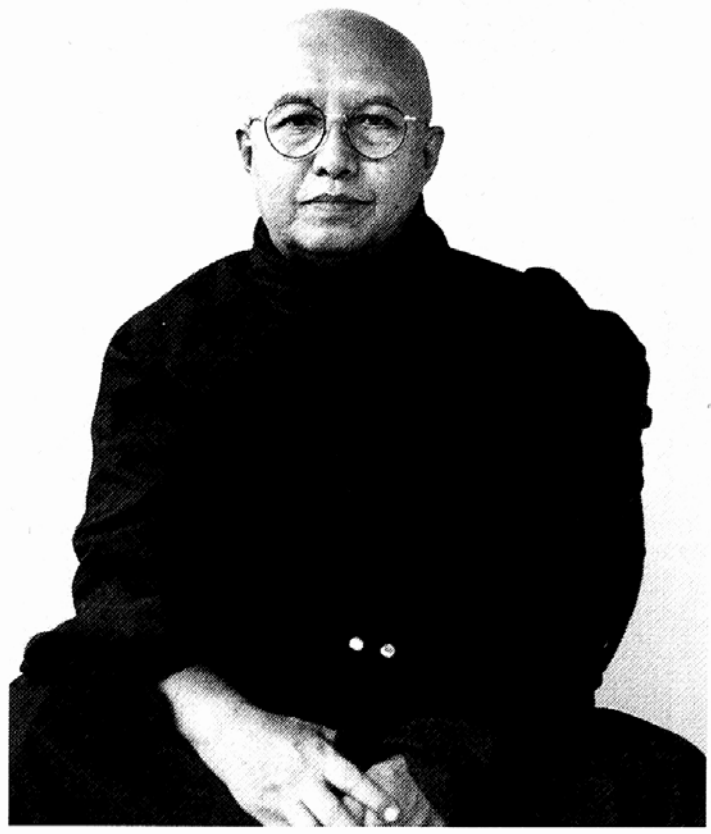
어떤 이가 이러한 꽃을 뿌린다면 한없는 복을 받는다. 그러나 '여래께서는 제자나 중생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꽃이나 초목을 꺾어서 공양하게 했다'고 말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계행을 지키는 이는 천지의 삼라만상을 해칠 수가 없고, 설령 실수로 해치는 것도 큰 죄를 받는데, 어찌 청정한 계를 무너뜨리고 만물을 손상시키면서까지 복을 구하겠는가. 이는 이익을 바라다가 도리어 손해가 되니 어찌 옳다 하겠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여름특집 해외고승편 II

우 자나카〈미얀마 찬매예이탁 선원장〉

"마음 집중은 지속적 '챙김' 통해 생겨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고 미혹투성이며, 인간은 온통 번뇌로 인해 괴로움의 나날을 보낼까.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낼 수는 없을까. 부처님께서는 정신과 육체의 모든 변화 과정을 그대로 관(觀)하며 '마음챙김'을 한다면, 내면의 조화와 균형을 찾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마음챙김'이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미얀마의 찬매 예이탁 사원에 주석하고 계시는 우 자나카 비왐사 스님에게 '마음챙김'이란 어떤 것이며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듣는다. 스님의 '무지의 제거(Removal of Ignorance)', '사마타와 위빠싸나의 차이(Difference between Samatha and Vipassana)' 주제 법문과 저서 〈위빠싸나 명상(Vipassana Meditation-Lectures on Insight Meditation)〉 중에서 중요부분을 뽑아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사마타 수행과 위빠싸나 수행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마타란 마음집중, 평온, 고요함을 의미합니다.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하나의 대상에 깊은 마음집중을 얻는 데 있지요. 마음이 수행의 대상에 깊게 집중되어 있을 때, 욕정·탐욕·분노·욕망·자만·무지 등과 같은 모든 번뇌들은, 대상에 몰입해 있는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마음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평온함, 고요함,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마타 수행만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현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위빠싸나의 경우, 그 목적은 정신과 육체의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집중을 필요로 하지요. 이 마음집중은 마음과 몸에 대한 지속적인 '챙김'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따라서 위빠싸나 수행에는 다양한 대상이 있습니다. 행복감도 수행의 대상이며 분노·슬픔·고통 등의 감각도 수행의 대상이예요. 어떠한 정신적 육체적 과정도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들고 나아가고 내려놓는 발의 움직임입니다. 발을 들어올릴 때 마음은 그 동작을 '들어올림'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발이 앞으로 나아갈 때, 마음은 그 동작을 '나아감'이라고 알아차려야 하겠지요. 발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그 동작을 '내려놓음'이라고 알아차려야 하지요. 우리가 이 동작들을 자연스런 움직임의 과정임을 알게될 때, 우리는 마음 역시 그 동작들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겠지요.

이때가 되면 들어올리는 움직임은 단지, 많은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임을 알게 되며, 나아가는 움직임의 많은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며, 내려놓는 움직임 역시 순차적으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동안에 어떤 부분들도 지속적이나 영속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체적인 움직임의 과정이 무상하다고 자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영속적인 실체 즉, 사람의 존재·영혼·자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 정신적 과정의 본질로, 무아이며 영혼이 없음이며 자아가 없음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무상, 고, 무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스님께서는 '마음챙김(mindfulness)'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오셨습니다. '마음챙김'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수행하는 것인지요. 또 수행자 중에는 깨달음을 빨리 이루지 못함을 조급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부처님의 수행 방식입니다. 일상의 행위를 알아차리는 것은 수행자의 삶입니다. 일단 수행자가 자신의 행위를 관찰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삶을 잃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챙김과 그에 따른 '앎(지혜)'이 없기 때문에 그는 수행자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하나 하나 모든 일상의 행위를 챙겨보도록 하세요. 만일 일상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챙김을 할 수 없다면, 수행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일상의 행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마음챙김에 큰 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계속 이어지는 마음챙김의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수행자란 보통 속인들과 다르게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끊어짐이 없는 마음챙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끊어짐 없는 마음챙김으로부터 깊은 마음집중이 생깁니다. 깊은 마음집중이 있어야만 수행자는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본래적인 본질을 자각할 수 있고, 이 자각에 의해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속적이고 끊어짐 없는 마음챙김을 지니고 있다면, 매일 매일 발견해야할 새로운 수많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음챙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마하시 사야도(우 자나카 스님의 스승)께서는 수행자를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원한다면 천천히 움직이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선풍기가 빨리 돌아갈 때 여러분은 돌아가는 날개를 볼 수가 없지요. 만일 천천히 돌아간다면 그때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과정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아주 바쁘게 일을 하는 사람들 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말고 아주 힘있게 자신의 모든 정신적 육체적 행위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많이 말하는 것도 수행 향상을 이루는데 크나큰 장애입니다. 5분 이상 이야기 하면 수행자의 하루 동안의 마음집중이 깨져버립니다. 읽지도 말고 외우지도 말고 회상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장애가 됩니다.

사실 '위빠싸나(Vipassana)'의 언어적 의미만 알아도 '마음챙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

약 력

- 1928년 미얀마 핀마 生
- 1942년 출가
- 마하위숫다옹 불교대학 교수 역임
- 54년 마하시 사야도 문하에서 위빠싸나 수행
- 93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대수행지도법사 칭호 받음
- 동아시아·북미주·호주 등 세계 각지 순회 법회
- 95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최고대수행지도법사 칭호 받음

전통있는 불교포교의 명문학당
부산불교교육대학
하반기 신입생 모집

교리반(주/야)·수화반

1982년 설립된 본 대학은 교계의 대덕스님, 교수, 법사님을 모신 권위있는 교수진, 체계적이고 알기 쉬운 교육, 충만한 면학열로 금학년도 교리반, 수화반 후반기 신입생을 모집하오니 뜻있는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구 분	제16기 교리반 (주간 · 야간)	제7기 수화반
입학자격	불교를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배우고 싶은분	수화를 바르게 알고 싶은 분
교육기간	6개월 (2000년 9월 ~ 2001년 2월)	6개월(2000년 9월 ~2001년 2월)
교육일시	주간: 매주 목, 금요일 오후 2시~4시 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 7시~9시
원서접수	2000년 7월 21일 ~ 2000년 9월 5일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 명함판 사진 2매	
전형방법	서 류 전 형	
입 학 식	주 간 : 2000년 9월7일(목)오후2시 야 간 : 2000년 9월5일(화)오후7시	2000년 9월 7일(목) 오후 7시
등 록 금	입학금 : 30,000원 (교재제공) 수업료 : (주)월30,000원/(야)월20,000원	입학금 : 20,000원 (교재제공) 수업료 : 월 10,000원
특 전	수료자는 포교사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수화 통역사 자격시험에 추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무실 ☎ 051)867-9944,9946 으로 문의 바랍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 신행과정(6개월)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0년 8월 24일까지
◆ 개강일시 : 2000년 8월 25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 사진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2000학년도 2학기 한성대사회교육원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4기생) 모집 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고,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는 날로 날로 발전하는 불교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을 지난해 3월에 개설하여 지금까지 1 · 2 · 3기생 110명을 교육하였고 이번 학기에 4기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불교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지식을 전수 각종 행정 기술의 습득은 물론 현대 사회의 시사문세 등을 사계의 권위자들을 모시고 심층분석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 · · 아 래 · · ·

1. 수업기간 : 불기 2544년(2000년) 9월 19일 ~ 12월 19일
2. 강의 요일 및 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5시까지
3. 모집인원 : 남·녀 40명
4. 자 격 : 불교 종무행정 관계자나 종무행정에 관심 있는 분으로서 연령 · 학력 · 교파 제한 없음.
5. 수 강 료 : 1인당 30만원(1학기)
7.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1부, 사진 2매 (학생증용)
5. 접수기간 : 2000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선착순 마감)
※전화 및 우편접수 가능함
6. 문 의 처 : 한성대학교 사회 교육원 교학과
서울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전화 02-760-4401,4003 FAX 760-4002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 하차, 도보로 5분거리임.
마을버스 5분마다 운행.
※ 1기생(2년과정)졸업예정자들은 졸업준비 위원회에 연락을 해주시고 휴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4학기 졸업기념 여행준비 및 앨범제작)

이번 학기 개설 강좌내용

과 목	내 용
불교종무행정이론실천	불교종무행정에 관한 이론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을 강의함
사찰운영을 위한 컴퓨터 강좌	사찰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기법과 정보체계를 강의함(컴퓨터 기초부터)

※ 2년 과정을 수료한 분들에게 총장명의의 불교 종무행정사 자격증 수여예정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니다. 위빠싸나는 위(Vi)와 빠싸나(passana)라는 두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위'는 삶의 세 가지 특징(삼법인)인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등을 의미합니다. '빠싸나'는 바른 이해 또는 마음과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 얻는 자각을 뜻합니다. 따라서 위빠싸나는 마음과 몸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 '마음챙김'의 가치는 무엇인지요.

▲〈대념처경〉은 '마음챙김' 수행의 신앙적·윤리적·실천적 가치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적 가치를 설명하죠.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삼보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합니다. 우리는 불·법·승을 믿고 귀의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번뇌를 없애버렸으며, 따라서 공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쳤고, 모든 종류의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고 괴로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법'을 믿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승'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 가치에만 만족해서는 안되지요. 우리는 보다 높은 측면을 실천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요. 윤리적인 가치는 행동과 말과 마음의 정화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다음 생에서뿐만 아니라 현생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괴로움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악한 행위를 삼갈 것' '선을 실천할 것' '번뇌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할 것' 등의 불교 윤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는 연기의 법칙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악한 행위를 삼간다면 어떠한 나쁜 과보에 의해서도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윤리에 의해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가치로 우리는 단순하게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실천이 중요하지요.

이와 같이 '마음챙김' 수행의 신앙적·윤리적·실천적 가치를 충실히 따른다면, 우리는 수행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닦을 때 우리는 마음과 몸의 변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 자나카 스님(둘째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미얀마 찬매예이탁 선원에서 1995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 결제를 마치고 제자들과 기념촬영한 모습.

분노 슬픔 고통도 수행의 대상
'천천히 움직임'에 익숙해져야

— '관(觀)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까? 보는 주체인 '내'가 있다는 것은 '무아'라는 불교 교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영혼이나 자아가 없다는 것 혹은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영혼이 몸밖으로 빠져 나와서 그의 집이나 우리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내일 죽을 것인가"라고 자문해 본다면 그 질문에 감히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내일 죽을 것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육체가 언젠가는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몸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만일 우리가 "자 이제 나는 나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무아라는데 손을 들어 올리는 주제는 누구냐'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손을 들어올린다"라고 말하겠지요.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한 남자(혹은 여자)입니까? 살아있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음과 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과정을 실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우리가 자각할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와 같이 지혜로써 경계를 관찰하여 보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현상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꿰뚫어 보는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아만 등과 같은 번뇌들의 주요한 원인인 영혼이나 자아 인간이나 존재에 대한 관념을 부수어 버릴 수 있는 거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영혼이나 자아에 대한 관념이 모든 번뇌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제거해버리면 어떤 번뇌도 생기지 않으며 우리는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마음챙김 수행을 닦아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 수행에는 많은 고통이 따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으름과 태만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고통을 싫어하지 말고 '벗'으로 여기세요. 고통은 우리를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고통은 아무런 자국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속 머물러 고 합니다. 만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친구여 제발 떠나다오'하면서 일부러 고통의 실체를 부르기도 합니다.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것의 참된 본질을 관찰해야 합니다.

고통은 열반에 이르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챙김을 잘하고 있을 때, 고통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것은 숨을 쉴 때, 복부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다름없는 자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깊게 그것을 관찰하면, 그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서 그것의 참된 본질을 발견할 것입니다. 고통이 생기면, 즉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계속되면, 무시해 버리세요. 지속적인 마음챙김에서 생겨난 깊은 마음집중에 의해서 고통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확고함', '강인함', '인내', '집중력', '통찰력' 등의 다섯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마음챙김에 열중할 때 이 다섯가지 덕목은 서로 균등하게 작용하지요. 만일 겉는 통안 강한 통증이 일어나면 잠시 멈추고 그것을 관찰하십시오.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열반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참을성을 지니십시오. 누가 세상은 즐길만 하다고 말했습니까.

> 부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법 가르쳤고 괴로움 소멸의 길 가르쳐 주셨어요

정리=오종욱 기자
(gobaocu@buddhapia.com)

허주스님의 스님이야기

■법현 스님

법현스님은 동안(童顔)이다. 아주 맑은 얼굴이다. 그리고 승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수행자다. 그는 입산할 때 모습 그대로 30년 가까이 좌복위에서 정진일여(精進一如)한 수도승(修道僧)이고 나는 도시 한복판에서 고단하게 시주밥만 축내고 있는 수도승(首都僧)이다.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숱한 인연을 만나게 되지만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서 그와는 법연(法緣)으로 만났다. 법연은 부처님 법에 귀의한 인연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살갑게 아주 가까운 것도 아니요 또 먼 것은 더욱 아니다. 그저 얼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만나서 몇 마디 안부 정도 묻는, 나에게는 사형뻘 되는 스님이다.

어릴적 생각을 하면 빛 바랜 필름들이 가슴 한 귀퉁이에서 일제히 기지개를 켠다.

출가당시 그는 매우 예민하고 신경질적이어서 난폭하기까지 했다. 적어도 내 또래의 행자들은 그를 무척 두려워했다. 어린 탓도 있었지만 당시의 기억으로는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두려운 존재임에는 틀림없었다.

한 번은 그의 손바닥과 정권에 생긴 굳은 살을 보면서 주눅이 들었던 기분이 마악 가시기도 전에 장난기가 유별난 행자 한 명이 그에게 무차별 난타를 당했던 일이 있었다.

난폭함에서 해맑은 모습으로
'수행이란 저런 것이구나'

예전에 절집 후원 뒤뜰에서는 하심(下心)을 시험하기 위한(?) 규율잡기 차원의 겨루기가 종종 있었다. 그 과정을 참지 못하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끝내는 하산의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다.

놋쇠로 만들어진 촛대에 녹아있는 촛농과 녹을 깨끗이 닦아 놓으라는(당시에는 광택제가 흔치 않아 아궁이의 재를 이용해 닦았다) 노스님의 지시를 어린 행자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 제대로 닦아 놓질 못했다. 아뿔사, 노스님의 불호령이 고참인 그에게로 떨어졌다. 촛대 닦는 일은 어린 행자들의 몫이었는데 엉뚱하게도 그 날은 꾸지람이 그에게로 향했던 것이다. 스님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일순간 한 행자를 향해서 번개같은 발차기와 현란한 주먹질이 쏟아졌고, 그것도 부족해서 촛대까지 함께 움직였다. 도저히 함께 저항해 볼 수도 없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분위기는 파랑계 질려 있었다.

요즘 십대 학생들을 보면 밝고 활기차 보이는데 당시 또래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 밤마다 악몽을 꾸었던 때가 많았던 것 같다. 어떤 상황이라도 그저 해맑고 귀여워서 도저히 손찌검은 상상도 못해 볼 일이건만 지금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규율잡기 행사가 당시에는 일상사였다. 나이 차가 한 두 살 터울인 같은 또래의 행자들이 서 너명 있었으니 개구쟁이 짓은 으레히 뒤따르는 일이 아니었나 싶다. 그것을 엄히 다스리는 차원에서 감정이 지나치게 앞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길 없는, 그 당시 상황의 주인공이 바로 법현 사형이었다.

그러던 그가 암자 생활을 정리하고 물고기는 큰 물에서 살아야 한다며 해인사로 떠났다. 그후 줄곧 지금까지 40안거 정도는 되고도 남는 선원생활을 하고 있다. 공포로만 기억되던 그가 참된 수행자의 모습으로, 해맑은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한번은 개운사에 있을 때 삼성암에서 나한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거가 끝난 해제철이면 어김없이 전국 유명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를 하는 그를 두고 일부 수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했다. 그의 정진이 간단(間斷)을 허용치 않는 것처럼 기도 또한 그에게선 게을리 할 수 없는 수행일과였다.

그런데 삼경(三更)이 지나서까지 목탁소리를 낸다고 그 곳 주지스님 상좌하고 시비가 있었던 모양이다. 전해들은 바로는 상좌는 젊은 사미였다고 하는데, 법현 스님이 일방적인 폭언과 구타까지 당했다고 하니 나로서는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법현이었는데, 바다라도 한 입에 삼켜버릴듯한 당당한 청안납자(靑眼衲子) 아니었던가. '어떻게 그런 고초를 겪을 수 있었나.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동명이인이겠지' 하고 무심히 지나치려 했으나 사건의 주인공은 틀림없는 법현이었다.

통화할 기회가 되어서 본인보다도 내가 더 분한 마음에 폭행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짚고 넘어가자고 흥분해서 말했다. 사미가 비구를 구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다. 대중처소 같으면 이불 공양 후 옷을 벗기고 산문출송을 당할 일이었다.



그림·문병성

법현은 체념이 아닌 아주 편안하고 지긋한 어조로 말했다. 이미 지난 일이니 다시 시끄럽게 하지 말자고 간곡히 부탁하는게 아닌가. 그 사미도 마음이 편치는 않을 거라면서….

이 양반이 공부가 지나쳐 이렇게 심약해졌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으나 한편으로 그의 말속에서 진심으로 사미를 용서하고 걱정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전해왔다. 그저 있을 수 있는 시비로만 비쳐질 수도 있으나 내가 보아왔던 법현의 모습이 너무도 다르게 변해 있었으니 그 감동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무능한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게으름뱅이도 아니요, 겁쟁이는 더욱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 감화(感化)라고 해야 옳은 표현같다. 그것은 하나의 청복(淸福)이다. 감동이 없는 삶은 무의미한 것, 수행이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경건한 일깨움은 그나마 큰 위안이다. 〈계속〉



이번호부터 2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연재할 허주스님〈사진〉은 지난 74년 팔공산 파계사에서 출가, 78년 통도사 승가대학, 81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97년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 봉은사 포교실장으로 있다.

천황사약초선식
(약초농장 직접 재배함) 발명특허 13629호

1999. 8. 7. MBC고향은 지금(방영) ▶백연스님





깊은산속에서 채취한 100종류의 약초와 천상무 9증9포 오랜 법제기간을 거쳐 10년에 천상약초선식을 1999. 8. 7일 MBC방송 고향은 지금에 방영된바있습니다.
대단히 인기 히트적이여서 불제자님 전화문의가 빗발쳤습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천 여년의 佛家선식 (원효대사약초 비법)으로 환 및 가루선식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오장육부, 일체질환, 체질개선, 간염, 간경화, 간암 놀라운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사례 ◈
1. 속이 쓰리고 아프며 더부룩하며 장의청소, 변비
2. 비만, 다이어트 최고 (생리불순, 냉대하)
3. 얼굴이 예뻐져가는 약초(백지화초) 기미, 죽은깨
4.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분 친견
5. 각종암 기관지 천식, 우울증, 정서불안

◈ 허가번호 부수영위 45-1 ◈
▶ 약초선식 (100가지) ····· 십팔만원
▶ 프로로얄원(로얄제리+프로폴리스) ····· 십구만원
▶ 장뇌산삼 (1999. 8. 7. MBC방송 고향은 지금)
· 신비의 영약 직접재배함 · 불로장생 ····· 이십오만원
▶ 당뇨선식
· 갈증해소, 합병증 예방 · 탁월한 효과 ····· 십구만원
우체국 601039-02-026092 예금주 정광채
♣주문신청 : 051)723-1333 / 011)852-3357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시랑리 13-1 (천황사 약초농장)

남여 정토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건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시달림법(방출 위패 작성 독경 염불) 반혼1재~6재 천도 발인 화장 매장
· 49재(시령 대령 관욕 지장청 시식 봉송 소대)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목탁석 종성 예불기도 축원법 좌선법(간화선 묵조선 선학역사)
·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통청 관음지장신중 산신 칠성 독성 발원)
· 목탁 요령 죽비 징종 사용법 신중작법 구병시식 관음시식 상요영반
· 화엄시식 종사 영반 점안식 삼재풀이 화혼식 원에 따라 수계식 봉행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골자 발취 강의 납골 개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 매월 1일 11일 21일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방정토극락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월 회 비 : 백미한가마(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겨울나무
싹을 틔웠지
꽃도 피웠지
단풍도 들었어
침묵으로
부서져 내리는 그 어깨 위에서
바람소리로 외쳤어
기다림이야
아직도 울 수 없는
사랑이야
『한맥 문학 7월호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 당선 된 겨울나무 외 4편』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금지 및 위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cmhouse.net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나도 부처 될래요"…새싹 불심 활짝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현장



◇목아박물관에 봉안된 불상들을 둘이보며 설명문을 읽고 합장 반배하고 있는 어린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은중경〉 사경에 몰두하고 있는 새싹 불자들.



◇부모은중경을 새긴 탑 앞에서 용주사 총무 성호 스님으로부터 용주사가 탄생한 배경 등 '효(孝)' 법문을 듣고 있는 어린이들.



◇발우공양이 아닌 식판 공양이지만 공양전 오관게를 외우며 '발우공양정신'을 되새겼다.



◇힐힐 타오르는 모닥불 연기에 불국토를 향한 우리의 발원을 실어 보내자.

본사가 주최하고 선재이벤트(실장 이성훈)가 진행한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가 7월 20일~22일 2박3일간 용주사, 목아박물관, 에버랜드 등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초등학교 1학년~6학년의 163명 새싹 불자들은 짧은 일정이었지만 참선, 사경, 예불 등 불교의식을 배우며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20일 오전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지푸렸지만 캠프에 대한 기대로 조계사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 모인 새싹불자들의 모습은 그저 밝기만 했다. 주최측에서 나눠준 흰색과 회색 티셔츠로 갈아 입은 어린이들은 간단한 입제식을 마치고 부모님의 배웅을 뒤로 한채 힘차게 조계사 일주문을 나섰다.

1시간 남짓 달렸을까, 버스가 처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목아박물관. 이 곳에 전시돼 있는 갖가지 목조 불보살상들을 보자 그 정교한 모습에 어린이 불자들의 눈이 휘둥그래졌다. "어! 내가 호랑이 띤데 여기 호랑이 조각상이 있네" 어린이불자들은 12지신상을 손으로 가리키며 자기띠와 똑같다고 즐거워 하기도 했다. 또 '문수보살, 지장보살…' 등 불교문화를 알고자 설명문을 수첩에 열심히 적는 어린이들도 눈에 띄었다. 이어 새싹불자들은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의 목불 재현 과정을 영상에 담은 '부처가 되고 싶은 나무'를 보면서 이제는 불상 만드는 법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목아박물관을 떠나 화성 용주사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6시. 저녁 공양후 어린이들은 태설스님(봉은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과 함께 저녁 예불을 올리며 참회 정진의 시간을 가졌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던가. 시간은 저녁 9시밖에 안되었지만 사찰 규율상 어린이들은 아쉽게도 잠을 청해야만 했다.

21일 새벽5시, 경소 같으면 집에서 달콤한 꿈나라를 헤맬 시간이지만 어린이들은 모두 일어나 아침예불로 둘째날 일정을 시작했다. 용주사 보살님들이 정성껏 마련한 아침을 먹고 괄처진 성호 스님(용주사 총무)의 효행 법문시간.

"부·다·피·아 어린이 여러분,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 만든 절입니다. 우리도 그 뜻을 마음속에 간직해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부모님의 인연에 감사하는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스님과 손잡고 약속할 수 있죠?" "예-" 이어 열린 〈부모은중경〉 1자3배 사경 정진시간. 방금 '효'법문을 들어서인지 어린이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자 한자 따라 쓰느라고 고사리같은 손을 빠르게 움직였다. 휴식 겸 열린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신나는 멜로디와 이미에 지도교사의 재미있는 율동 지도에 모두들 몸을 흔들며 천진불심으로 하나가 되었다.

드디어 에버랜드로 가는 시간. 숙소인 통나무집에 내리자 마자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어린이들은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으로 향했다. 바다처럼 넓실대는 인공 파도를 보자 일제히 물속으로 뛰어든 새싹불자들은 이곳이 바로 불국토인 양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워했다. 저녁 9시부터 에버랜드 페스티벌 월드에서 결쳐진 레이져쇼를 감상한 어린이들은 깜깜한 하늘에 오색 불꽃이 수놓아 지자 아름다움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지막날인 22일, 간간이 쏟아지는 폭우에도 아랑곳 없이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며 짧은 2박3일의 일정을 마쳤다. 빡빡한 일정이 피곤했던지 돌아오는 버스속에서 단잠에 빠져든 새싹불자들의 얼굴에는 꿈속에서 문수동자를 만나는 듯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찬불가 음악에 맞춰 흥겨운 무용을 따라 배우며 어린들이 즐거워 하고 있다.

용주사서 참선 · 예불 '수행'
사경하며 부모님께 감사
에버랜드서 신나는 놀이도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포교원
(사)대한불교교화복지선교회
봉은사 · 목아박물관 · 신수회
협찬: 대한불교진각종 · (재)보덕학회

신터뷰

중학생 참가캠프도 마련했으면…



강수정 〈충남 서산초등 6〉

고모가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해마다 보내주셔서 매년 참가했었어요. 올해 6학년이어서 이번 캠프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섭섭해요. 여름방학만 되면 기다려지던 부다피아캠프를 통해 불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협동심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어 좋았어요. 또 잘 모르던 불교예절도 많이 배워 절에 가서 스님들께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내년부터는 저와 같이 중학생이 되는 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는 캠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캠프 참가후 절에 열심히 다녀



조인기 〈서울 남성초등 6〉

작년에 부다피아 캠프에 첫 참가하며 봉은사 친구들을 사귀게 돼 그때부터 봉은사에 열심히 나가게 됐어요. 전에 아빠가 절에 나가라고 할 때는 말을 안들었는데 작년 캠프때 여주 신륵사에 가보니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올해는 연꽃 어린이기자와 봉은사 어린이법회 부회장까지 맡아 열심히 불교를 공부하고 있어요. 부다피아 캠프가 10년, 20년 계속돼 나중에 내가 대학생이 됐을 때 지도교사로 참석해 동생들을 지도하고 싶어요.

나도 한마디

친구사귀고 예불하고 불교가 좋아졌어요

◆말로만 듣던 용주사절의 규모가 상상보다 세 배나 커서 정말 놀랐어요. 용주사에 언제 다시 올지 몰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많이 많이 빌었어요.
현민희〈서울 회룡초등 5〉

◆캐리비안베이 수영장에서 왕파도를 탈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2박3일동안 친구들과 즐겁게 지낸 추억을 절대 안 잊어버릴 겁니다. 류승완〈서울 두산초등 3〉

◆부처님께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는게 이렇게 힘든줄 몰랐어요. 처음엔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지만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어 좋았어요.
최보영 〈서울 둔촌초등 3〉

◆이번 캠프가 벌써 세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캠프에서도 하나씩을 꼭 배워갔는데 이번에도 〈부모은중경〉을 사경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김지연 〈서울 연촌초등 5〉

◆수영장에서 길을 잃어버려 겁이 많이 났었는데 선생님들이 나중에 찾으러 와서 고마웠어요. 다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겠다고 느꼈어요.
남윤호〈용인 원심초등 2〉

◆절이 처음이라 용주사에서 자는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러나 스님들이 웃으면서 잘 대해 주셔서 이제는 안 무서워요.
홍윤〈서울 선곡초등 4〉

◆캠프를 처음 떠날때는 매일 모여서 노는 줄만 알았는데 절과 합장만 하니까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하지만 놀이기구도 타고 캠프파이어도 하니까 생각이 확 바뀌어 이곳에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숙연〈서울 소의초등 5〉

◆처음에는 쑥스럽고 적응이 잘 안됐는데 갈수록 조원들과 친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불교가 좋아졌어요.
이소엽〈대전 유천초등 4〉

◆이번 캠프에 혼자 참가해 보니까 집에서 얼마나 어리광을 부렸는지 알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김민호〈서울 반포초등 3〉

◆용주사에 가면 엄마가 절을 108번 하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90번 밖에 하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꼭 108번을 채울 거예요.
이효온〈영주 남부초등 2〉

◆통나무집 앞에서 캠프파이어를 진행한 돼지띠 아저씨 때문에 배꼽 잡고 웃었던게 기억에 제일 남아요. 에버랜드의 '레이져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김효현〈서울 경동초등 4〉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건축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3)634-0223
팩스 : 063)34-1237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 자연산(茵蔯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덮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암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蔯蒿)을 9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9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짐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장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 · 용액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 · 골다공증 · 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검정콩, '金단花'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고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뛰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봉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삼천대천세계 보배 내 한마음에 있어

여러분을 동참시켜 이 마음공부를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년을 불상도 때려부숴 보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 없이, 그런 집념 없이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과 모든 인류와 우주를 전체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뭘, 그거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이고 실천하는 현실세계며, 우리가 꼭 해야만 할 일이 그렇게 많답니다.

한 찰나에 들고 나는 법

생사에 관한 건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거론한다면 여러분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요. 그러나 벌레가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로 화(化)하고 이력하는 거를 보세요. 우리가 껍데기를 벗는다고 해서 아주 죽는 게 아닙니다. 악이면 악대로 선이면 선대로 다시 돌아나오죠. 그런데 그 선과 악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고 법신이 되고 보신(報身)이 되고, 보신으로서 화해서 응신(應身)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과 둘 아니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편이라고 했을 때 방편 아닌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해탈문 아닌 해탈문이구요. 이게 해탈문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떠나서 그 속에서 알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문을 찾아서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는 영원히 못할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도 또한 체가 없어서 봇장도 벽도, 멀고 가까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게 없이 한 생각이면 한 찰나에 들고 나죠. 내가 이런 말을 잘하죠, 빛보다 더 빠르다고, 그렇게 해서 한 찰나에 모두 이끌어갈 수 있고, 또 화(化)하게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하게 할 수 있고, 같이 접근할 수 있고, 둘 아니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날까지 사람으로 화해서 살아온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벗어나서 자유권을 얻을 수 있어야만이 남도 자유권을 얻게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생에 관한 건이, 물에서나 들에서나 공중에서나 이 지상에서나 모두, 생명들이라 하면 다 그래도 뭔가 살면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대로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된 반면에 또 바꿔지고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한다면 콩은 콩이지 뭐 팥이 될 수는 없어요.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죠.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즈음 죽는 사람들도 많고, 지나가던 벌레가 죽기도 하고, 지나가는 구렁이가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뱀 하나가 인간 환토를 하려면 얼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백날을 사람의 행동을 봐야 하고, 소상히 사람과 같이 습득을 해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 먹는 간장을 다 삼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서 자기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로 인간과 맞대면해서 자꾸자꾸 접하니까 그 생각 자체가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과 같은 의식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몸을 벗고서 인간 환생을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괴롭더라도
내탓이려니 하고 참고 견디며
마음의 근본을 잃지 않는다면
이 우주를 얻고도 남음이 있지요

그런데 태몽을 꾸면은 뭐 토끼를 봤다는 둥, 개를 봤다는 둥, 돼지를 봤다는 둥, 구렁이를 봤다는 둥, 소를 봤다는 둥, 인간을 봤다는 둥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꽃나무를 봤다든가, 또는 배나무를 봤다든가 하는데, 배나무나 꽃나무나 이런 것은 육식 동물로서 생활을 하지 않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육식 동물로 생활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고 살던 그런 영혼은 꽃이나 과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렁이는 무슨 뜻이냐? 구렁이는 우리가 평상시에 자고 깨고 먹고 생활하는 그 용(用)을 말하는 거지.

즉 태몽을 꾸었다 하면 액면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니까. 그래서 태몽을 꾸는 어머니의 생각 자체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어린애가 나와서 진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와서 한생각에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용(龍)이다 하면 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용이다 하면 뭐 큰 자손이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용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아주 활력적인 생활을 하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인간 사이에 빛이 되게끔 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소나 돼지를 봤다고 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돼지다, 소다, 이러지 마시란 얘깁니다. 소가 보였다 하면, 남한테 인정을 베풀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모두 남을 주었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봤다 할지라도 그걸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영혼은 아주 슬픈 영혼도 있고 즐거운 영혼도 있고, 아픈 영혼도 있고 애달픈 영혼도 있고,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 영혼의 눈을 보면은 그냥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나쁜 생명들이 어딨겠습니까? 살다가 보면은…, 허허, 문득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장희빈이 악하다고 했는데,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모두 당했단 말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당한 놈도 없고 준 놈도 없이 그냥그냥 서로가 다 나빠진 거죠.

애당초부터 나쁜 사람이 없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배고프고 춥고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마음의 근본만은 지켜라. 인간의 진짜 진실한 마음을 상실치 말아 다오. 그것을 상실하면은 세세생생에 구르면서 조금도 벗어날 길이 없다. 어둡고 괴롭고 고가 많고 슬프더라도 모두가 내 탓이려니 하고 모두 참고 견디고 그 아리따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우주를 다 얻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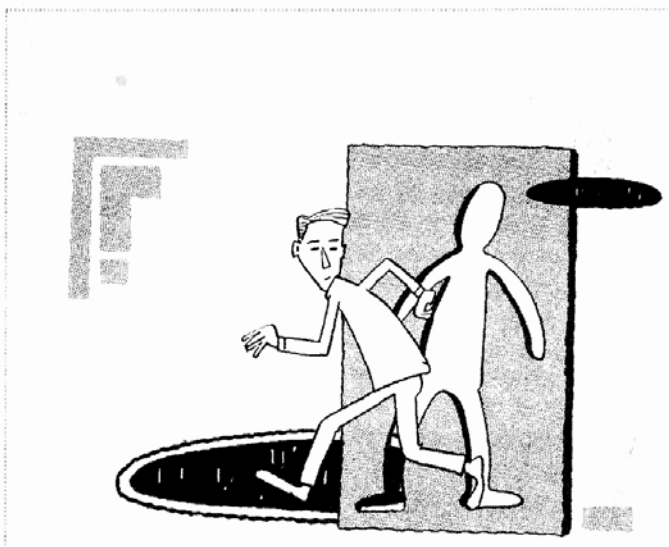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근본을 믿으면 자유인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막힐 데가 없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모두가 실질적인 내 마음의 행동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니까요. 앵무새와 같이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 그 자체의 진실한 근본을 진짜로 믿고 나간다면 바로 자유인이죠. 알고 보면 서로가 똑같은 지경입니다.

부처님이 위대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뜻에서 그러느냐.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라고 해서 위대하기만 합니까? 걸레처럼 닦아 주고 씻어 주고, 내 몸은 더럽더라도 네 몸은 깨끗해라 하고 그냥 닦아 주고 하는 그런 길잡이와 같이, 즉 말하자면 부처님 같은 마음이죠. 허허허…. 그러니 부처님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자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나, 나를 다 주고 희생해 가면서 자식을 낳아서 내 몸을 자식한테 다 맡겨서 먹고 자라라고 다 주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듯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가운데서 자손이 났다 할지라도, 그 자손을 크게 이루시려면, 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을 크게 한 도량에 건지시려면 내가 첫째, 한마음으로 구성된 그 마음이 스스로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서 다복하게 이끌어 가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만 배우고 웃고 즐기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기를 "마음은 체가 없어서 모두가 자식이다 부모다 또는 나다 형제다 하는 가설이 다 돼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가설이다."고 했습니다.

한 25년 전…, 그렇게 아마 될는지, 한 30년은 못 됐겠죠. 어느 어려운 과수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쐬러 나간다고 나가다 보니까 그 과수원까지 이렇게 돌게 됐어요. 그래 그 과수원 집에서 나물해서 밥을 얻어먹고 이러고 돌다 보니까, "스님!"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이게 3년을 내리두고, 해마다 꼭 요만큼씩하게 사과가 열려서 지금 학교에 등록금도 못 내고 우리 식구가 다, 아주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하셨죠? 인간들 사는 것에만 급급해하지, 일체 동물, 일체 생물이라고 합시다. 그 모두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들하고 생활이 같은지,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못하셨죠? 그런데 가서 보는 순간, 모두 꽃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꽃같이, 꽃 같은 마음, 그 불꽃 같은 마음이 말입니다. 불꽃 같은 마음이 일어나더니만 여기 저기 저기 사방에 다 구름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그저 불꽃같이 그냥 연기처럼 아주 자욱하게 모이는 겁니다.

선과 악을 모두 놓아라

그래 나는 즐거워서 두리번 두리번하고 쳐다보고 있노라니까 아, 옆에서는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더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나무와 사과나무끼리, 끼리끼리 모두 모여서 애당초에 사과나무가 나기 이전부터 있던 그 마음들이 불꽃같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과가 많이 열릴 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렸으면서도 사과 하나가 이만큼씩 하게 크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먼 데를, 그 첫번째 판 거를 조금 넣어 가지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토굴로 가져왔습디다. 그래 가져온 거를 큰 절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느껴지고, 들으면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알아지는 그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여하면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믿고 여여하면요. 그런데 글로 본다면 아예 한마음으로 그냥 하면은 그 세계가, 세계! 허허, 삼세계(三世界)가 바로 그 삼보(三寶)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삼세계가 삼보가 되는 것입니다. 삼보가 한데 합쳐서 일심(一心)이 되는 것입니다. '삼보'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친 것이 삼보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써 꼭 알아야 될 것은 '큰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보배가 바로 나한테 있다. 그래서 삼보가 내 한 마음 속에 있으니 부처님과 일체 만물만생이 어찌 따로 떨어져 있으랴. 한 도량에 있는 것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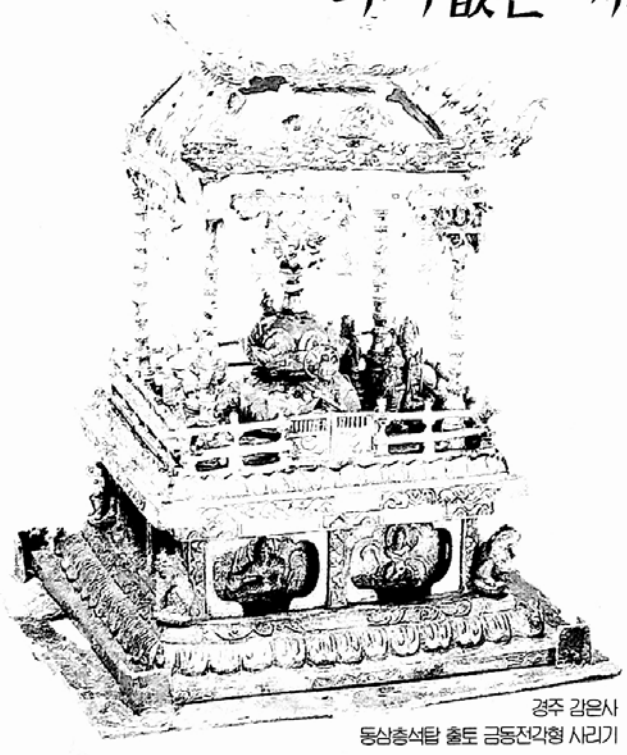
그러니 이 여러분의 육신, 육바라밀이라고 해도 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에 관한 건을 모두가 따로따로 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금생(今生)의 마지막,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

다시없는 기회가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경주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것입니다.
1,4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 앞에 현신한 부처님 진신사리는
이제 친견법회가 끝나면 다시는 친견할 수 없습니다.

친견법회와 함께 시작되었던 사리장엄구 특별전은
8월 첫주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미처 동참하지시 못한 분들을 위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는**
백중까지 계속되오니 금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 사찰과 신행단체의 불자님들이 모두 함께하시어
무량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신 단체 신도들에게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담긴 기념 카드를 드립니다
※ 특별전 10만 번째 입장객에게는 본 박물관 평생무료입장권과 정성껏 마련한 특별 선물을 증정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성보박물관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리 친견 안 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금) ~ 8월 15일(월)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오후 7시
(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예약안내 : 전화 055) 384-0010 (담당자 : 이승현)
· 인 원 : 30명 이상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상인원, 인솔스님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뭇 생명 둘 아니게 돌아가면 해탈문

☞ 15면에서 계속

양으로 애를 쓰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보시(布施)라든가 지계(持戒)라든가, 인욕(忍辱)이라든가 정진(精進), 선정(禪定) 이런 문제를 다 각각으로 생각 한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러나 내 몸뚱이 속에는 그 여섯 가지 뿐만 아니라 천 차만별로 있습니다. 왜 여섯 가지뿐이겠습니까? 여섯 가지를 정해 놓는다면 더 이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스스로서 한마음에다 모든 거를, 선도 감사하게 놓고 악도 그렇게. '악하게 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선하게 나오는 것도 너다.' 하고 모든 걸 다, 선과 악을 다 놨을 때 비로소 스스로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예 목적을 콩이다 팥이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콩과 팥, 일체를 모두 다 한데 합쳐서 생산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현도 되고, 법신도 되고, 부처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미륵도 되고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한마음 속의 자생중생들에게 항복을 받아야, 조복을 받아야 일체중생들을 내 아님 없이 조복을 받게 할 수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데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꼭 집어서 말을 해 드려야 끝닿을 데 없이 이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나, 참 답답해요. 그렇게 생각할 땐, 방에서도 이렇게 뒷짐을 지고 거닐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면은요. '아이고 참, 이거는 요렇게 까 보일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모르고, 급한 것도 모르고, 그냥 급하게 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이 뛰는 거와 같애요. 그러니 글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자생중생부터 제도를

아침이면 저기 가서 한 30분 동안 걷습니다. 걸으면서도,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죠? 하하하…. 개 눈에 똥만 보인다고 그러던가 뭐, 하하하…. (대중 웃음) 그렇듯이 하여튼 나무 한 그루를 봐도 꿀 한 포질 봐도 모두가…,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는 거는 나한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겠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 사람 뱃속에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다 제도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한생각이면 제도가 되는 건데. 아주 정말, 내가 이 소리는 안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래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없고, 빨리 죽어야지 할 수도 없고, 하하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리궁리하다 보니까 '응, 모두 내가 돼 주면 되겠구나. 내가 꼭 보이는 것만 그렇게 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혼의 근본, 이 마음은 이 허공에 꽉 차게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효를 막론해 놓고 다 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죽어도 바로 그네들이 나니까, 내가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또 살아서 그렇게 경험을 해보지 못 한다면 아니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자기 자생으로서 조복을 받아 가지고, 화(化)해서 바깥의 모든 거를 조복 받아 가지고, 응(應)해서 모두 이렇게 응신이 돼서 나가서 내가 돼 보니까 '아, 죽었다 살았다 할 게 없이 그냥 여여하구나' 하는 거를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자기가 소중한 줄 알아야지, 자기 몸뚱이가 지수화풍이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바로 자생중생들이 수없이 살고, 바깥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살고, 그러는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내 식구들의 자생중생들을 전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헤아릴 수도 없겠지요. 내 자생중생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집이 성립된 거거든. 이 집이 생긴 거거든. 이 집이 생겼으면 그 자생중생들의 심부름꾼이자 관리인이자 집합소이지, 어째서 그것이 '나'냐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허, 색(色)이 즉 공(空)이며 공이 즉 색이니라. 그러니 둘이 아니다. 그대로 더불어 사는 한 공체(共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심(共心)이자 공체(共體)이자 공용(共用)이자 바로 공식(共食)이자 공생(共生) 아닙니까? 이것이 '나'라고 내놓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나'라고 내놨다 하면 손해가 가요. 여기 수만 명이 이렇게 한데 합쳐서 살고 있는데, 바다라고 합시다. 바다가 이거는 내 물이고, 이거는 내 물이고, 이거는 내 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물을 떠가도 '아, 떠가나 보다.' 할 뿐이죠. 줄지 않고 더불어 살기 때문에,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바다라면 내 마음을 한 번 주고 두 번 준다 해도, 상대방이 떠간다 하더라도 줄지 않는 거다 이거야.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공체이기 때문에, 공심이기 때문에, 공생이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 공생으로 살고 공체로 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업이 있고 번뇌가 있고 병고가 있고, 가난이 불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이건 여러분의 신기한, 묘한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어요. 내가 살아오던 관습에 의해서 이날은 손이 있으니까 이사를 못 간다 하고 생각을 하면 진짜 손이 있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와 돌아가는 날, 가서 좋은 날, 내가 택하면은 그냥 법이다 이러고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법이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이 몸뚱이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나라고, 내가 산다고 하고, 내가 벌었다 하고, 내가 즐겁다고 하고, 내가 고통이라고 한다면 고가 있는 대로 착착 붙죠. '고' 하면은 수천 가지가 한데 합쳐진 고예요. 고통이라는 건 새록새록이 많은 거죠. 그 고통을 혼자 짊어졌다고 한다면, 혼자 짊어지게 되면 그냥 혼자 나타나는 거죠. 그 고통이 말도 할 수 없이. 그러나 더불어 같이 한다면 다르지요. 그래서 주인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사는 생명들인데 내가 혼자 산단 말은 안 해도,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살고, 잘 했어도 자기가 했고 못 했어도 그렇고, 그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모두? 그런데 그거를 바꿔 보세요. '으응, 더불어 같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이도 빼놓지 않고 주인공이에요! 더불어 같이한 거니까 같이한 그 속에서 그것을 해결 해야죠? 자기 혼자가 아니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동체 속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응? 같이 잘못했으면 같이 그 잘못한 거를 해결 해야지, 내가 혼자 이렇게 꺼덕거리니까 '흥, 너 혼자 했으면 너 혼자 맡아라.' 이러곤 그냥 다 안겨진단 말입니다. 안겨지니까 꼭 고통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더라는 거야, 느낌이. 이거는 꼭 가다 구를 것 같고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러는데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은 '더불어 같이 주인공이, 그렇게 자빠지게 하는 것도 너니까 괜찮게 하는 것도 너다. 에이그, 죽든 살든 알아서 너해.' 하고 그냥 가다 보니까, 정말 이 차가, 그러니까 운전수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그냥 내리굴렀대요. 굴러서 차는 바스러졌는데 운전수도 하나 다친 데가 없고, 자기도 다친 데가 없고, 또 탄 사람도 다친 데가 없고, 아주 사람은 그냥 감쪽같이 멀쩡하고 차만 그냥, 그냥 사람을 내던져 놓곤 차관 굴러가서 박살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림 · 최주현

'나'라고 세우면 苦가 붙지만 더불어 같이하면 업 없어요

생활자체가 부처님 법

그래서 일어나서는 그 한 생각을 하곤 웃었다는 겁니다. '야, 사람은 내던져 놓고 차만 갖다가 박아 놨네.' 이러구요. 그러고 이차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랬죠? 우리도 이 마음이, 그 의식 자체가 하나로 뭉쳐야 해결을 해도 그냥 해결을 하지, 개별적인 한 생각을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침착하게, 자기 몸뚱이를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몸뚱이가 위성이기도 하고, 블랙홀이기도 하고, 우주이기도 하고, 내 하나를 터득을 하면요, 다 터득이 돼요.

삼심(三心), 삼보(三寶)도 우리가 결국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삼보가 있고, 삼심이 있고, 삼심이 일심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살았고 현재에도 내가 살고 미래에도 내가 살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밤과 낮에 비유해서, 밤이면 저승이고 과거, 낮이면 이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승과 이승이 어떻게 둘로 나누어졌을까? 밤에 잠을 자야 낮에 일을 하고, 그러니까 밤이 오는 것이 바로 과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낮이 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밤과 낮이 한데 합쳐져야만이 생과 사도 같이 구르면서 이게 진리의 끈이 되죠. 진리의 끈이 됨으로써 그냥 끝없이 돌아가듯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밥 먹기 전에요, 어떻게 했든 무엇을 들었든 모두 벌써 과거로 돼 버렸어요. 과거가 돼 버렸다구요. 그런데 과거로 생각을 말고 내가 현실에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거는 벌써 없어졌지요. 그러니 과거도 현실이요 미래도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내 한마음이 바로 삼심이요, 그것이 한데 합치면 삼보가 되고,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은 자기 전체 한마음으로써 더불어 같이 한가운데 삼보를 중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상대가 없죠. 내가 없다면 삼보도 없고, 상대도 없고, 세상도 없고 모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삼보에 귀의하라, 나로부터, 나에게 삼보가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면 그때 부처인 것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하고 움죽거리겠다 하면은 법신이자 화신이고, 화신이자 보신이에요, 보신이자 또 금방 화(化)해서 응신이 돼 버리죠. 그래서 공부한 예전 선지식들께서 '그대로 여여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니 저거니 이거니 저거니 할 거 없이 그대로, 생활 자체에 그대로 살아나가고 그대로 굴러 돌아가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너희들의 법이고 생활이 그냥 여여하구나 이런 겁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1: 큰스님 앞에서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지원에서 법형제에 활동하고 있는 신도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설법 중에 믿고 여여하게 육바라밀을 놓아 행하라 하신 말씀, 이미 제가 말씀드릴 것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한 것도 있고 또한 제가 평상시에 생활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지원에 가서 예불에도 참석하고 또 설법도 듣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설법이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잡념이라고 할지 망념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또 제가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도중에도 학생들이 그 가르침보다 잡념, 즉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같은 처지의 도반,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딴 생각, 잡념이 있는 학생들한테 일도정진 할 수 있는 큰스님의 원력을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천해 볼때 물리터져

스님: 하하하…. 그건 선생님께서 그렇게 집중해서 모든 애들한테 에너지를 베푸세요. 그러면은 아마 80%, 70%가 넘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귀에 저절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물리를 틔워 주면은 그냥 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실천해 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애들이 얼마만큼 더 물리가 터졌나 하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댁에서 해보고 댁에서 지켜보고 댁에서 느껴야지 그게 바로 내 밥인 것이지, 내가 먹고 맛을 아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해 줘도 그걸 댁에서 느끼지 못하고 맛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게 해보세요. 작으나 크나 다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스님은 용(用)만, 용법(用法)만 가르친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말하는 게 우습잖아요. 자기가 먹고 자고 깨고 하는 게 그대로 용인데, 그대로 여여한 우리들의 법인데, 아, 용 빼놓고 송장이 되란 얘깁니까? 하하하…. 마음이 있음으로써 용이 있고, 생명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용이 있는 거지, 아, 사람이 눈 하나만 치켜봐도 용인데, 그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뭐 남는 게 있어서 송장법을 가르칩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디다마는 용이다, 용이 아니다를 떠나서 생활 자체가 그대로 바로 부처님이 가르친 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진전이 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롭게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무심으로써 무전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법칙 그대로 진출할 수 있을까? 내 마음으로써 그대로 모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무심법으로써 그 진실을 행할까 하는 거 말입니다.

질문2: 저는 광주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큰스님을 뵙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으로 봐서 제가 전생에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 웃음) 제가 선원에 첫발을 내디딘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자주 나오게 된 지는 한 일 년밖에 되지 않아서 주인공 공부를 많이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일 년 되니까 자꾸 의문이 생기고 그러는데 아까 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잡념, 즉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축적돼 온 습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잘 알 수가 없을 때가 많고, '나'라는 집착에 빠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헤맵니다. 그런데 근기가 약해서 제가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누누이 큰스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만 제가 어리석어서 그 행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스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선정 지혜를 다시 한 번만 잠깐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그러한 생각이 들든지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안에서 일어나든지 바깥에서 닥쳐오든지 간에, 자기가 '좀 놔야지 왜 놓질 못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호령을 치세요. "요놈아, 그래도 너라고 자꾸 그래? 놓지 못하구!" 하하하…. 자문자답하라구요. 이것이 바로 주인공이 됐다가 바로 자기가 중생이 됐다가, 둘 아니게 항상 같이 이렇게…, 답답하게 나오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지 딴 데서는 안 나와요. 딴 데서 주고 뺏아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허허, 참, 너 감사하게 하는구나." 이러고 말이에요. 참 그게 재밌잖아요? 또 어떤 때는 "야, 그것 좀 놔라." 이러기도 하고, "그것 참, 너 참 슬기롭게 잘해 나가는구나." 하고 자기 손을 들어서 자기 궁둥일 쳐 줘요. 하하하…. (대중 웃음) "야, 너 슬기롭게 참 잘하는구나." 그러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또 정히 저거한다면 색경을 가서 한 번 보면서 색경에 내비친 그 입에다가 입도 맞춰주고, 허허허…. (대중 웃음) 그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참, 네 진짜로 진실한 그 마음이 어떠한 무서운 것도 타개해 나가니 참 감사하구나! 빈 손 감사해." 하고 뽀뽀도 해주고, 응. 전체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 솥의 죽밥이야. 즉 한 솥에 죽 끓는 거와 같애. 그러니까 고가 딴 데서 와서 붙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나한테 주걱으로 쳐넣으면 돼, 응? 아주 그렇게. 자꾸자꾸 그렇게 해 봐요. 그러면 거기서 물리가 터져요. 샘솟듯. 꼭 그럴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에게 내가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가난합도 무릅쓰고 한 푼이 되든 두 푼이 되든 심중 깊이 생각하고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더불어 이 공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참 여러분이 본래부터 부처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런데 그 사는 데 얽매여서 컴컴해졌을 뿐이지, 허, 먼지가 끼여서 그럴 뿐이지 본래 부처님이시로구나. 그러니 이렇게 해서 한 푼이라도 그냥 새 돈으로 골라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부처님한테 자기가 그렇게 성실하게 산다고 표시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님들이 잘못 마음을 먹고 이걸 거저 생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쓰레기 차에 쓰레기를 갖다주는 건데요,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거를 잘못 알고 금으로 알고 그걸 잘못 쓰게 된다면 참 모두 컴컴하게 한 세상을 또 살게, 이 세상에 또 나올 테니 참, 그것도 잘 생각할 점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뜻을 다 헤아린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쓰라고 고사를 드려도 그렇게 잘못 쓰질 않아요,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요다음 생에, 아니 요다음 생이 아니라, 내일도 요다음 생이니까요. 한번 만나 보시면 내 이 심정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 옷을 벗고 요다음에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꼭 한 번은 거칠 거예요. 같이 만나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다 부처니까요.

※위 법문은 1995년 4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끔은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당뇨 · 간질 · 관질염 완치
한국불교 태고종 **서산사**
주지 진성
061)762-2204(fax겸용)
761-5799
011)696-4848
전남 광양읍 칠성리

강좌

견성체험지도 책 · 테프 판매!!
1.생물 = 생명(?+업) + 육체(원소)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無形무념, 무주처, 무게부피無
(2).업(기록물);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유념, 유주처, 무게부피無
(3).육체(물질, 무생물); 법칙성, 부자유.수동타율, 生滅.有形.무게부피有
2.견성 ; 볼래야볼 수없는?을? 이 보는것지.
3.깨달음 ; ?이 나다라는 확신이 서는 것지
4.성불 ; 자신의 의지로 맘고 청정한 본인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대원경지
박민수 참선 고육원 02)2601-9486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전통범패 불교의식 모집
◈기초반, 중급반
◈강의내용 : 예불.아침쇳송.저녁쇳송, 상단축원, 중단작법 태공, 도량석, 도량계, 복청계, 천수바라 태징 찍는법, 북치는 법, 관음의식, 현자계 개인지도 가능
031)865-4893
011)661-9119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정규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6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
청운역리학원

구인구직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상원사
(50~60세)
033)482-3382

노적사 행자 모집
입산 수행할 행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02)353-5016(종무소)
353-4924(주지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2)825-4040

기도하면서 한식구처럼 함께 살아갈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천안)
041)554-7986

토굴이나 암자 전세 구합니다
043)878-4266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나주 불회사
061)337-3440

인연되는 절을 찾습니다
역술에 능통한 60대의
비구스님입니다
절에 스님이 없어
스님 구하시는 절이있으면
연락바랍니다
011)806-8467

함께 정진하실 식구 구합니다.
◆자양땜을 낀 기도하기 좋은 최적의 도량입니다.
평생기도하며 식구가 되어 지내실 비구니스님 혹은 보살님을 찾습니다. 불사끝에 2,500만원 정도 모자라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휴양하실 분도 무방합니다.
◆현대식으로 생활이며 옥돌방도 있읍니다.
054)338-1237
018)510-1237

기도하며 공양주 하실 보살님을 구합니다
조용한 산속 암자
경북 상주 관음사
054)532-0614

불교용품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5)932-7252 김 창 본
011)545-7252 처 사

기타

새천년 새인연 팔공산 약사정사
(천도도량) 신비한 맥반석약수
절 지을 시주자를 모집니다.
땅 400평, 180평
병고자는 기적같은 영취
051)244-3360
053)985-5669
011)9554-6900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2236-0748

21세기 포교문화 지식정보화시대 시급한
인터넷 포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각종 프로그램개발
(CGI, PHP, ASP, JAVA)특벌씨비스 상담전화
02)2242-0331/485-3998
http : //www.cmhouse.net
E-mail : cm@cmhouse.net
한국불교예술문화원 후원
※인터넷사용인구가 2000만을 육박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교들이 불교단체 사찰 포교원등 고유 명칭을 도메인주소로 등록을 하고있는 사례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읍니다 도메인주소는 상표등록과도 같습니다

사찰 · 한옥 석공사
사찰 · 한옥 · 석불 · 석탑 · 석축 조경
단청, 다집, 불단, 요사채
설계 시공 (전문업체)
전국 출장 양택 음택 현지답사
상담하여 드립니다
042)242-9990~3/011)209-3688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36-3번지
연화종합토건 (주)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염성, 방부제
2. 흰개미 해충 박멸제 · 곰팡이 제거제
3. 목조, 석재 세척제
4. 강력 접착제
02)3474-6232
(주) 동화특수 산업

뉴질랜드 유학
▶ 초 · 중 · 고등학교 유학및 랭귀지 스쿨, 단기 어학연수
▶ 대학입학목표
(AUT,UNITEC--대학부설 어학원 추천)
▶ 홈스테이및 가디언쉽제공
(불자가정 및 현지인)
▶ 골프유학 및 연수
우 등 불 유 학 원 Email:rafaga@world-net.co.nz
HP:64-9-021-2132666/FAX: 64-9-416-4252(뉴질랜드연락처)
PH:64-9-416-4252~3

명당(음 · 양) 氣 탐지기
특이
※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강화도 마니산 — 65회전
해인사 독성각 — 46회전
팔공산 갓바위 — 16회전
P대통령 생가 — 50회전
K대통령 생가 — 50회전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 보급가 35만원
보급가 40만원
※ 추석때 집터, 묘터 한번만 사용하셔도 본전을 뽑을 수 있다
TEL:053)982-4976/011)813-3679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5)883-2935
05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고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사찰안내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온양시 신인동
◆ 법당, 목조단청12평, 요사채13평 (수세식 화장실 2개), 산신각4평 약수有
◆ 가격 : 5천만원 (절충가능)
017)705-6531

사찰(터) 안내
◆위치 : 강원도 인제
◆대지 : 142평 田 3,500평
◆가격 : 평당 2만원
◆위치 : 경기 연천
◆ 田 : 918평
◆가격 : 평당 8만원
031)834-4324
016)768-4324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특별시내(지하철역 근접)
◆대지 : 55평
◆법당 : 30평(2층)
◆요사 : 20평(1층)전통기와 및 단청완료됐으며 도심포교 사찰로 최적임. 내부시설은 최고임
◆가격 : 3억 5천 (융자있음)
보증금5천, 월700,000 전세가능
◆위치 : 서울 강북(은평구 소재)
◆법당 : 35평 (2층)7년 ◆방2개
◆역사 : 7년
◆가격 : 보증금2천(월400,000) (시설비 6천 별도)
포교당 내부 시설은 최고급이며 역사깊은 좋은 포교당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전국소재 사찰,암자 양도,양수하실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위치 : 동두천
◇법당 : 15평
◇ 요사 : 47평
◇부지 : 600평
◇가액 : 7천 5백
※ 전국 사찰 다량 보유
양도 ·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드립니다
(서울) 0502) 999-1133
청송기획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정읍
◆평수 : 3000평
◆건물 : 현대식 법당 40평,요사 23평 부속건물 30평 조경완비
◆특징 : 천불불사 할수 있음. 시내10분거리 버스종점
◆가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011)671-0987

포교당 안내
◆위치 : 경기도 구리시내
◆평수 : 법당50평, 요사50평 5층 건물4.5층 옥상 사용가능, 현대식 시설 완벽함
◆가액 : 권리금8천만원, 보증금 2천만원, 월 134만원
◆이유 : 스님유학 관계로 급함
011)751-7960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강원 경계지역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부지 : 2만 7천평
◆ 건물 : 대웅전, 무량수전 지장전, 산신각, 용왕각, 선방 요사3동(전체 단청완료)
◆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계곡물이 흐름
◆ 가격 : 답사후 절충
(중간소개배제/직접당사자임)
017)373-5998

사찰 안내
◆ 위치 : 청주시 근교
◆ 연역 : 60년 전통 불교 사찰
◆ 법당20평, 요사채40평, 기타건물3동, 대지 6700평 부지 임야2필지 납골당 건립가능
◆ 가격 : 5억
043)260-6766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산면 210번지 영주암
서천에서 차로 5분거리
◆ 대지 : 100평
◆ 건물 : 5평짜리 방2개, 목욕실 주방, 태양열, 법당, 산신각4평, 요사채10평, 홍탱화
◆ 가격 : 4천 5백만원
041)953-3478/951-3308
011)453-4618

포교원(급) 안내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 3층건물에 3층(옥상사용가)
◆구조 : 법당1(에어콘有) 방2(스님방 에어콘有), 조리장1, 화장실 및 샤유장1(총50평)
◆가격 : 보증금1천만원(월55만원) 집기물 무상
02)482-4550/041)753-2636

사찰 안내
◆위치 : 울산 언양
◆대지 : 70평
◆건물 : 임법당20평, 방5개, 화장실 3개, 욕실2개, 사찰의 모든시설 1년 사용된 물건 무료로 드립니다. 아주 조용한 마을에 있음.
◆가액 : 8천 (가격절충)
052)254-1929
011)9315-1200

포교원 안내
◆위치 : 마포구 망원동(11월 5호선 개통 망원역 마포구청역 중간)
◆평수 : 2층 법당, 방, 주방 약 20평
◆가격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호조건 절충
02)323-4480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동구 천호1동 25-2호 점보B/D 3층 보원사
◆ 평수 : 27평, 법당1, 방1, 주방1
◆ 가액 : 보증금3천 월40만원 시설금500만원
02)413-7180
016)272-8043
※ 주 차 가 능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대지 : 61평
◆건물 : 1층 33평 요사
2층 26평 법당
※ 4m 도로인접,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도심기도. 포교의 정법도량 운영불편 없음.
◆가액 : 답사후 결정
011)234-5967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부지 : 5800평중 대지600평 전 5,200평(준농림)
◆법당22평, 산신각4평, 요사채30평 (2동), 공양실 12평
◆특징 : 주변산세, 경관 뛰어나며 기도도량임. 납골당 최적지
◆가격 : 답사후 가격 결정
054)954-0391/011)501-2219

사찰 · 요양원 · 수양원 · 콘도 · 별장
◆ 소공원 하실 분, 국립공원 입구
◆ 남 덕유산 맑은 물 계곡이 휘감아 흐르는 연화봉으로
◆ 둘러싼 가운데 3,000여평의 땅이 있읍니다.
◆ 진입로 포장 · 계곡 교량공사 중이니 귀하가 하신다면 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비를 절감하는 이익을 보시게 됩니다.
◆ 가격 : 답사후 절충 ①2,590㎡, ②1,625㎡, ③5,024㎡ 필지별 분할 매입 가능
055)944-7049/016)750-7049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1,200평
법당, 요사, 용왕당
◆ 특징 : 산세수려, 기도도량
◆ 가액 : 8천만원
055)862-6199
017)856-3617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청양
◆부지 : 300평, 법당2층 30평, 요사채 80평
◆특징 : 포교당 적합, 읍내소재지 터미널에서 5분정도
◆가격 : 3억 5천만원
041)943-8454

포교당 안내
◆ 위치 : 광명시 새마을시장 3층
◆ 평수 : 35평, 10년되었음
◆ 가격 : 5천만원
02)2618-0767
02)687-5544
02)683-8444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 삼존불, 신중탱화, 실상탱화, 산신탱화 40평, 방2개 부엌1개
◆ 가격 : 전세 2천 5백만원
(시설비 약간 포함)
019)211-8533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시 은평구
◆대지 : 60평
◆건물 : 법당10평, 요사채10평, 방2개
◆특징 : 울창한 수목과 편리한 교통을 갖춘 위치며, 굴속에 미륵부처가 자연으로 있어 기도생활에 큰 도움이 됨. 무속인 양도 가능
◆가액 : 1억 1천만원
02)354-3844

수양원 · 기도처
◆위치 : 충북 단양군(구인사 근처)
◆부지 : 1160평
◆건물 : 절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전통 한옥으로 "ㄱ"자로 꺾어 지은 집 30평 한채. 옆댓평 토굴 한채 (나무와 흙으로 지음)
※정생 살려고 지은 집입니다 (2년됐음)
※소백산 줄기로 산세가 수려합니다
◆가액 : 1억 3천 만 원
· 서울 근교 암자 및 부동산과 교환가능
02)3216-2573/016)852-525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시설 완벽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3)942-0700

말바꾸기 예사…날치기…법안 처리 뒷전…

相殺의 정치판 "民生 멍든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지난 6월 총리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잦은 '말 바꾸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서영훈 민주당 대표는 7월14일 선거사범 편파수사 시비로 파행을 겪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오늘 보니 개판은 진짜 개판이다."

우리 정치의 현실은 우리 정치판에서는 변하지 않을 이 두 사람의 명언(?)으로 함축된다. 지난달 말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로 인해 빚어진 '개판 극회' 역시 이 말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부의장 자택을 봉쇄했고, 급기야는 김종호 부의장이 담을 넘어 '탈출'하다 한나라당 측에 '체포'되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이런 정치판의 코미디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씁쓸함을 더해주는 것은 '이번 국회는 뭔가 다르겠지' '잘한다고 말했으니 달라지겠지'라는 국민의 기대를 일시에 날려버렸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6월5일 16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야당과 정책을 통한 경쟁,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또 민주당 총무는 "날치기 처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한나라당 총무에게 다짐까지 했었다. 한나라당도 "도울 건 돕고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며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다짐까지 해놓고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했다.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무와 도덕성을 상실했고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마치 투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적 입지 유지를 위해 '국회 교섭단체'를 구걸하고 있는 자민련의 '몰상식한 행태'가 큰 몫을 하고 있다.

날치기가 있기 불과 며칠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저지'를 위해 한나라당 원외 위원장들이 노르웨이 오슬로로 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바탕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자민련은 날치기 법안이 통과되자 싱글벙글했고, 김종호 국회부의장 집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날치기 통과된 날 밤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최고급 위스키 술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사법 개정안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 속에 기약없는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혹자들은 우리 정치판을 '쓰레기판'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지만 정치인들은 재활용가치도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한동 총리의 말대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할 수 있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평가는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정치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개판'에서 뛰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 이번 국회의 유일한 소득(?)이었다.

부처님은 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종교적 가르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부터 단련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길러 그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대하며,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바른 진리의 즐거움을 얻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런 가르침이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소 귀에 경 읽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정치인들에게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꾸짖는다. "사람이 그 작은 악을 참회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업이 무거워서 지옥에 태어나는 보를 받기에까지 이른다." 〈열반경〉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7월 25일 오후 김종호 국회부의장 집 앞에서 출근저지 투쟁중인 야당의원과 보좌관들이 길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모습. 하긴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하루 2시간 5분 TV본다

통계청 '한국인의 생활시간' 조사

"종교생활은 10분"

우리나라 국민들은 하루 평균 8시간 42분 일하고, 7시간 47분 잠자며, 여가활동에 5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7월 26일 발표한 '1999년 국민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하루 24시간의 36%인 8시간 42분을 직장이나 가사(家事), 학교 공부, 출퇴근 등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가활동에는 5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면(7시간 47분)과 식사(1시간33분), 세수 및 외출준비(58분) 등 필수활동을 하는데는 10시간 18분을 쓰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통계는 전국에 거주하는 10세 이상 42,9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2시간 5분)과 신문 읽기(17분) 등 대중매체 이용에 2시간 23분, 교제활동은 53분, 취미생활에 52분, 기타 여가생활에는 52분을 개일 평균적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을 하루 10분 이상 하는 사람은 20명 중 1명(5%)에 불과했다. 또 자원봉사 등 참여 및 봉사활동에는 단 3분만을 사용했다.

한편 우리 국민의 종교생활 시간은 하루 평균 10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성별로 보면 하루평균 남자는 5분, 여자는 15분이었다. 평일날 종교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은 남자가 3분, 여자가 11분으로 평균 7분이었고, 일요일은 남자가 17분, 여자가 34분으로 평균 26분이었다. 종교활동 항목은 개인적 종교활동, 종교집회 및 모임 참가, 그외 종교 관련 행동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성별·연령별·직업별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1백6조5천9백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것은 가사노동시간에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곱한 것이다. 또 성인 남자 5명 중 1명은 평일에 청소와 집안정리를 하루 10분 이상 하고 있었다. 학생의 총 학습시간은 평일에 초등학생이 7시간 21분, 중학생이 8시간 53분, 고등학생이 10시간7분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3명중 1명 "한달 한번이상 음주"

청소년 음주문화 실태

'최근 한 대학의 교수가 발표한 청소년 음주문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전에 처음 술을 마신 청소년이 29.3%에 달했고, 중학교에서 첫 음주경험을 한 청소년은 27.3%를 기록했다. 우리 청소년의 절반이 넘는 56.6%가 중학교 졸업 전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음주 경험률에서도 청소년의 30%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애도비구니경〉은 "술은 독약이고 독수(毒水)이며 독기(毒氣)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 술은 〈대애도비구니경〉의 말처럼 독약이고 독수이며 독기가 될 뿐이다.

가짜 휘발유 넘친다

도심 주유소까지 무차별 유통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가짜 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말엔 기름을 넣지 마라' '고속도로나 국도 주변, 도심 외곽에서의 주유는 가급적 피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정도다. 변두리 주유소의 상당수가 '뜨내기 손님'을 상대로 가짜 휘발유를 팔고 있다는 것이 주유소업계 사람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시기나 장소에 상관없이 가짜 휘발유가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성남, 고양, 광명, 군포, 시흥, 안산, 인천 등 경인지역 일대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이렇게 된 데는 유가자유화 이후 가격경쟁이 심화된 데다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마저 인상되자 영세 주유소들이 앞다퉈 가짜 휘발유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처벌이 미약하고 관계기관의 단속이 느슨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사기 상술로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출요경〉은 이런 부정직한 상행위에 대해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고 설하고 있다.

처벌규정과 전국 모든 주유소의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길 수는 없다는 교훈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

시론

영혼 살찌우는 휴가

여름이 오면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를 떠올리며 삼복더위를 달랜다. 가고 못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망망대해의 아득한 수평선에 내려앉은 흰 구름과 발 밑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자락, 아니면 깊은 산 주름을 타고 내리는 계곡의 맑고 싸늘한 물줄기의 감촉은 어떤가. 매미가 울어주고 나무 잎새들이 산소를 풀풀 내뿜는 숲 속 그늘에 궁둥이를 붙일 만 한 반반한 바위 하나를 찾아보자는 것이지, 갈 수 있건 없건 꿈이야 못 꾸겠는가 말이다.

묵혔던 일감 해결도 방법

그래서 여름휴가에 비가 끼기 마련인 장마철에는 날씨와 피서객들의 빈 틈 없는 각축전이 벌어진다. 며칠 전 스님네 일행에 붙어서 대천댐 나들이 길에 올랐다. 비가 오는 것도 그친 것도 아닌 눅진한 바람을 안고 가는데 때마침 일요일이라 나들이 차들이 더러 눈에 띄었다. 푸른 강산을 구불구불 돌아 정상에 다다랐을 때는 가랑비가 심심치 않게 내리고 있었다.



신동춘
〈한양대 명예교수〉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 우산을 받고 빈손에는 옥수수 한 자루를 쥐고 물을 채우는데 6년이 걸렸다는 댐을 바라보는데 물에 잠긴 산기슭의 곡선이 운치가 있었다. 그 한 장면을 바라보며 역사의 뒤안길을 잠시 되새기고 돌아오기 위해 왕복 2시간을 달렸던 것이다. 귀로엔 양계를 한다는 나환자들의 촌락도 넘어다보았으며 자칭 이나라 최초의 전기 살균 송어양식장이라는 데를 답사했으니 민정시찰을 곁들인 휴가의 한 토막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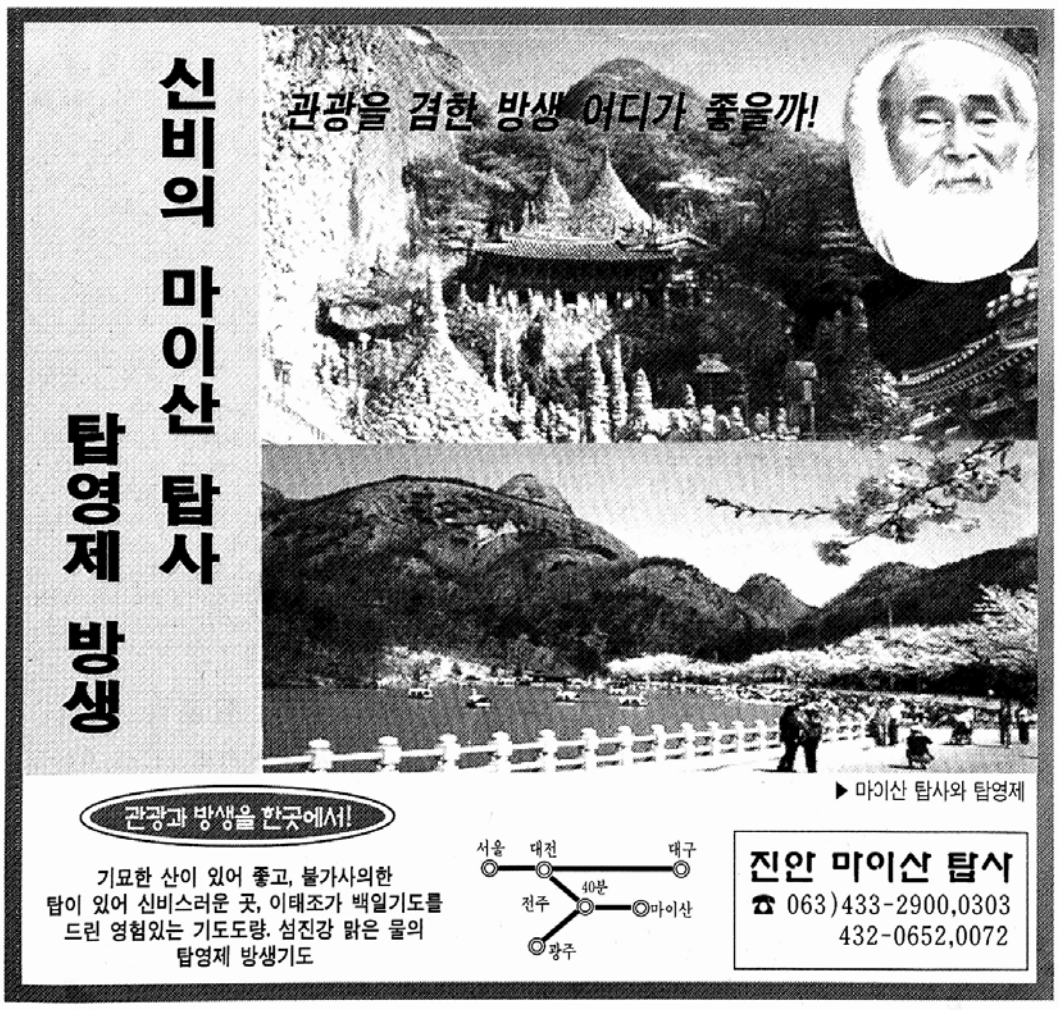
그러나 이도 저도 안될 경우를 생각하자. 이열치열이라고 했으니 밀렸던 일을 해치우는 것도 여름휴가를 선용하는 또하나의 방법일 게다. 휴가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므로 쉬임없이 되풀이하는 톱니바퀴를 잠시 멈추고 생활에 변화를 가져보자는 것이다. 주변을 말끔히 치우고 묵혔던 일감 보따리를 끄른다. 목덜미를 타고 내리는 땀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일에 몰두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체험 또한 여름 휴가의 값진 선물이 아닐는지. 언젠가 탄허스님은 월정사 방산굴에서 무슨 어록(語錄)인가를 인용해 가며 "좋아서 하는 일은 피로를 모르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다. 좋아서 하는 일이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뜻함인데 뙤약볕을 등에 업고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대학생들은 이 사회의 희망이자 여름 휴가의 최량의 부분이라 하겠다.

얼마 전에 TV화면이 새로운 체험에 도전하는 독일 청년들을 보도했다. 그들은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허술한 소극장의 무대 설치에 덤벼들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마당에서 '색다른 분야의 새로운 체험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보도매체는 연일 피서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현황을 고발한다. 먹다 버린 찌꺼기에 폐기물, 규격봉투에서 풀려난 심리적 해이감까지 작용해서 화면에 노출된 쓰레기 더미는 한마디로 끔찍하다. 환경대책의 구호들은 공염불로 돌아가고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상투어가 되어버렸다. 맹자는 독신(獨愼)을 말했다. 남이 보건 말건 내 할 바를 알아서 행하는 사람. 들켜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데 성취감을 느낄 줄 아는 멋진 사람들의 나라가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지켜 나가야 할 룰이 자생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득적으로 그 룰을 알아차린다. 질서와 예의와 타인을 위한 배려는 하나 같이 나와 너의 행복을 도모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다.

성취감 느낄 줄 아는 사람

'가을'이라는 시 한 편으로 우리의 젊은 날을 사로잡았던 릴케는 여름 또한 '만물이 사지를 쭉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는 계절'이라고 했다. 30년 가까이 강단에 섰던 대학 여름 캠퍼스의 어느 날 오후 오르막길을 천천히 걸으며 나는 릴케의 '여름 예찬'으로 방학동안의 독서삼매를 부추겼다. 수목의 수액이 모근에서 꼭대기까지 오르내리는 소리에 귀를 세우며 나무 둥치의 나이테의 커브를 눈앞에 그렸다. 이 황짝 열린 계절을 무슨 방법으로든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마시고 영혼을 살찌우기 바란다. 하여 미구에 다가올 성숙의 계절로 접어드는 데 미진함이 없기를 염원한다.





음악…미술…무용…예절…인터넷…

취미 살리고 재능 키우고

여름방학은 학교 울타리 밖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학교 수업에서 놓여나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는 여름 방학 동안 조금만 눈을 돌리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 미술, 한문, 전통예절 등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사찰·박물관등 청소년 방학프로 다양

집을 떠나는 수련캠프에 참가하는 것도 좋지만 사찰을 비롯해 복지관, 박물관, 예술 단체들이 준비한 방학 맞이 특별 강좌도 잘만 활용하면 취미도 즐기도 재능도 개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이런 문화 강좌들은 배우고 싶은 특정 주제를 골라 전문 강사진한테서 집중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으며, 학교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국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이름	장소	내용	전화번호
한자교실	조계사	경전사구게	(02)732-5292
한문서당	백련사	사자소학 · 명심보감	(02)302-0288
한문학교	흥주사	경전 및 실용한자	(041)674-3473
어린이교실	원곡청소년센터	피아노 · 미술	(02)918-3543
어린이발레	잠실운동장내	초급발레	(02)2240-8764
박물관교실	국립중앙박물관	도자기 제작 실습	(02)398-5010
창의적여름	삼성어린이박물관	치약 · 석고용기 제작	(02)424-5864
여름미술학교 2000	예술의전당	창작미술 · 데생	(02)580-1619
여름공예교실	공예문화진흥원	물레작업 · 도자기 제작	(02)733-9040
논리 · 창의력교실	흥사단 상담실	글쓰기 · 논리수학	(02)744-2056
하자여름특강	하자센터999클럽	문화 · 인터넷 · 방송	(02)677-9200
국악문화강좌	국립국악원 연습실	단소 · 장구 · 사물	(02)580-3059



◇여름방학에는 학교수업을 통해 배울수 없었던 다양한 전통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사진은 박물관교실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반가사유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백련사 · 조계사 한문서당 열어
민속박물관 민속강의 · 유적답사
예술의전당 도예 · 판화 실습

우선 태고종 백련사의 '한문서당'은 한자의 습득을 통해 불교와 조상들의 지혜를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문서당'은 〈사자소학〉과 〈명심보감〉, 경전사구게를 교재로 옛날 서당의 엄격한 분위기를 되살려 10년째 방학때마다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문화재청도 초 · 중 · 고생을 대상으로 19일까지 경복궁과 창덕궁 등 5개 궁궐에서 '고궁 문화학교'를 연다. 이번에 실시되는 문화학교에서는 각 궁궐의 역사와 건축양식 및 유물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전문가들이 현장을 둘러보며 설명해 준다.

예술의 전당 미술아카데미의 '어린이 미술학교'는 어린이들에게 미술 창작과 감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창의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강좌가 수준별로 나눠 진행되는데, 7살부터 초등학교 3년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창작반에선 도예, 염색, 판화, 미술관 견학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서는 초 · 중 · 고생들을 대상으로 8~9일 물레작업을 직접 해볼 '2000 여름공예교실'을 연다. 미술활동외에도 전통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울 프로그램도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준비한 '청소년 우리 민속교실'에서는 민속학 강의와 문화유적 답사가 실시되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주 4회씩 2주간에 걸쳐 단소반과 종이공예반을 운영한다. 특히 예술 전문 단체에서 개설한 특별강좌는 전문가들이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는 점에서 권할만하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⑮ 의재의 도림사 · 내원사 편액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 · 1891~1977)은 진도 출생으로 어려서 진도에 유배 온 무정 정만조(茂亭 鄭萬朝)에게 한학을 배웠으며, 1913년 도일해 메이지대학에서 법정학을 전공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유학 중 진로를 바꾸어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귀국 후에는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산수화를 출품해 입상하기도 했다. 1927년 이후 그는 광주에 머물면서 연진회(鍊眞會)를 통해 후진 양성에 전념했다. 또 1949년부터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1960년에는 예술원회원이 됐다.

의재는 소치 허련(小痴 許鍊)에게서 이어지는 정통 남종화의 맥을 현대에 전해준 한국화가로 김은호, 노수현, 박승무, 변관식, 이상범 등과 함께 한국화 6대가로 불린다. 또한 그는 무등산 기슭에 춘설헌(春雪軒)을 짓고 다원을 직접 운영했을 만큼 차를 좋아했던 다인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농촌기술학교를 건립해 교육사업에 힘썼던 교육가 이기도 했다. 현재 사찰 편액으로 남아 있는 그의 글씨는 곡성 도림사 〈도림사〉 편액과, 양산 내원사 〈화청루〉 편액 등이 대표적이다.

곡성 도림사 입구의 작은 사문인 오도문 앞쪽에 걸린 〈도림사〉 편액은 변죽 없는 평판에 바탕을 흰색으로 글자를 청색으로 칠한 소박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백련(百鍊)이라는 관지와 음각 방인이 하나 있다. 이 편액의 글씨는 일필로 써 내린 의재의 창노(蒼老)한 행서인 것으로 미루어 그가 노경에 이르러 쓴 글씨임을



◇도림사 오도문 편액



◇내원사 선원 편액

도림사 고고한 선비정신 담긴 행서체
화청루 걸림없듯 유려하게 쓴 노년작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만, 꼿꼿한 선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담백한 글씨이다.

양산 내원사 선원 앞쪽에 걸린 〈화청루〉 편액에는 액판 좌측에 '의도인(毅道人)'이라는 관지와 '의재 허백련(毅齋 許百鍊)'이라는 도서가 찍혀 있으며, 변죽 없는 검은 평판에 글자만 흰색으로 칠한 근대 편액의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편액의 글씨 역시 의재가 노경에 이르러 쓴 글씨로 보이며 서화를 겸전한 그의 고고한 품격이 배어있는 유화(柔和)한 서미의 행서이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참선과 명상으로 나를 찾아 나섰어요"



◇동대사대부중 파라미타 수련회에서 고란사 주지 성수스님이 '나를 찾아서'란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동대사대부중 파라미타는 7월 20일부터 2박3일간 부여 고란사에서 '백제의 숨결과 미소를 찾아서'란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열었다. 1백여명이

동대사대부중 파라미타 여름수련

참석한 이날 수련회에서는 108배 정진 및 불교 기초교리 강의, 명상과 참선을 통한 심성수련 프로그램 '이뭣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미리 극락전과 5층석탑 등 무량사 성보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철저히 조사해 무량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1일 사찰 가이드까지 해 줘 관광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또 밤 10시부터는 무량사 입구에서 사찰 뒷산 중턱까지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2인 1조로 왕복하는 '야간 담력 훈련'도 열렸다. 돌아오는 길에는 석탄박물관에 들러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변천과정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전문인력 봉사단 발대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7일 평송청소년 수련원 강당에서 '전문인력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는다. '2001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청소년 전문 봉사자 양성을 위해 발족하는 이번 봉사단은 외국어, 컴퓨터, 문화예술, 환경보호 등 4개 분야에 걸쳐 5백명으로 구성된다. (042)488-0732

둥지 청소년집서 봉사

서울불교청년회는 13일 대부도 둥지청소년의 집으로 자원봉사를 떠난다. 이번 봉사에서는 환경미화를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예체능 지도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02)730-9108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청소년 문화예술축제 조직위원회는 10일~12일까지 여의도공원에서 '청소년문화예술축제 2000'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등학교를 비롯해 청소년단체 등의 노래동아리 50여개를 초청해 펼쳐지는 놀이마당 '놀자, 콘서트'와 청소년들의 사회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토론마당 '청소년의 나라'가 펼쳐진다. (www.youthfestival.com)

파라미타 대전지부 발대

파라미타 대전지부는 7월 15일 대전 보문 중 · 고 대법당에서 발대식 및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대전시내 19개 학교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조계종 포교국장 주경스님은 "지회 창립 2년만에 지부로 승격된 대전지부의 노고를 치하하며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갯벌 탐사 · 하회탈 제작등 향토애 심어

문화부 청소년 문화학교

문화관광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0 청소년 여름문화학교'를 운영한다.

16개 도시에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펼쳐질 이번 문화학교에는 서울시의 '한강역사문화탐방', 부여의 '백제도자기 만들기', 전남 신안의 '즐거운 갯벌 탐사캠프', 안동의 '하회탈 및 벌신굿 배우기', 제주의 '여름 오름 문화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각 지역 시 · 구청 체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통한 협동심과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마다 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건강백과

비만 탈출법

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보통 30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비만은 그대로 방치하면 각종 성인병의 주요 원인이 된다. 보통 비만은 체지방(자기 체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자는 25% 이상, 여자는 30% 이상일 경우를 가리킨다. 자신의 체지방을 알기 어려울 때는 간단하게 체질량지수(BMI)로 비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체질량 지수 공식은 체중÷(신장×신장). 이때 체질량 지수가 20~25일 경우에는 정상체중, 25~30일 경우에는 과체중(경도 비만), 30이상이면 비만이라고 본다.

◆이것만은 알아두자!

복부나 허벅지 등 특정부위의 살을 빼기 위한 방법으로 그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운동법이다. 특정부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조직에서 동원된다. 그러므로 특정부위의 체지방량을 줄이기 위해 특정부위에만 운동을 집중시키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체지방량의 감소는 운동부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한 총 에너지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체지방 30% 넘으면 비만

속보·자전거 타기·수영 효과

◆추천 운동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속보, 가벼운 조깅, 자전거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이 적합하다. 한 달에 1kg의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평균 400kcal 정도 소비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이 정도의 운동은 산책 90분, 속보 60분, 조깅 30분에 해당된다. 산책은 1시간에 4km, 속보는 6km, 조깅은 8km의 속도로 운동 하면 된다.

◆운동 요령

자신의 최대 운동능력의 50~60%만 활용할 수 있도록 낮게 책정한다. 또 한번 운동을 할 때, 30~50분 정도 실시한다. 횟수는 피로가 쌓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통의 경우 최소 주 3일 이상 격일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술천식(2개월 50만원), 술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액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자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들을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의 료 법 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 254-2600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시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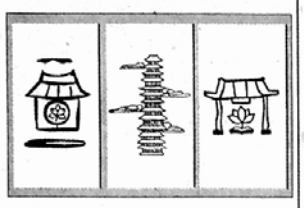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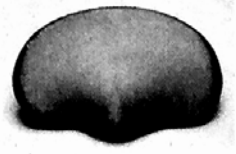
무료진맥 · 완치!!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참선명상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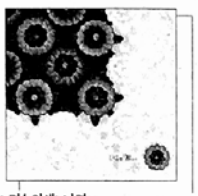


일 반 ₩30,000
숯가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025039
· 의장등록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가격:₩5,000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찬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가격
일반형(인조피혁) ₩25,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테잎



■ 가격: 6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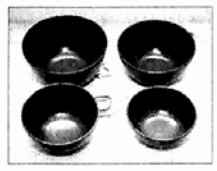
신상품 및 추천상품

발마사지 헬스기구



다양한 기능의 첨단고급 재료로 제작
가격: ₩3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죠온열 건강벨트



원하는 온도조정(36.5℃에서 70℃까지) 가능
가격: ₩10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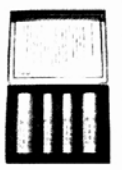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야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석씨향방 오분향,생기향세트



규격 :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기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대나무 숯 염색천



■크기 : 44인치 X 5.5야드 ■가격 : 60,000원
■색상 : 진회색/회색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가격: ₩60,000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재 제 형 : ₩20,00원
무개제형 : ₩15,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순금도금 은 하란야메달



▶ 용도및효능 : 남녀공용 브로치형 메달
▶ 재질 : 천연자수정大부착 은메달순금도금, 루비 세팅
▶ 효능 : 정화치유에너지가 발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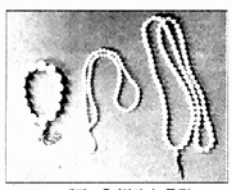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삼보죽염 낱개 1통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려퍼져 희망찬 미래를 염원합니다.

■재질 : 순면 100%(20수) ■색상 : 순백색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크기 : XXL, XL, L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다 구 (茶具)

다구라 함은 차를 맛있고 향기롭게 마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한 그릇 및도구이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관 (茶罐 :차주전자)**
물과 일차를 넣어 우려내는 도자기 주전자. 보통 주전자와 같이 손잡이가 위에 둥글게 붙은 것과 물 따르는 주둥이의 반대편에 붙은 것이 있다. 주구의 안쪽은 거름망이 있어서 차의 찌꺼기가 주둥이를 타고 나오지 않게 한다. 주로 도자기로 만들어졌으며, 금,은으로 만든 것도 있다.

■**다완 (茶碗 :찻잔)**
찻잔(다완)은 다관에서 우려난 차를 따라 마시는 작은 잔을 말하며, 시대와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이 전한다. 구는 원통형의 통잔, 환은 사발형의 가루차용, 종은 작은 반구형의 일차용을 이른 것 같다. 찻잔은 약간 두툼하여 쉬 뜨겁거나 쉬 식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 찻물의 색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잔의 안쪽은 백색이 좋다. 일찻잔은 보통 5개(5인기)와 3개(3인기)로 손잡이가 없다.

■**차시 (차숟가락)**
마른 차 일을 다관에 일정량 떠넣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 주로 대나무나 먹감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며, 차축, 차살피라고도 한다.

■**차탁 (차반, 잔 받침)**
찻잔의 물흐름을 받쳐주는 받침. 찻잔 받침은 원형, 타원형, 사각형, 배모양 등으로 주로 도자기나 나무재료이다.

■**숙우 (熟盂 : 물식힘사발)**
다관에 물을 붓기 전에 끓인 물을 적당량 부어 알맞은 온도로 식히는 사발이다. 물을 붓기 좋도록 귀가 있어 귀사발또는 물식힘 사발이라고도 한다.

■**다포 (茶佈 : 찻상포)**
찻상 바닥의 깔개 혹은 찻상 위에 덮는 것으로 삼베나 무명을 사용하여 물기가 흡수되어 정갈해 보인다.

■**차통**
차통은 차의 변질을 막고 차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석, 양철 등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나무, 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모양은 통형, 기둥형, 단지형이 많다.

■**다선 (차솔)**
대나무 껍질을 잘게 쪼개어 만든 것으로 찻사발에 가루차와 끓인 물을 붓고 휘저어서 융합 시키는 기구이다. 차선은 보통 80본,10본, 120본의 세 종류가 있으며 차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보통 차선(80본)으로 100회 정도젓는다.

■**찻상**
다구들을 올려서 행다를 하는 목재로 만든 상. 사각, 육각, 팔각, 원형,서람형등이 있다.

■**개인다기**
편리함을 위해 고안된 잔과 거름망, 잔 뚜껑으로 구성된 다기.

■**탕관 (湯罐 : 물 끓이는 솥)**
물 끓이는 그릇으로, 신라 때에는 돌 솥도 있었다. 지금은 의식 다례가 아니면 화로나 탕관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주전자나 전기포트를 사용한다.
퇴수기 개수그릇이라고도 불리우며 처음에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차를 우려낸 다음 숙우나 찻잔에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데 이용한다.

■**여행기**
여행을 위해 부피를 줄인 작은 개인용, 다인용 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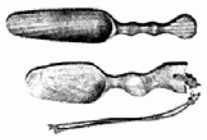
끝으로 다기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다기는 진열용이 아니다. 다른 도자기 제품처럼 예술성과 골동품적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생활 자기임으로 유명도예가의 고가품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둘째, 실용적이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려면 편리한 기능과 도자기 제품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워야 하고 쉬 싫증을 느끼지 않을 만한 것이 좋다.



찻 상
재 질 : 소나무 원목
가 격 :₩54,0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차 시
제품에 따라 모양이 다름
가격 :₩15,000

불 성 차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8,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8,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올외 장아찌	12,000원
· 나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9,000원

백동훈 판각 작품

■ 규격 : 두께 - 3Cm, 가로- 45Cm, 세로-1m

■ 상품설명 판각이란 글씨나 그림 등을 나무에 새기는 작업이다. 평면에 표현된 묵필 또는 그림 등의 예술작품을 3차원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하는 예술세계를 말한다. 목판에 글,그림을 판각한 판각본은 원고 자체를 판목 위에 뒤집어 붙이고 한 자, 한 자 정성껏 새겨서 인출(印出)해 내는 것입니다. 판목(板木) 또한 매우 잘 다루어야 하며, 먼저 글자나 그림을 새기기에 적합한 나무를 배어 적당한 크기와 부피를 판목 시킨후, 짠물 또는 민물 웅덩이에 오래 담구어 결을 삭혔다가 밀폐된 곳에 넣고 쪄서 살충과 동시에 진을 빼냅니다. 그리고 충분히 건조시켜 뒤틀리거나 빠개지지 않게하여 판면을 곱게 대패질 한 후 간행할 내용을 종이에 써서 붙여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각은 목재에서 서예, 그림 그리고 조각적인 부분까지 종합 문화 예술인 것입니다.



	용수관음	쇄수관음	어람관음	양류관음	지장보살	약사여래	보비관음	불이관음	유리관음	일엽관음	지련관음	합장관음
나 왕:	₩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250,000	₩ 250,000	₩ 250,000	₩250,000	₩ 250,000	₩250,000
알마사카:	₩ 330,000	₩ 330,000	₩330,000	₩ 330,000	₩ 330,000	₩ 330,000	₩ 280,000	₩ 280,000	₩ 280,000	₩ 280,000	₩ 280,000	₩280,000

이렇게 들었다 — 좋은 이웃

부처님은 "여기저기 벗을 구해도 저와 같은 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차라리 홀로 선을 닦을지언정 어리석고 악한 자를 짝함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최우방으로 여겨오던 미국과의 관계가 SOFA 개정,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 사건,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사건 등 연이은 악재로 선린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진실로 좋은 관계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때 유지된다.

일본에서 열린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석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최근 오키나와의 한 여중생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주일 미군들에게 "(일본과) 좋은 이웃이 되라"고 타일렀다(?)고 한다. 세계는 한 그물처럼 서로 연결돼 왔다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어느 국가나 서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 경전에서 듣는다.

과실은 깨우쳐 줘야 좋은 벗

▨ 차라리 적이나 백정과 친구가 될지언정 그릇된 말을 하는 악한 견해를 지닌 사람과는 잠시도 동거하지 말라. 〈대법유타라니경〉

▨ 많은 사람이 한데 모여 살아도 서로 잘 이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우정이 생기지 않는다. 진정한 생활 공동체에는 그 자체를 밝혀주는 신념과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믿고 화합한다. 진실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이다. 〈대반열반경〉

▨ 세간에 이로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왕래하면서 변함없이 일깨워주는 것을 친구라 한다.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서 서로 버리고 떠나지 않고 뜻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친구라 한다. 부귀할 때는 누구인들 친구나 벗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불본행집경〉

▨ 벗 사이에는 세 가지 긴요한 일이 있다. 첫째는 과실을 보면 서로 깨우쳐 충고함이요, 둘째는 공덕이 되는 일을 보면 깊이 따라서 기뻐함이요, 셋째는 돌행에 있을 때에 서로 버리지 않음이다. 〈인과경〉

▨ 자타가 서로 권면(勸勉)해야 모든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재앙으로부터 구호하는 사람이야말로 친구이며, 늘 이욕(利慾)에 관계되는 말만을 역설해서, 자타가 안일에 빠지고 온갖 악을 즐겨 행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벗이라 할 수 없다. 〈제법집요경〉

▨ 좋은 벗이란 고락을 함께 하고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한다. 나쁜 벗에도 네 가지가 있으니 상대의 물질을 빼앗음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체면만을 좋아하는 것이요, 삿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선생자경〉

▨ 훌륭한 벗에 일곱 가지가 있으니 고난을 만나서 버리지 않고, 가난하다고 버리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일을 상의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기 어려운 일을 해 주고,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것이니라. 〈사분율〉

▨ 악한 벗에는 네 부류가 있다. 첫째는 마음 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도 겉으로는 억지로 벗인체 하는 사람이다. 둘째는 그 앞에서는 좋게 말하지만 배후에서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그 앞에서는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듯 가장하지만 배후에서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넷째는 겉으로는 친한 체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음모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육방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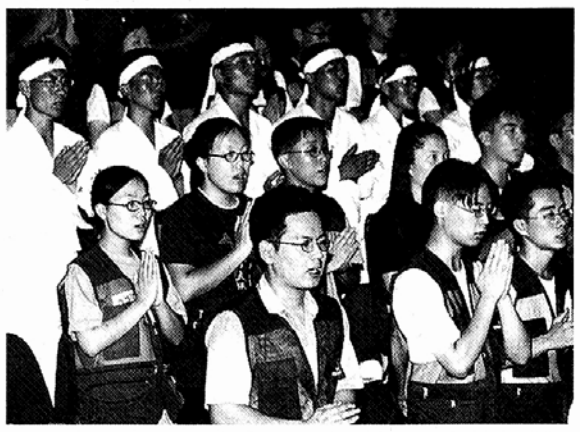
▨ 비구들이여, 어진 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인욕을 닦아 지키며, 서로 다투고 송사하는 것을 삼가야 하느니라. 사람들을 책망하여 예경(禮敬)하게 하지 말고, 남을 위하여 법을 설하되 은혜와 덕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불반니항경〉

▨ 어떤 친구가 착한 친구로서 남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가? 게으름을 피울 때 깨우쳐 주고, 일을 방해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허물을 보아도 꼬투리를 잡으려 애쓰지 않는다. 〈별역잡아함경〉

▨ 항상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아첨하면서도 벗의 결점만을 보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숫타니파타〉

▨ 어리석은 자와 같이 종사를 하지 말고 의당 선지식이나 지자와 사귀어야 한다. 사람에게는 본래 악이 없는터이나 악인을 가까이 하면 뒤에 가서 반드시 악인이되어 악명이 세상에 두루 퍼지게된다. 〈증일아함경〉

신행 캘린더



◇대불련 1600년 대회는 올바른 신앙관 확립과 민족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열린다.

불교 궁금증 100문 100답
전북불교대학 특별강좌 열어

"불교에 대해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전북불교대학은 3일, 10일, 17일 오후 7시 3층 강의실에서 불교상식 100문 100답 특별강좌를 연다.

그동안 불교에 관심은 있었지만 특별히 공부한 적이 없거나 교과과정 공부 중에 질문하기 쑥스러웠던 불교상식을 비롯, 교리, 신행 등 불교와 관련된 문제를 묻고 답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창주 전북대 교수(철학과)와 류성근 경전독송회 회장이 100문 100답 법사로 나선다.

불교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동참금은 없다. 다만,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 시작 전에 질의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성의가 필요할 뿐이다.

또 전북불교대학은 24일과 31일 백준기 처장의 진행으로 '전북의 사찰'에 대한 슬라이드 강연을 갖는다. (063)226-7878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8월 2일 (수)

■ SBS 법우회 성민스님 초청법회=SBS법우회는 여의도 불교문화원에서 정오~오후1시30분 성민스님을 지도법사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11-715-9158 김인홍

8월 3일 (목)

■ 대불련 1600년 대회=대불련 제19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가 6일까지 경주 남산과 불국사 등 경주일대에서 열린다. (02)732-0239

■ 한전반야회 정기법회=한전 반야회는 오후6시30분 별관 1층 세미나실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2)3456-5784 홍기성

8월 4일 (금)

■ 한국은행 정기법회=한국은행 본점 불교회가 정오~오후1시30분 본사 시청각실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2)759-4545 정옥련

■ 경기 경찰청법우회 교리강좌=경기 경찰청법우회는 오후6시30분 경찰청 내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가진 뒤 무우사 주지 화평스님으로부터 기초교리에 대해 공부한다. (031)258-5248

8월 5일 (토)

■ 우리는선우 박원순변호사 초청법회=우리는 선우는 오후 3시 30분~5시 선우법당에서 고등학생 불자를 비롯, 대학생, 청년회, 일반인 등 80여 명이 착석하는 가운데 8월 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박원순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가 '21세기 시민운동과 불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02)2278-8672

8월 6일 (일)

■ 칠석기도 · 〈아미타경〉 강의=능인선원은 오전 10시 칠석기도 및 〈아미타경〉 강의 법회를 봉행한다. 또 14일까지 새벽법회에서 〈아미타경〉과 〈관무량수경〉을 강의한다. (02)577-5800

8월 8일 (화)

■ 백담사 만해축전=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11일까지 내설악 백담사에서 제2회 만해축전을 개최한다. 불교개혁 심포지엄, 전국시조시인대회, 만해상 시상을 비롯, 전국 고교생 백일장, 시인학교, 중광스님 선화전 등으로 꾸며진다. (033)462-3224

8월 11일 (금)

■ 지리산댐 반대 문화제=지리산 살리기와 댐 건설 백지화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규모 문화행사가 저녁7시 경남 함양 상림공원에서 열린다. (02)720-1654

법회안내

전북불교대서 법문



월운 동국역경원장 스님은 5일 전북불교대학이 개최하는 고승초청 대법회에서 법문한다. (063)226-7878

재가교육 주제 설법



현각 동국대 교수 스님은 13일 뉴욕 롱아일랜드 마하선원에서 '한국불교의 재가교육'과 '조계종의 재가교육' 등을 주제로 법문한다. (02)2260-3127

지하철법우회 설법



화암 사나사 주지 스님은 15일 오후7시 종합운동장역 법당에서 열리는 서울지하철법우회 정기법회에서 법문한다. (02)520-5180 민병훈

광주불교교육원 강의



강건기 전 북불교대학 학장(전북대 교수)은 24일 광주불교교육원에서 개최하는 불교사회교육 열린강좌에서 불교교리, 불자 생활윤리, 한국의 고승 등에 대해 강의한다. (063)226-7878

게시판

알림

▲수험생을 위한 백일기도=강남포교원은 8월8일 오전10시 대웅전에서 올해 수능시험을 치는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백일기도를 입재한다. (02)539-2631

▲불교와 상담=불교상담개발원은 16~18일 화성 용주사에서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을 주제로 불교상담의 미래를 조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02)737-8803

▲조계종 전국신도회 대의원대회 연기=조계종 전국신도회는 매년 여름 실시하던 수련대회와 대의원 대회를 오는 10월 28~29일로 연기해 김해 봉화산 정토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02)732-7272

▲무료생활한문 특강=신촌봉원사는 24일까지 매일 오전9시 방학을 맞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생활한문 특강을 실시한다. (02)392-3007

▲국립공원제도개선위 2차 회의=조계종을 비롯한 7개 시민·환경단체가 연대 구성한 국립공원 제도 개선 시민위원회 실무팀의 2차 회의가 3일 오전10시 재가연대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원 구역 재조정문제, 사찰과 국립공원문제 등을 논의한다. (02)725-6231

▲법흥사와 김삿갓 묘를 찾아서=터사랑은 6일 강원도 청령포와 김삿갓 묘, 적멸보궁 법흥사, 무릉리 마애불이 있는 요선정을 찾아 나선다. (02)725-1284

모집

▲만대교학대학원 신입생=경북 상주 만대교학대학원은 2000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포교교육과의 동양종교·종교음악·역학지도, 유아교육과의 유아놀이·아동미술·생활미술, 종무행정과의 포교법회, 상담행정, 생활상담 과정 등이다. 강의는 월2~4회 있으며 2년 출석제로 운영된다. (054)535-1987

▲발관리 서비스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발관리 서비스를 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불교의식 학인반=해동불교의식교육원은 불교의식(범음·범패) 기본과정과 중급과정, 작법반, 신행과정의 학인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24일까지이며 개강은 25일 오후5시에 한다. (02)741-0495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은 불교종무행정 관계자나 종무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연령, 학력, 교과 제한은 없다. 접수마감은 8월 10일까지이며, 남·녀 40명 모집한다. (02)760-4401

▲법화삼부경 수강생=법화삼부경강원은 15일까지 불경한자 한문 교육과의 남녀 통신반을 모집한다. 교육과목은 〈무량의경〉〈묘법연화경〉〈관·보현보살 행법경〉 등이다. (053)952-8711

▲여가모임 회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 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5~7시 종이접기,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문화생활을 함께 할 여가모임 회원을 모집한다. (02)852-0525

▲여성 자원봉사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주1회 거동이 힘든 독거장애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집을 방문해 가사활동을 도와 줄 여성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43)652-0900

▲이·미용 봉사자=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저소득 및 신체 허약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85-1351

▲간병인 자원봉사자=경희의료원불자회는 병원 안내와 진료접수, 간병활동 등을 도와줄 불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58-8112 권혁운

부음

▲진각증 불승월 전수(경주 각성심인당 주교)가 7월24일 동국대 경주병원 영안실에서 입적했다.

▲손안식 전국불교신도회 전 사무총장의 부친이 7월2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02)836-8322

이전

▲조계종 전국불교신도회는 지난달 20일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112호, 413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2)732-7272~5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패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패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제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패만다라와 팔패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패만다라와 팔패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패만다라와 팔패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2000학년도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후기 신(편)입생 모집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 의식 교육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잡 작법 및 예경의식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발전 시키고져 하오니 뜻 있는 스님, 포교사 및 불자님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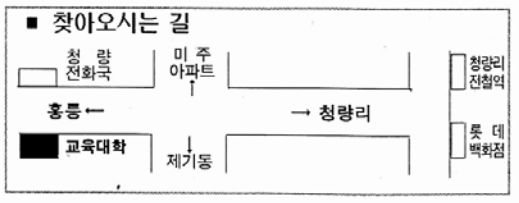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월~금)
▶ 접수일자 : 2000년 8월 6일~ 8월 23일
▶ 개 강 : 2000년 8월 24일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금강불원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유교문화권에 불교바람

가장 한국적인 것들의 보고(寶庫)라는 안동. 한국 성리학의 본고장으로서 유교문화의 중심. 명현거유(名賢巨儒)들이 줄지어 배출된 곳이며, 무수한 서원과 루(樓)와 정(亭)이 있는 곳. 그러나 조선시대 이전에는 '제2의 경주'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법흥사에서 서악사까지 절의 추녀들이 이어져 고을안을 비 한방울 맞지 않고 거닐 수 있었다고 하는 유서깊은 불교성지였다.

지난해 4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방문에 이어 최근 정부의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정책의 가시화로 안동지역이 주목받는 가운데, 불교 중흥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안동지역 신행을 이끌고 있는 대원사는 특히 불교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새싹불자 키우기에 관심이 많다. 사진은 7월23일 대원사 여름 어린이불교학교 졸업식 모습.

안동·영주등 불교문화재 보수 활발
경북불교대등 지역유지 포교 앞장

엘리자베스 여왕의 체취가 묻은 하회마을과 함께 국내 최고의 목조건물이 있는 봉정사(주지 문인)에는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초파일에는 봉정사에서 처음 일반에 공개된 괘불 앞에서 국악과 승무, 서예 퍼포먼스 등을 곁들인 야단법석이 펼쳐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에 따라 올해 경북도내 유·무형 문화재의 보수,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 74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불교문화재의 보수·복원도 활발해지고 있다.

도내 국고보조 문화재보수사업 가운데 불교관련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 벽화보수 등 5억7천100만원 △영주 부석사 삼층석탑 범종각 보수 등 4억원 △경주 불국사 및 석굴암 유물전시관건립 12억원 △김천 직지사 대웅전 명적암 건립 6억원 등이며, 도비 보조사업은 △영주 희방사동종(유형문화재) 요사채보수 1억원 등이다. 또 유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의 문화재정비부문은 △봉정사 주변정비 32억5천만원 △울진 불영사정비, 남사고선생 유적복원 등 14억7천만원 등이다.

하지만 유교문화권에서의 불교중흥 조짐은 이런 외형적인 면과 함께 신행 활성화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안동, 영주, 의성, 봉화 등 경북북부지역을 관장하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의성 고운사(주지 법조)가 청정 수행도량으로 거듭나면서 이 지역 불자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신라 고찰임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사찰을 포기하고 선방의 수행분위기를 유지하는 대신, 포교는 안동 포교당인 대원사(주지 정우·안동사암련 회장)에 역할을 분담시켜 불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 7기생의 졸업생을 배출한 안동불교대학과 함께 3년전 출범한 대원사 불교교양대학이 유교·천주교·개신교가 선점하고 있는 지역 종교계에 서서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

특히 인근 영주시에서는 부석사와 14년 전통의 경북불교대학이 수십개의 신행단체를 이끌면서 지역 유지들을 대거 불자화하는데 성공해 어느 도시 보다 불교인구가 많은 상황이다.

안동불교대학 학장 혜통스님(애련사 주지)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긴 동면(冬眠)에 들었던 안동 지역 불교세가 불교대학들을 중심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면서 "유교문화권의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조사선이 사회위기 해결책"

백양사 19일 무차법회…서옹·숭산·진제스님 법문

한국 선불교 전통인 조사선을 통해 한국사회가 처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차대법회가 열린다. 장성 백양사(주지 다정)는 19일 백양사 대웅전에서 '한국 조사선 전통의 재확립과 참사람결사의 새로운 세계'라는 주제로 제 2회 백양사 참사람 무차대법회(無遮大法會)를 개최한다.

이번 '참사람 무차대법회'는 조사선이 총체적 사회위기 극복의 대안임을 제시하며 탐욕과 과학문명의 그늘에서 고통의 삶을 연명하는 중생들에게 참다운 삶의 자세와 청정한 본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차대법회에는 고불총림 방장 서옹스님과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이 증명을 하고 월하, 숭산, 진제, 종성, 성본 스님 등 교계 원로·중진과 전국의 선원 수좌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 다정스님은 "무차대법회는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공개 토론하는 장으로 선논쟁의 불식과 선풍(禪風) 진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부정부패와 도덕성 타락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 조사선으로 그 대안을 찾아내고자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지난 98년 백양사에서 열린 제 1회 무차대회에서는 깨달음의 본질적 문제인 '불성(佛性)의 실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는 '불성실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무차법회의 중요요소중 하나인 선지식과 참가자들의 선문답에 할애된 시간이 매우 적었다는 평가로, 이번 2회 법회에서는 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명대사가 주석했던 해인사 홍제암, 보물로 승격됐다.

사명대사비·홍제암 보물 승격

사명대사가 입적하기 전 수도한 곳으로 유명한 해인사 홍제암(경상남도유형문화재 제156호)과 사명대사부도·석장비(〃 제145호)가 보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7월 27일 이 두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홍제암은 겉에서 보기에는 '인법당'이라는 하나의 건물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조사전, 영각, 홍각 및 지장전 등 사명대사와 관련된 여러 공간이 모여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독특한 형태의 공(工)자 건물이다. 1614년(조선 광해군 6년) 혜구대사가 사명대사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하여 영당을 건립한 이후 6차례 개·중수되어 왔다.

해인사 사명대사 부도와 석장비는 홍제암에 조성된 사명대사의 부도와 탑비로, 부도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석종형 부도다. 1612년(광해군 4)에 건립된 탑비는 1943년 일본인에 의해 파손, 길가에 방치된 것을 1958년 복원했다. 현존하는 사명대사비 가운데 가장 먼저 건립됐으며 역사적 의미뿐 아니라 건축 및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권형진 기자

덕림사 용음스님 입적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덕림사 조실 용음스님이 7월23일 오전 10시 세수 79, 법랍 66세로 열반했다.

1933년 13세에 김제 문수사에서 출가, 36년 송광사 도산스님으로부터 사미계 수지(법명 鍾煥), 42년 송광사 대교과 졸업, 43년 석두화상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71년 덕림사 주지 및 광주불교사암련 초대회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평생 호남불교 발전에 힘을 기울여 승가의 화합과 승풍진작에 매진했다. 스님의 다비식은 7월25일 전북 고창 선운사에서 봉행됐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종단소식

조계종

버스참사 희생자 천도재

제9교구 본사 동화사(주지 성덕)는 7월2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내 고속도로 준공기념탑 앞에서 수학여행버스 교통사고로 희생된 부산 부일외고 학생 13명과 일반인 5명의 영혼을 극락으로 이끄는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유족 8명과 불교신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행사는 망자들의 한을 푸는 살풀이 춤과 스님 7명의 범패(부산·경남 무형문화재 9호) 공연, 추도 법문으로 이어졌다.

관음사 어린이 여름캠프

제23교구 본사인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는 18일부터 20일까지 관음사에서 유치부와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여름캠프를 실시한다. 예불, 참선, 추적놀이, 즐거운 영어교실, 불경 공부, 단주 만들기 등을 내용으로 한다. 8월19일에는 제주양로원을 찾아 봉사활동도 펼친다. (064)702-2828

태고종

서광사 불교복지관 개원

남제주군 남원읍 서광사(주지 성근)는 7일 오전 11시 불교사회복지회관 준공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박완일씨(前 전국신도회장)가 초청법사로 법문한다. (064)764-4126

천태종

전국교원불자 하계수련

전국교원불자 하계수련법회가 9~12일 개최된다. '생활속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이번 수련법회는 전국 교사불자 2백여명이 동참하며, 서울 관문사에서 입제한후 백령도 심청각과 인당수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진각종

신내어린이집 수탁 운영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성초)은 7월 14일 서울 중랑구로부터 신내어린이집(중랑구 신내동 474-1 소재)을 수탁받았다. 신내어린이집은 연건평 120평의 지상 2층 건물로 놀이방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총지종

14~18일 노인 경노잔치

14일부터 18일까지 두 번에 걸쳐 충북 괴산 종단 수련원에서 경노잔치를 갖는다. 65세 이상 노인이 그 대상으로 14~16일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지역, 16~18일은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이다. 남강수씨 등 연예인 불자들이 초청돼 흥겨운 노래를 들려준다.

총화종

원찰 건립 3개년 계획수립

총무원(원장 남정)은 7월 21일 중앙간부 스님 2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찰 건립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원찰은 대지 5천여평에 건평 9백평 규모로 건립되며 예산은 약 50억원으로 총화종은 전국 사암 및 종도들의 모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미륵종

중앙종회 의장 구암스님



제 2대 중앙종회의장에 채구암스님(경기도 양평 행운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구암스님은 지난 6월 17일 미륵종 중앙간부 및 전국 교구원장 연석회의에서 중앙종회 의장으로 추천되어 7월 13일 김해 성불암에서 열린 중앙종회에서 인준을 받았다.

"물질서 생명, 갈등서 화해로"

충북종교협 평화학교 운영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대 교단이 참여하는 충북종교협의회(공동대표 범추스님 외 5인)가 올 여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를 주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충북도내 각 종교단체와 시설을 순회하며 열리는 '함께 희망 만들기 평화학교'가 그것.

여름방학기간인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동안 진행하는 평화학교는 '물질가치 중심의 삶을 생명가치 중심으로, 경쟁과 갈등을 협동과 조화로, 단절과 싸움을 화해와 평화의 문명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교단별로 30명씩 180여명.

8일 원불교 충북교구에서 여는 마당을 갖고 도지사 초청오찬에 이어 각 교단에 대한 소개와 강연 등을 진행한다. 천주교 청주교구 발현지인 음성 감곡성당 방문과 꽃동네에서의 1박으로 첫날을 마친뒤 둘째날 보은 법주사로 이동해 자유토론과 분임토의, 강연, 문화산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날은 청주향교로 이동해 각 교단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갖고 김영세 충북도교육감과 오찬 행사도 갖는다. (043)256-2984

김재경 기자

아시아 종교평화회의 한반도 평화지지 성명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는 7월 21~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6차 총회를 내년 11월 자카르타 또는 반둥에서 열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 노력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실행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 및 기타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화해시키는 일을 하려고 다짐한다"며 "남한의 KCRP와 북한종교인회(KCR), 일본의 WCRP가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바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8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2000학년도 경전 전문 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 일	과 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법화경(2)	박종교수 (동산대)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귀일사상 강의
화요일	밀교의세계(2)	허일범교수(진각대)	밀교개론과 대일경·금강정경의 핵심사상강의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 자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0년 8월 1일~ 2000년 9월 2일 (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2000년 9월 4일(월), 5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매주 2경전)을 이수한 분에게 전법사를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732-1206~8 / FAX 732-1207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주부·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본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8월)
■모집정원 : 200명

1. 교과목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신종사상·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불교상담론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정토사상·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2.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 의 처
☎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산불교대학 입학추천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9월 2일 (토) 오후1시 30분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초급반)	한글불교의식 Ⅱ (중급반)	연수반 III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 개인종합연수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8월 1일(월)~ 2000년 9월 2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6시 (동산법당)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5.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눈 멀었지만 마음은 '天眼'

대광맹인불자회, 어르신 안마-지압-침술 보살행 '화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미물들에게까지 보시하셨어요. 우리는 보지 못할 뿐 움직일 수는 있으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앞을 보지 못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불자들이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살행을 펼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7월22일 사할린에서 귀국해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경북 고령 대창양로원 어르신들을 방문해 삼계탕과 떡, 과일을 대접하고 대한경락연구회 '한맥' 회원들과 함께 안마, 지압 및 침술봉사를 실시했다. 40명의 회원들은 대구연예인협회 회원들과 함께 문화공연, 풍물놀이도 펼치며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도 선사했다.

사지가 멀쩡한 일반인들이 하기에도 벅찬 봉사행을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 오고 있었다. 대광맹인불자회가 대창양로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97년 8월. 이 때부터 매달 두 번씩 무료지압 및 안마시술봉사를 실시하며 외로운 노인들의 좋은 벗이 되어 준 것이다.

대광맹인불자회 회원들은 수시로 칠곡 성가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난 4월에도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80명의 원폭피해노인들은 대상으로 위로잔치와 안마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153명의 회원들이 벌이는 이런 자비행은 안마 등 생업을 위해 밤에 일하는 회원들이 잠 잘 시간을 쪼개어 40명의 연꽃자원봉사단과 일정을 맞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불평없이 그늘진 곳에서 보살행에 나서는 것은 남에게 받기보다는 베풀어야만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개선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행이란 생각 때문. 대광맹인불자회는 지난 5월부터 매주 월·화·수·금요일 정오에 실직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도 실시하고 있다.

91년 6월 대구 보현사에서 20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대광맹인불자회는 매년 전국 시각 장애인 산행대회를 개최하고 문화공연 등을 통한 모금활동도 벌여 장애인 장학사업(매년 10명에게 250만원씩 지급), 경전 점자번역 및 녹음도서 제작 등을 통해 장애인 포교에 앞장서 왔다.

이들의 작은 꿈은 자체 법당을 마련, 조금이나마 안정된 공간에서 이제 시작단계인 점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053)256-0114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고령 대창양로원에서 안마·지압·침술봉사를 펼치는 대광맹인불자회 회원들. 어르신들의 기쁨에 힘든 줄도 모른다.

뉴스 & 뉴스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준비

청담스님 문도회(회장 정천)는 7월 27일 청담 스님의 사상과 수행을 재조명하는 기념 행사를, 2001년 한 해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도회에 따르면, 총 11억 여 원이 소요될 이번 기념 행사에는 △전집 11권 발간 △묵적 전시 및 출판 △사상연구 논집 발간 △탑비 제막 등이 있다. (02)993-3161 오종욱 기자

위안부 추모위령탑 제막

나눔의 집(원장 혜진)은 11일 오후 1시 '일본군 위안부 추모 위령탑 건립 제막식 및 추모행사'를 거행한다. 추모 위령탑은 180㎝ 높이에, 탑 아래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갖추게 된다. 한명우 기자

국토순례 대행진 회향



진각종 주최 제1회 청소년 국토순례대행진이 7월 27일 회향했다. 전국의 중 고등학생 3백여명이 동참한 이번 국토순례대행진은 '백두대간을 따라서'란 대주제 아래 7월 24일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출발해 영주-풍기-단양-제천-홍천까지 총 100㎞를 걸으며 통일을 염원했다. 이경숙 기자

14일 조계사 녹색장터

조계사(주지 지홍)가 생활용품 물물교환을 위한 '녹색장터'를 14일 경내 외국인안내소 옆 마당에서 열고 친환경 소비운동을 펼친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환경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열리는 '녹색장터'에서는 도서·의류·유아용품·신발·가방·주방용품·수공예품·잡화류·환경상품 등이 판매된다. 한명우 기자

포교원 새건물 매입 곧 이전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이 최근 안국동 네거리에 접한 웅전갤러리 건물을 구입했다.

총무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89평 규모의 이 건물에 포교원과 중앙신도회, 불교신문 등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자원봉사련 용인 수해복구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7월27일 수해를 입은 경기 용인에 자원봉사자 70명을 파견, 수해복구작업을 벌였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용인 남사면 일원리 지역의 화훼단지와 초등학교에서 물에 잠긴 화초와 교실을 정비하고 수재민들의 빨래 및 가재도구 손질을 도왔다. 한명우 기자

인사동 전통 거리로 새 단장, 그러나 불교가 없다



◇인사동이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거리 단장을 끝내고 이달 말 새 모습을 선보인다. 그러나 인사동의 새 모습에서도 불교문화를 만나기는 어려울듯 해 아쉽다.

'전통과 문화의 거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仁寺洞)은 조선시대 때 대사동(大寺洞)과 탑사동(塔寺洞)으로 불렸다. 400여칸 규모의 대가람이었던 원각사가 이곳에 있었고, 현재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의 석탑이 유명했기 때문이다.

이런 불교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사동이지만 이곳에서 불교를 만나기란 쉽지 않다. 아니 불교 없는 인사동의 역사는 오히려 깊어만 간다.

인사동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거리단장을 끝내고 이달 하순이면 새로운 모습을 시민에게 선보인다. 골동품과 고서화(古書畵), 전통다기에 화랑과 필방이 빽빽이 줄을 선 이곳 '거리 민속박물관'은 차도가 줄고 인도가 그만큼 넓어지며, 9월이면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등이 거리를 수놓는다. 야외공연장과 분수대도 마련된다. 또 이곳을 세계적인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지구 지정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생생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전과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어렵다. 불교전통문화원, 금동미륵반가상 등 불상 몇 구를 진열해 놓은 '동방공예'와 오래된 불상과 나한상 등을 전시해 놓은 '산촌 사람들', 그리고 염주를 판매하는 몇몇 상점들과 사찰전통음식점 '산촌'이 전부다.

21년째 이곳에서 '산촌'을 운영해 온 김연식씨는 "세월이 흐를수록 불교가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사전통문화보존회 김병욱 사무국장은 "눈으로 불교를 볼 수는 없지만 인사동의 정신은 불교에 있다"고 강조한다.

인근에 조계사가 있고 하루 평균 7만여명 방문하는 이곳 인사동의 새 모습에서도 불교의 생생한 체취를 느낄만한 곳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아쉽기만 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14일은 우란분절

학술회의·방생등 사찰마다 행사

8월14일 불교 5대 명절 중의 하나인 우란분절(백중·음력 7월15일)을 맞아 교계에서는 경로잔치를 비롯 학술회의, 방생·천도법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부천 석왕사는 우란분절인 14일 정오 석왕사 야외무대에서 제13회 지역노인 초청 경로잔치를 벌인다. (032)663-7771

봉은사는 같은날 오후 7시 30분 법왕루에서(미정) 봉은사 합창단과 무용단, 풍물반이 참여하는 가운데 백중맞이 문화공연을 펼친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30분에는 조상영가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한다. (02)516-5652

불광사도 14일 오전 10시30분 지난 6월27일부터 매주 월요일 지내 온 조상 및 수자영가 천도 49재를 회향하고, 효자·효부 시상식을 통해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한다. (02)413-6060 현성정사는 14일 백중기도 회향법회 및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다음날인 15일에는 혜명양로원을 방문해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점심을 공양한다. (02)3216-5405 또 봉원사(02)392-3007와 도선사(02)993-3161도 백중맞이 합동영산재와 방생법회를 각각 봉행한다.

공주 계룡산 갑사와 중도불교문인협회는 14일 오후 2시 갑사 강당에서 '우란분재와 목련전승의 문화사적 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041)857-8981

이밖에도 용주사, 해인사, 동화사, 금산사, 은해사 등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는 49일 조상천도 회향법회를 봉행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목사가 단군상·불상 파손"

한문화운동연합, 훼손 지휘 증거 공개

지난해부터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단군상 파괴의 장본인이 개신교계의 현직 목사와 장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또 경북 칠곡의 석불을 자신들이 훼불했다고 주장하고 "영천 만불사 아미타불을 철거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각급 학교에 단군상을 설치해 온 한문화운동연합(회장 장영주)은 7월2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단군상 훼손범 간증 비디오 제보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16일 경북 영천의 한 교회에서 열린 '단군상 철거 궐기대회'의 녹취 비디오와 전문을 공개했다.

단군상 훼손은 지난해 7월부터 모두 55기가 훼손됐으나 현장에서 검거된 2건을 제외하고는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었다.

이날 공개된 녹취 전문에서 최흥호 목사는 자신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단군상 훼손을 지휘해 왔다고 밝히고, "청와대에 불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가 청와대에 가면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말했다.

또 궐기대회를 주도한 조영건 장로(단군상건립반대 철거 기독교 대책위원회 법적대책위원장)는 "영천 만불사 아미타대불도 철거하겠다"면서 "영천 2만 기독교인이 진정하면 된다"고 말해, 종교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문화운동연합은 "홍익인간은 교육이념이라고 명기돼 있으며 단군을 섬기는 일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 민족의 시조로서 숭앙하는 것"이라며 "종교적 신념을 앞세운 확신범이 더 이상 치외법권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진각종 '비로자나 청소년협회' 설립

문화관광부 인가

진각종은 청소년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대표이사 혜명)'가 7월 2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정식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청소년 문화 창출과 포교활동에 나서게 됐다.

빠른 시일내에 정식으로 창립식을 가질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에 이르는 개별적 조직을 결속시켜 △청소년지도사 양성 △지역 청소년문화제 개최 △각종 청소년 수련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포교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기할 예정이다.

혜명 대표이사는 "청소년 사단법인 설립취지를 살려 청소년들의 기초적인 인성교육과 새로운 세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는 등 법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국가지속가능발전위 시민참여 보장하라"

환경사회단체회의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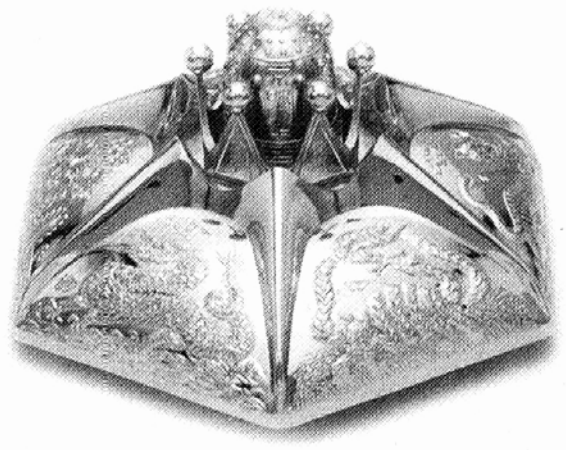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 불교환경연구원 대자연환경보존회 등 31개 환경단체가 참여한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공동대표 법륜스님 外 4명)는 7월2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설치와 관련,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규정 및 기구, 위원구성 이전에 포괄적인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소원 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 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
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명 당 육기(氣) 방은 천지(天地)간에 좋은 기(氣)가 모여 혈장(穴場)이 되고 법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잡신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고 있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항상 수호해 줌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디로 가든 천지간의
좋은 혈장(穴場)명당 자리라하여
신비의 황금 보물 명당
육기(氣)방이라 한다.

◆꿈의 계시◆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고 키가 아주작은 할머니가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기적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육기(氣)방 사용 체험사례◆

· 집안에 우환이 잦았는데 우환이 없어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소식없던 식구가 연락이왔다.
· 말썽만 피우던 자녀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우 착해졌다.
· 자동차 사고로 차는 폐차 되었는데도 몸은 한군데도 다친곳이 없었다.
· 안되던 배(선박) 사업도 사고없이 잘 되었다.
· 술먹고 도박하고 방탕생활 하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화목해졌다.
· 안되던 사업이 잘 된다.

◆사용처◆

가정집, 공장, 공부방, 새집터, 가게, 사업장, 자동차, 선박, 묘지, 장의사(관), 종합(재), 사십구제, 천도재 등 여러곳에 사용함.
실용신안 · 의장등록 · 상표등록 (특허출원)

◆구입처◆ 전국불교용품점, 사찰 · 암자, 철학관

◆상담전화◆ 051)865-9933 051)864-7878
홈페이지 :www.6kibang.co.kr

◆생각처도 않은 좋은 신기(新奇)의 기적(奇蹟)들이 많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신(神)이냐 기적(奇蹟)이냐 하는 소리가 많다.◆

주부신행담 나를 향해 마주앉아 ㊦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갈때 내 속의 나는 언제나 나와 하나

그러나 혼자 책과 테이프로만 불교를 대하다 보니 순서가 바뀌는 까닭으로 제일 먼저 읽어야 할 부처님의 자세한 말씀과 일대기를 몰라서 올해 초에 구입한 책이 있다.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펴낸 〈불교성전〉. 나는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보고는 책을 앞에 놓고 경건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다.

〈불교성전〉, 〈한마음 요전〉. 나는 이 두 가지 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 운허 큰스님이 이루신 역경원에 대하여 후학들이 하시는 역경사업의 부족한 경비를 물질로는 조금도 도움을 못드리고 다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뜨거운 격려와 갈채만 보내는 형편이라 슬프다. 불교를 알고 싶어하거나 또 조금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두가지 책을 열심히 권하고 있다.

가계가 쉬는 일요일이면 가까운 유서깊은 사찰에 가서 기도를 한다. 대구에는 팔공산이란, 불국토나 다름없는 엄청난 품을 가진 성스러운 산이 있다. 골골에 사찰이며 부처님이 아니 계신 데가 없도록 서라벌 신라 시절에 벌써 다 이루어 놓은 산이다. 마음만 있으면 잠깐 사이에 천 삼 사 백년이 넘는 고찰에 가서 우리의 선조가 순백의 마음으로 기도하던 도량에 나도 함께 할 수가 있다.

성스러운 법당에 가서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고 마음으로 향을 사른다. 이 마음의 촛불은 켜는 수고도, 꺼지는 안타까움도 없다. 그리고 백팔배를 한다. 간혹 스님이 오셔서 경을 외우시고 목탁을 두드린다. 그러면 나도 따라 기도한다.

"부처님, 지금 이 스님 목소리에 기운이 없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또 쉽게 견성하시고 큰 스님 되시고 성불하시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지금 이 법당에서 기도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혼자 절을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성불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지금 제 옆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헐떡이는 목소리로 급하게 절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절박한가 봅니다. 이 분의 기도부터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가 선을 지향할 때만 들어주십시오."

입으로는 서툰 경문을 따라 외우랴, 마음으로는 이런 말들을 하랴 혼자 아주 바쁘다.

한 십여년 전의 일이다. 내 가게 위쪽에서 생선을 파는 오십대 아주머니가 있었다. 배움도 없고 태생이 매우 거친 분이어서 거칠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도 마구 거칠게 행동하는 바람에 자신이 휘두른 칼에 자신이 찔린 듯 상처난 모습으로 시무룩히 앉아 있곤 했다. 나는 그때 젊기도 했지만 왠지 그분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한번은 살기가 힘들다고 무심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럽 사는 게 큰 일이고 돈 버는 게 큰 일이지, 그것도 몰랐나?" 생각지도 않고 던지는 말에서 나는 깊은 진리를 깨달은 적이 있었다.

"사는 게 큰 일." 그렇다. 사는 것은 큰 일이다. 얼마나 큰 일이면 법륜 큰스님께서 "이 생안 난 셈치고 용맹정진하자"고 하셨을까. 바르게 사는 것은 정말 큰 일이다. 수없이 몸으로 익히고 의식으로 강조하고 다져 잡을 수밖에. 개개인의 양심은 그야말로 근수가 다르다. 그러하기에 나의 이익도 그것이 사회정의의 기준에 맞추어서 아닌 때는 간단히 버릴 줄 아는 삶, 자신에게 엄격하고 단호한 삶을 지향해야 한다.

나는 얄팍한 마음을 가지다가 부끄러운 꼴을 당한 적이 있었다. 한 5~6년 전이다. 그 때는 전혀 불법을 모르던 때였다. 가을이면 가게 앞에 낙엽이 쌓이곤 하여 한 쪽으로 쓸어 놓곤 하였다. 새로 오신 미화원 아저씨는 내가 쓸어 놓았다고 짐작을 하는지 내가 쓸어 놓은 것을 퍼 담을 때면 눈초리가 험악했다.

나도 "저 아저씨는 별꼴이네. 자기가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할텐데 눈빛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치뜨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드디어 "이거 누가 여기 쓸어 놨어요?" 하고 큰 소리로 따졌다. 그래서 나는 잘난 듯 나서며 "제가 쓸었는데요. 왜요?" 하고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마주 쳐다 보았다.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따지다니, 그렇게 생각하며 얼굴을 발딱 들고 쳐다 보는 내게 그는 "쓸었으면 저기 봉지에 넣을 일이지 여기에 왜 두었어요?" 하고 쏘아 부쳤다.

생각지도 못한 그 한마디는 나를 사정없이 후려치고 말았다. 그렇다. 이왕 좋은 마음으로 쓸었으면 다른 사람이 더는 손대지 않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것을, 그 사람의 의무라고 남겨 두면서도 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얄팍하기 그지없는 의식의 발로였다. 나는 그 순간 불현듯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래, 뺨 내미는 것보다는 낫다' 고 생각하며 "아이고 아저씨,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처 생각이 거기까지 안 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장 쓸어 담을께요."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 이 기억은 참으로 생생하여 그 후 다른 일들도 언제나 그 선상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림 · 이준석

그 후 그분과는 아주 사이좋게 지낸다. 이처럼 바르게 살기란 나같이 선근이 없는 사람은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아 아주 어렵다. 그러니 하루에도 열 두 번 나를 찾으려고 애 쓸 수밖에.

얼마전 나 혼자 몹시 화를 낸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만나지 않고는 일이 안된다. 결단코 너를 만나야 된다. 만나고 말리라.' 하고는 이를 앙다물고 나를 향해 마주 앉아 버틸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였다. 나는 나를 만나고 있었다. 그것도 언제나 자주.

미련하여 내 속의 나를 형체가 있듯이 생각하고 만나려고 했지 내 속의 나는 언제나 나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 내가 나를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그 순간은 내가 바르게 생각할 때, 편견없는 눈으로 바르게 볼 때,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걸어 갈 때, 내 속의 나는 언제나 나와 일치가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나고 나면 간단한 것들도 그것을 깨닫기까지 왜 그처럼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것도 선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녹음기에서 스님의 염불송이 들려오자 마음속 밑바닥부터 환희심이 솟구치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 모습이 마치 넝마와 같은 생각이 들어 아주 처참한 기분속에 헤맬 때가 많았다. 그 때는 왜 그리도 넝마같은 기분이었는지.

승가에 몸 담기에는 늦어 버린 지금, 그러나 마음으로는 나도 잿빛의 옷을 입은 듯이 살고 있다. 내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인지 이제는 세상에서는 아무 것도 마음 끌리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 불원주야 사랑할 것들도, 즐거워 할 것들도, 나를 즐겁게 할 것들도 없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 듯한 이 홀가분한 느낌. 아무리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도 쓸쓸하지도 않고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이 더 기쁨인 이 생활, 이것은 아마도 부처님의 커다란 가피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최순옥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가〉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판매 : 인터넷 불교 백화점 마하몰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후면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입니다.

주머니 속 대장경

101 - 교리 · 입문편	102 - 교리 · 입문편	201 - 생활불교편	202 - 생활불교편	301 - 선(禪)편	302 - 선(禪)편	303 - 선(禪)편	401 - 문학편	501 - 문화 · 학술편	502 - 문화 · 학술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법수로 배우는 불교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참선요지 (參禪要旨)	방편개시 (方便開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허공의 딸꾹질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법수로 배우는 불교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참선요지 (參禪要旨)	방편개시 (方便開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허공의 딸꾹질	불성이란 무엇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루리도 공저, 김홍근 편역 86 변형 240쪽 / 값 5500원	이재열 지음 86 변형 196쪽 값 4500원	조월 스님 편역 86 변형 176쪽 값 4000원	혜능 스님 역음 86 변형 330쪽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86 변형 276쪽 / 값 55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醒) 스님 옮김 86 변형 276쪽 / 값 5500원	한형조 지음 86 변형 336쪽 값 6000원	이종찬 지음 86 변형 282쪽 값 5000원	전치수 지음 86 변형 196쪽 값 4500원	김종서 지음 86 변형 182쪽 값 4500원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좋은 바 된 지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벗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